

제 4장

민 간 신 앙

마을신앙과 가신신앙

무 수

풍 수 와 점 복



마을신앙과 가신신앙

김 선 풍 (중앙대 교수)

1. 민간신앙 개관

한국인의 민간신앙은 민간인의 자연적 신앙 곧 민간인이 신앙하는 자연적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럴 때 종교의 개념이 또 문제되어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 말하는 종교와 서구의 'religion'이라는 의미의 종교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있어서 이 양자 중에 어느 편을 가리키는 의미의 종교냐 하는 것이 문제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종교의 본질을 논 의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자연적 종교라는 의미의 민간신앙을 앞에 말하는 종교들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교를 인위적 종교와 자연적 종교로 구분지어 말할 수 있다. 전자는 교조(敎祖)에 의한 교리(敎理)가 문서화(文書化)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인위적 조직을 갖는 인위적 상황 속의 종교이며 후자는 이런 인위적 상황이 조금은 배제된 자연 적 상황 속의 종교이다. 그래서 후자인 민간신앙은 전자와 같이 교조에 의한 교리가 문서화 된 경전(經典)이나 체계화된 조직이 없이 있는 자연적 상황 그대로의 자연적 종교이다. 이런 민간신앙의 전승자인 민간인 자체가 인위적 상황 이전 의 자연적 상황 속에 있는 자연인이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사는 자연인으로서의 민간인의 생활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 는 자연적 종교현상을 민간신앙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의 민간신앙으로는 가신신앙·마을신앙·무속신앙·점복신앙·풍수신앙 등 민간인의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들이 있다.

가신신앙은 가택의 요소마다 신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 믿고 이 신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올리는 신앙을 말한다. 각 가신의 기능과 봉안형태·장소·의례 등의 이들 신에 따라 달라진다. 성주신, 조상신, 삼신, 조왕신, 측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마을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 모셔 놓고 재액초복을 위해 동민들이 합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체 신 앙이다. 이와 같은 마을의 공동제의를 동신제·동제·부락제·마을굿이라고 부른다.

무속신앙은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층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이다. 무속에서 신앙되는 신은 동신들, 그리고 천신·칠성신 등의 외계신들로 민간신앙에서 신앙되는 신들이 포함된다.

이밖에 잡귀를 경외시키는 사귀신앙, 묘자리나 집터를 찾는 풍수신앙, 앞일을 탐지하려는 점복과 예조·금기·주문·주술·민간의료가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민족적인 특성이 강한 민속종교나 신앙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 민간신앙들은 독특한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나 속신들이 서로 조금씩이나마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민간신앙은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지역의 마을 동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안택고사나 여러 가지 속신, 신년 초에 개인적으로 보는 토정비결, 농사점 등도 모두 이에 포함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민간신앙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 음식, 구비문학 등도 민간신앙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민간신앙은 우리의 민속의 근간이자 곧 우리네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신앙을 통해 그 지역의 삶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2. 조사개요

본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보자와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시골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발간된 『경기민속지』와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을 참조하였고 사전조사를 통해 가급적 마을 신앙과 가신 신앙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 5월과 8월, 11월 3차례의 본 조사와 2002년 1월에는 미비한 내용을 첨가하기 위해 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급격하게 변해 가는 고양시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복원·발굴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민속현상은 제보자의 중요성으로 인해 보다 시급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본 조사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도시적 색채가 나지 않는 지역을 선정 조사하였다. 수 차례 조사와 다양한 문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기억에 얽매이다보니 여러 모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다. 더욱이 제보자들 중 이 지역의 토박이는 거의 만날 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3. 민간신앙의 실태

1) 마을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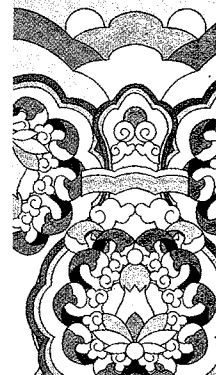
고양시 도당곳의 전반적 특징

경기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음력 정월과 시월에 마을에서 지내는 도당곳이다. 이 곳은 지역에 따라 꽃창곳 혹은 성황곳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풍농이나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적인 목적이 있다. 도당곳은 고양시 이외에도 광주, 강화, 의정부, 연천 등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마을 곳이다.

고양시 지역의 도당곳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도당곳의 명칭은 도당대라는 장소에서 도당나무에다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고양시에는 도당곳 이외에도 경사곳과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주는 진혼곳, 최영 장군을 위하는 영신곳이 있다.



그리고 질병을 쫓아내는 질병퇴치굿이 있다. 이러한 굿과는 달리 도당굿은 마을별로 행해지고 있는 굿이기도 하고 정발산(말머리) 도당굿은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도당굿의 제일(祭日)은 음력 10월경이다. 가을에 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제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한 것을 조금씩 건어서 지내는 것이다.

도당굿의 제주는 대체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맡는다. 일부 지역에서 여자들은 물론 참여할 수 없으며, 당주 무당이 따로 있다. 무당을 따르는 약사들은 다섯 명 정도이고 이들 약사와 무당들은 고양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신들이지만 서울에서 초빙돼 오기도 한다. 참고로 고양시 무당들은 대부분 단골만신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강신무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노량진, 현저동, 불광동, 구팔발 등 서울까지도 미친다. 특히 이 지역 정정자 만신은 아주 유명하다. 또한 이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최영 장군이다.

도당굿에 쓰이는 제물은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비용문제로 인해 소머리만을 놓는다. 일부지역에서는 돼지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하얀 돼지나 까만 돼지를 사용한다.

제의 비용은 예전에는 마을에서 조금씩 쌀을 건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낸다. 액수는 크지 않고 마을에는 마을의 운영 자금이 따로 있어 그것을 쓴다.

제의 절차는 과거에는 3~4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의 시작 시간은 밤 열두 시에서 다음날 정오까지 한다. 제의는 열두 거리가 있고, 무당은 거리가 바뀔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탈을 쓰고 연행하기도 한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만들었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러한 굿도 주변에 교회가 들어서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소멸해 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계승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화정동에도 마을 굿이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대화동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고양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만 타 종교에서 왜 미신을 도와주느냐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지원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 풍동 도당굿

풍동(楓洞)은 예전에 이곳에 큰 단풍나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또 달리 '풍덩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예전에 이 지역에 넓은 호수가 있어 그 호수에 풍덩 빠진다고 해서 풍동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풍 1, 2, 3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멀지 않아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것은 이 일대가 택지개발로 바뀌면서 곧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삼태기 안처럼 수목이 무성하게 둘러쳐진 산골짜기 형태이며, 샘물이 넘쳐흘러 가뭄에도 농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마을은 식량 걱정이 없는 마을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마을을 식골이라고도 한다.



풍동 식골마을의 도당제 현장



식골마을 도당제의 독경

· 제의명 : 풍동 도당굿

· 제 일

매년마다 한 번씩 지내고 미아리에 가서 무당에게 낚을 받는데 주로 음력 10월 중에 택일을 한다.

· 제의 비용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하고 떡하고 밥, 과일을 걷기도 한다.

· 제 물

특이한 것은 없고 농작물과 과실을 올렸다.

· 제 주

그해 액이 없고, 가족 모두가 평온한 자를 당주로 선출한다. 특히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나 임신한 자가 있으면 당주가 되지 못한다.

· 제의 형태 및 변천

풍동 도당굿은 마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을굿이며, 무당을 불러 치뤘다. 눈먼 무당 세 명 정도가 주도 하며 밤새도록 북을 쳐서 산신에게 마을과 개인의 평안을 빈다. 이 풍동 도당굿은 3년마다 한 번씩 거행하며 그 외에도 개인 단위로 간간이 굿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당이 주재하지 않았다. 이 굿도 마을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그 자취는 찾아보기 힘들다.

풍동 도당굿은 경기 지역의 다른 도당굿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답사시에 여러 교회가 들어서 있어서, 풍동은 기독교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 과거에 제의 날짜가 정해지면 마을 전체에서 제의를 준비하며 조라술을 담그고 전체 명당을 모아 토주에 엮어 두기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즐기던 모습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다.

◆ 정발산 도당굿

정발산은 일산 신시가지의 주산으로 옛 일산읍 장항리, 마두리의 6개 자연촌락(설촌, 냉촌, 강촌, 낙민, 놀매기, 덕밭)에 걸쳐 있다. 해발 80M인 정발산 정상에는 6.25 사변 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 부근을 정리하여 정자를 짓고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정발산의 길고 긴 산줄기는 동서에서 서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마을의 생긴 모양이 말의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곳 정발산에 대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산 아래 마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정씨와 박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많이 살아 정박산이라 부르다가 이 정발산이 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유래설은 정씨 성을 가진 높은 벼슬아치가 이 정발산 아래에 선영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 마을 부근 산에 꽃이 만



식골마을 도당제의 신내림



식골마을 도당제의 현관과 집사자



식골마을 도당제의 가가호호의 축복을 비는 소지

발하게 되었다고 하여 정발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755년 이석희 편 의 『고양군지』 표기에 의해 1차 사료적 설명 유래설로 이 산 모양이 멀리서 보면 마치 가미술을 얹어 놓아 주발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정발산(鼎鉢山)이라 했다는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정발산은 밤가시고개를 비롯한 많은 부분이 깎여진 모습이어서 본래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다고 한다.

또한, 고양시 문화원에서 조사한 바, 박정순(92세) 할머니와 장점순(72세)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 보자.



고양시민의 화합과 발전, 신도시 공사현장 무사고를 기원하며 축수한다.
(말머리) 도당굿



정발산 도당굿 보존 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발산(말머리) 도당굿



정발산(말머리) 도당굿 제물

“본래 정발산 꼭대기 아래 현재 정발중학교 뒤편 계곡에는 초가로 만든 당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사람들은 그 집이나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면 탈이 난다고 해서 접근을 꺼려했어요. 그 시절에는 나무 딸감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 정발산 굿당과 그 부근에서는 나무는 물론 낙엽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어요. 이렇듯 평소에도 신성시 여기던 이 곳이 무당들에 의해 낯이 정해지면 더욱더 마을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먼저 동네 어른들은 마을 어귀로 가서 산에 있는 붉은 황토흙을 퍼 길가에 뿌려 두는데 이는 마을을 왕래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굿을 고하는 의미와 출입을 통제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온 마을사람들은 이 금줄을 보거나 흙을 보게 되면 비린 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당굿은 적송소나무(신목) 아래에서 했는데 인근에 다른 큰 나무는 없었지요. 굿에 사용되는 경비는 각 마을로 조금씩 거출하며 현금, 쌀로 내기도 했죠. 거두어진 경비를 가지고는 쌀, 떡 등을 만드는데 음식 준비도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게 했어요.

굿을 주관하는 만신은 고양지역에서 대대로 지내온 방아고개 만신, 화전만신이었죠. 이들 만신과 악사들은 굿을 하기 하루 전에 당주집에 모두 모이게 되죠. 이 때 당주집의 분위기는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숙한데 부엌에는 인근 마을에서 선택된 5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당주로 정해진 사람은 조리술을 가지고 정발산 기슭으로 올라가 미리 물어주죠. 지금과는 달리 예전 굿은 무시무시했어요.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서 규모도 컸고 또 효험도 좋았으며, 모두 이 사실을 믿고는 집안의 평안, 풍년기원 등을 위해 빌고 또 빌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하다 못해 쌀씻은 땀물도 버리지 않았어요. 굿을 하는데 만신이 하는 소리도 시원시원했고 한마디로 말해 기가 막혔지요. 굿을 할 때는 반드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굿을 맞이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축제, 잔치의 의미로 바뀌게 되지요. 본래 굿에서는 작두를 타는 것이 아닌지 몰라도 이 곳 정발산(말머리) 도당굿에서는 작두에 올라서지는 않았어요.

굿을 하는 중간에 대밭이 순서도 있는데 이 때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분하게 돼요. 굿은 정발산에서 밤늦게 까지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하면 굿을 마치고 당주집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이 때 산 위에 있던 마을의 아녀자들은 모두 서로들 공수를 받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어요. 공수는 무당이 각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조심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만신을 ‘지자’라 부르기도 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 도당굿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경찰서에서 못하게 막아서 제사만 모신 적이 있어요. 신시가지 개발로 내가 살던 마을은 없어지고 산이 잘려도 이 곳은 계속 이어져야 해요.”

이처럼 정발산 도당굿은 금기가 철저했고 주민 모두가 참여했던 공동제의의 장소요 신성공간이었다. 말머리 도당굿이라고도 불리는 점으로 감안할 때 마신신앙(馬神神仰)의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정발산(말머리) 도당굿의 유래

정발산 근처 어느 마을(설촌말 능안골)에 살고 있는 노인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동자가 서쪽의 강을 건너 정발산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때 정발산에 있던 흰수염이 많이 난 노인이 호령을 해서 그 동자를 쫓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 근처 마을에는 괴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발산 부근의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을의 노인이 꿈속에서 본 것처럼 정발산 산신령인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붉은 옷을 입은 악마동자를 쫓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마을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이 때부터 정발산 산신령을 위하여 도당굿이 시작되었다. 이 정발산 도당굿을 관장하는 무당은 모두 5명이고, 약사도 3명이 동원되며, 약기는 피리, 대금, 해금이 연주된다.

정발산 도당굿의 내용

· 제의명 및 신격

정발산(말머리) 도당굿, 도당할아버지(산신령)

· 참여 마을

옛 일산읍 장항1리(탁밭), 장항2리(눌매기), 마두1리(낙민), 마두2리(강촌), 마두3리(설촌), 마두4리(냉촌) 등의 6개 마을

· 당명 및 형태

특별한 제당은 없는 상태이며 도당목으로 정발산 꼭대기의 소나무

· 제의 목적

과거에는 무병과 각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해하는 것을 막고자 했으며, 또한 농사의 풍년과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굿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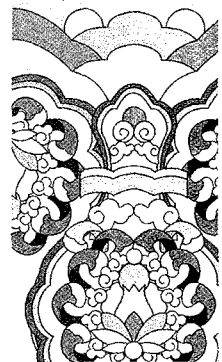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은 도시화된 고양시의 특성상 상업적 발전과 마을 사람들의 무사, 무탈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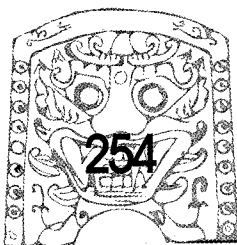
· 제 일

2년마다 음력 3월 초하루 혹은 초순경에 좋은 날짜를 잡는다. 날짜의 선택은 단골 만신과 6개 마을의 대표들이 한다.

· 제주와 당주

집안식구의 생년월일을 따져 육갑을 보아서 마땅한 사람이 당주로 선출된다. 굿하기 10일 전에 육갑을 따져 “정(淨)”한 사람을 제주로 선출하게 되는데, 6개 마을에서 6명이 선출되며 6개 마을 대표들이 제주를 정하는데, 전에 제주가 나오지 않은 마을이 우선권을 가진다. 제주는 제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데, 마을에서 걷은 돈으로 제물을 산다.





· 제물과 제비

마을 대표들이 예산을 결정하여 분배하면, 각 마을은 이장이 호구별로 일정한 양의 돈이나 쌀을 걷었다. 6개 마을 250호 정도였을 때, 한 가구당 쌀을 두 되씩 걷어 스무 가마니 정도가 되기도 하였다 한다. 제사음식은 떡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날것으로 하며, 떡은 햅살로 빻었다. 정발산에 경씨네가 살았는데, 도당곳에 쓸 술을 언제나 경씨네가 담았다고 한다. 제주가 쌀을 주면 이 댁에서 담그었는데, 이렇게 경씨네가 도당곳에 쓸 술을 담그는 관습은 도당곳이 시작된 옛날부터라고 한다. 예산이 남을 경우에 다음 제사의 비용으로 사용하며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도당곳의 준비를 위해 음력 2월 그믐날 마을 회의를 열어, 날짜와 예산을 잡고 그 추렴 방법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정발산 도당곳에서는 소머리를 올린다는 점이다. 소의 머리를 쓰는 점으로 보아 큰 신임을 알 수 있다.

· 제사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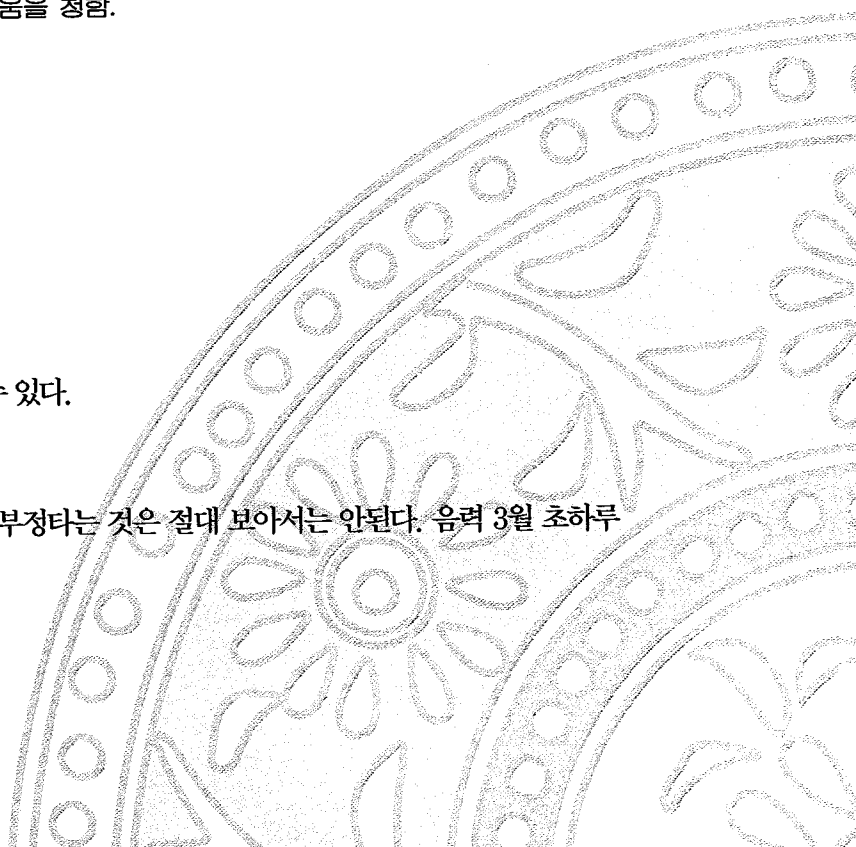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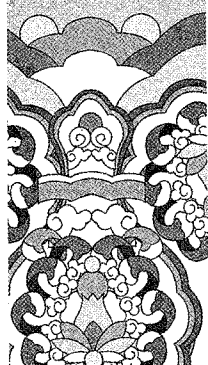
우선은 떡과 소머리와 다른 제물을 상에 차리고, 제주가 먼저 절을 한다. 제주가 서낭대를 잡고 소신을 내린 뒤에 동네 사람들이 절을 한다. 그 뒤 무당이 12거리의 굿을 하는데 24 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초당 : 첫 장구소리를 내는 것.
- 부정 : 참석한 마을의 성씨를 들어 축원한다.
- 가망청배 : 각자의 조상을 청함.
- 부정거리 : 부정사에 부닥쳐도 무사를 빌며 축원한다.
- 부정말명 : 처녀귀신을 달래어 쫓아냄.
- 성황거리 : 성황신에 빌어 애원함.
- 대감놀이 : 각종의 대감신께 도와 달라고 빌며 애원함.
- 불사거리 : 부처 삼신할미에게 기원함.
- 칠성거리 : 칠성님께 자손들의 안녕을 기원함.
- 제석거리 : 제서(삼신할미)께 기원함.
- 호구거리 : 인물, 사물을 몰아냄.
- 산신거리 : 군웅놀이-산신과 어울려 논다.
- 사냥놀이와 산신할아버지가 사냥 나갈 때 응원함.
- 막동놀이-산신할아버지 심부름꾼 놀이.
- 장군님놀이 : 최영 장군을 모시고 하는 놀이.
- 도당거리 : 산신 전체와 하는 놀이.
- 별산거리 : 제일 나쁜 귀신을 몰아냄.(이 때에 무당이 칼을 들고 작두를 탄다.)
- 신장거리 : 옛날 말을 타고 벼슬을 한 귀신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함.
- 성주거리 : 대동 대주 잘 되라는 놀이.
- 창부거리 : 3년의 평안을 축원함.
- 건립 : 터주 건립놀이.
- 지신 : 터놀이.
- 맹인 : 장님도 복을 받으라는 놀이.
- 텃대감 : 동서남북 빠짐 없이 각 가정을 축원함.
- 영산풀기 : 달리고 뛰면서 무고를 축원함.

제차에서 살필 수 있는 대로 이 당의 주신은 최영 장군임을 알 수 있다.

· 금기 사항

제주는 매일 목욕을 해야 하고, 상가집에도 가지 않아야 하며, 부정타는 것은 절대 보아서는 안된다. 음력 3월 초하루



부터는 마을곳이 끝날 때까지 마을 안팎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일단 들어온 사람은 곳이 끝난 후에 나가야 한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정발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올라간 후에 장구를 치고 나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정발산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 주교동 도당굿

김재덕(83, 주교동), 이철영(75세, 주교동)

주교동은 고양시청이 위치한 곳의 법정동 명칭으로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지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한강제방이 축조되기 전 이곳이 배다리라 해서 한강으로 흐르는 샛강이 있었는데 이 샛강에 다리가 없어 배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건넜다 해서 생겨난 것이 첫 번째 설이다. 두 번째 설은 마을의 모양새가 마치 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한자표기로 주교동이라 했다. 마을에는 박재궁, 독꽃이, 이작골, 능골, 장터거리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덕양구 주교동의 노인정

· 제의명 : 도당굿

· 당명 및 형태

당이 있었는데 나무 형태로 되어 있고 도당나무라 불렀다. 그 나무는 매우 컸는데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당나무는 고목이 되어 썩어버렸으나, 나무가 영험하다는 말이 있어 떨감으로 그 나무를 가지고 갈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시청 뒤에 있는 고개가 도당굿을 하던 자리인데 도로가 나고 주택도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 제 일

매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10일에 한다. 특히 이 날은 날씨가 좋다고 한다.

· 제 주

제주를 이곳에서는 당주(堂主)라고 한다. 당주는 주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 중 마을에서 추대해서 선출한다. 그러면 당주집에서 떡방아 뿜아 떡도 준비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선출한 사람은 예전에 거의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모두들 합심하여 잘 준비했기 때문이다.

· 제물 및 제의 비용

큰 제물로는 돼지가 올라간다. 돼지는 전날에 미리 잡아놓고 머리만 사용한다. 음식은 당주집에서 모두 준비한다. 술은 직접 당주가 준비하고 뿜히자마자 바로 준비를 한다. 제비는 마을에서 조금씩 걷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성심성의껏 냈다고 한다.



· 제의 절차

만신을 불러다가 당주가 가지고 온 돈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빈다. 제의는 초저녁에서부터 당일 해 뜰 때까지 하루 동안 진행한다. 만신은 중 모양으로 장삼옷을 해입고 대번 병거지를 쓴다. 그렇게 입고 춤을 추면서 굿을 했다.

이 지역 만신은 구파발에서 오는데 여러 명이 있었다. 한 명이 해마다 올 수 없으니까 시간되는 만신들을 불러 잘하는 사람을 주무(主巫)로 뽑았다. 이들 만신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대를 관여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처럼 잘 구분되어 있는데 잘하는 만신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무당들도 있다. 작두 타기는 때에 따라서 할 적도 있다. 그들은 특히 노래를 잘 불렀는데, 지금은 그들 만신들이 거의 사망하고 없다.

· 금 기

제의가 시작되려면 원 새끼를 꼬아서 표시를 해 놓았다.

· 제의 소멸과 변천

제의는 신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없어졌다. 그 이유는 돈을 걷어야 하는데 돈이 잘 걷히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이 곳에 살던 박용관이라는 이가 그 자리에 교회를 짓게 했다. 그렇게 교회를 지으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당의 형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 문봉동 빙석촌 산신제

빙석촌은 이 마을에 얼음 같은 돌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제의명 : 산신제

· 제 일

10월 중 택일(3년에 한 번)해서 제를 올렸다. 마을에서 훈장일을 보던 백낙운이라는 분이 날을 잡아 주었다.

· 축 문

축문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나면 그 자리에서 축문을 태워버린다.

· 제당 위치 및 형태

봉화뚝이 있는 산의 칠부쯤 올라가면 조상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모신다. 그 옆에 조그마한 샘이 있다.

· 제 주

제주는 한 명을 선출하거나 주로 이장이 맡는다. 그리고 몇 명이 이장을 도와 제를 지내고 제수를 준비한다. 모든 준비는 주로 제주가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배(拜)를 올릴 때만 같이 한다.

· 제의 비용

조금씩 걷기도 하나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함께 모여 음복을 할 때 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낸다.

· 제 물

생돼지(검정색), 시루떡, 일반과실 등이며, 제수를 담은 제기는 새로 사서 쓴다. 음식은 한 사람이 지게에 지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쉬거나 멈추면 절대 안된다고 한다.

· 제의 절차

밤 12시쯤에 제주와 마을 사람들은 준비해 놓은 제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다. 축문을 읽고 마을 전체 소지도 올리고,

올라갔던 이들이 절을 하고 다같이 음복을 하고 나면 제의가 끝난다.

· 금 기

집안에 임신 중이거나 사망을 하면 참여를 못하고, 불길한 경우에는 다시 날을 잡는다. 매우 엄격한 제의였다.

· 기 타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서낭당이 있었다. 식사리쪽으로 넘어가는 원당면과 벽제면 경계에 지금 군부대가 있는 곳에 큰 서낭당이 있었고, 작은 서낭당이라고 해서 견달산에도 당이 있었다. 이 당은 마을의 동쪽에 있던 불당골이라는 절 고갯마루에 있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도 서낭당이 있었다. 마을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당에 음식을 놓거나 동전과 돌 등을 던지고 그들의 무사를 빌었다. 특히 정월 열나흘 날에 입구에 있던 서낭당에 가서 저고리 동정 꼬트머리에 있는 끝동 옷고름을 떼어서 나무에 매달고 밥을 해 놓고 빌었다. 이것을 바치는 이유는 자신이 지닌 액을 거기에 보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접시에 밥을 수북히 담고 무나물을 바치고 상수리나무나 뱃나무, 기엣나무 등이 있으면 가지에 붙들어 매달고 아무 탈 없이 잘 크게 해달라고 빌었다 한다. 이 당에서는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빌기도 하였다.

◆ 행주내동 마을굿

행주내동은 권을 장군의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 바로 밑에 위치한 동네이다. 따라서 이 동네에서는 매년 3월 14일 행주대첩 제례가 있기 전 고양시문화원 주최로 굿판을 열었다고 한다.(노인정 어른의 말씀으로는 굿을 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라 하나 정확하지 않다.)

제비는 굿을 행하기 전에 동네 가가호호를 돌면서 굿판에 보태기 위해서 쌀을 한 되씩 걷는데, 이는 경제적 지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굿판에 마을 사람들 모두의 정성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또 이렇게 모으는 쌀은 매일 밥하는 쌀의 일부를 털어 그 정성을 모아 준다는 의미에서 '절미'라고 부른다.

그리고 행주내동에서는 행주대첩 제례와는 무관하게 동네 차원에서 크게 굿을 벌인 적이 있다. 그 이유는 행주기씨 비호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행주산성 북쪽 중턱에는 기씨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서 행주 기씨의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여 기씨바위라 부른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행주 기씨들이 이곳 근처에 행주 기씨 비호를 세웠다고 세전한다.¹⁾

문제는 비호가 세워지고 난 후였다. 그 후 이 동네에서는 우연하게도 30~50세 가량의 청년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동네에서는 그것이 기단부(저북이 모양)가 동네를 향하고 있는 기씨 비호가 세워지고 난 이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 하여, 미신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액땜의 차원에서 동네굿을 벌였다고 한다. 물론 그 굿이 행해지고 난 후 마을의 청년들의 사고는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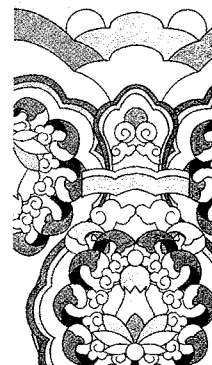
조사자들의 소견으로는 당시 정황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일련의 사건들과 굿의 의미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굿을 통해 동네사람들이 슬픔을 나누고 동네에 일어난 비극적 상황을 씻어보려 했다는 점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제보자: (이병윤, 남, 76세)

◆ 문봉동 봉화제

문봉동에서 제일 높은 산인 봉화산(일명 문봉산, 독산)에는 과거 통신수단의 하나인 봉화터가 있었다. 오래 전부터 봉

1) 행주산성 북쪽 중턱에 위치해 있는 이 비는 행주 기씨의 행적과 업적을 담고 있다. 이 비의 내용을 보면 고려말 행주 기씨 집안에서 공녀로 뽑혀간 사람 중에 원나라 황후가 되자 기씨는 그 세력을 믿고 정치를 마음대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민왕 때부터 원나라의 감찰기관을 폐지하고 원나라의 힘을 제거한 후에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할 때 행주 기씨의 관료 및 일가족이 귀향을 가게 되었고 그 후 행주 기씨는 이곳에서 거의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화터에 봉화불이 켜지면 마을 사람들은 떡과 돼지, 술을 가지고 봉화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다. 봉화제는 주로 초가을에 행해지고 매년마다 이 때쯤 제를 올린다. 봉화터는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며 돌로 성을 쌓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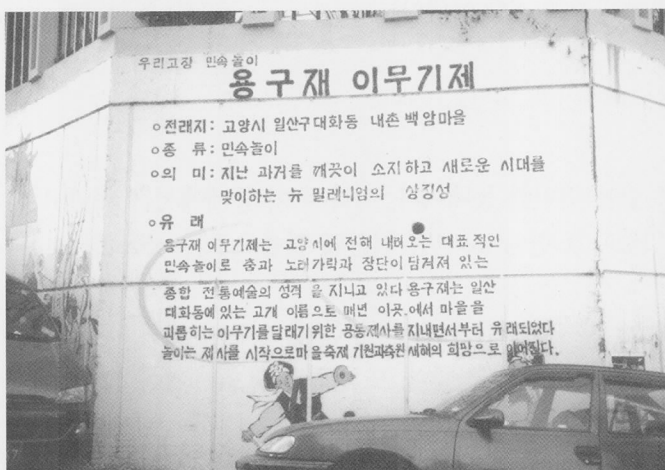
한동안 중단이 되어 그 맥이 끊어질뻔 했으나 지금은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날을 잡아 제를 지낸다.

제보자 : 임상만 (남, 76세)

◆ 용구재 이무기제

이 제의는 현재 대화동 내촌마을인 대화리 뱀개마을에서 전해 오던 마을 곳으로 용의 해 동짓달 용날에 지내던 제의이다. 지금은 놀이적 성격만이 부각되어 있지만, 원래 이 제의는 12년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이 이무기를 만들어 제사를 지낸 뒤 다같이 놀다가 서해 바다에 띄어보내던 일종의 마을굿이다.

이무기제가 행해졌던 용구재는 과거에 중선배, 조기잡이와 새우잡이 배들이 몰려와 정박하면서 잡아온 것들을 판매하던 포구였다.



고양시청 옹벽에 그려져 있는 용구재 이무기제 소개문



고양시청 옹벽에 그려져 있는 용구재 이무기제 벽화



고양시청 옹벽에 그려져 있는 용구재 이무기제의 이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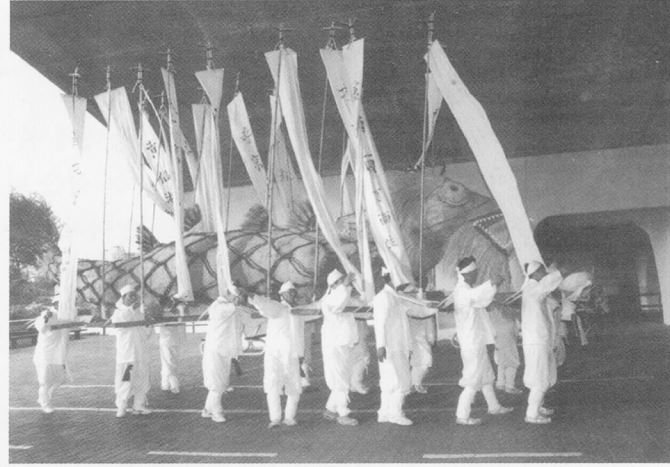
일산 호수공원에서 재현되고 있는 용구재 이무기제

이 제의는 용이 못된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부정을 타서 떨어져 그 이무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굿이다. 제의시에는 매우 엄격한 정도로 정숙하게 행해졌다. 이 제의의 주된 목적은 물론 이무기를 위한 것이지만 마을의 안녕과 수해, 가뭄 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무기나 용이 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무기를 놀릴 때는 12지신 탈을 쓰고 12지신도 함께 놀린다. 이 제의는 일제시대 초기에 사라졌으나 근래 놀이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다시 복원시켰다. 참고로 이 제의는 2001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고양시청 옹벽에 그려져 있는 용구재 이무기제의 행렬장면



호수공원에서 재현되고 있는 용구재 이무기제

이밖에도 옛 지도읍 화정리 냉정마을의 산신제, 일산9리 율동과 10리 후동에서 10월에 지내는 산신제가 있다. 또한 옛 일산읍 백석 4리에는 흰돌이 있는데 이 곳에서 도당굿을 하였고, 백석 1리도 흰돌의 작은집이라 해서 백석 3리와 함께 4년마다 도당굿과 산신제를 지냈다. 덕양구의 원흥동, 북한동, 덕은동, 대자동, 도내동지역 등에서도 지금까지 산신제나 도당굿을 지내고 있다.

2) 가신신앙

◆ 고양동 가신신앙

· 지신밟기(터주굿)

한해 동안의 복을 빌고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이 담긴 놀이다. 이때는 선두에 '지신밟기'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기 뒤에는 농악대가 따라간다. 그리고 농악대 뒤에는 기수, 사대부, 팔대부 하동, 포수 등으로 분장한 이들이 따르고 이들은 맨 먼저 마을의 주산(主山)을 찾아가 서낭당 앞에서 '주산지신밟기'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마을로 들어와서 부유한 사람의 집에 차례로 들어가 지신을 밟아준다.

지신을 밟으면 터주가 흡족해하여 악귀를 물리쳐 주인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가족의 수명과 건강을 지켜주며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한다. 일행을 맞이한 주인은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고 돈과 쌀로 사례를 하는데, 이렇게 모은 것은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사용한다.

· 삼 신

아기를 낳고 첫 이레, 두 이레, 셋 이레 되는 날마다 삼신을 위한다. 아기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아기가 낳으면 짚을 깔고 하얀 쌀밥과 미역국을 한 그릇씩 올려놓는다. 이때는 방문 앞쪽이 아닌 뒷문 앞에다 놓는다.

· 재수굿

재수굿은 집안에서 하는 것으로 새끼줄을 왼쪽으로 꼬아서 문 앞에 걸어 놓는다. 이 행위는 부정한 사람이나 잡귀신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왼쪽으로 꼬은 것은 이미 이 집에 부정한 것이 있으니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라는 뜻이다.

· 성 주

성주는 집안을 위하는 신으로 대청 보에 모신다. 종이를 접어 놓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하얀 명주실을 대들보에 걸어 놓기도 한다. 시월 상달고사를 지낼 때면 시루떡을 놓고 빈다.

제보자 : 김간난 (여, 90세, 고양동)

◆ 풍동의 가신신앙

· 터 주

예전에는 동네에 굿하는 집들이 많았다. 이 동네에서는 특히 집에 모시는 토주(터주)에게 지낸다. 터주는 짚을 덮어놓았으며 명단 같은 걸 꽂아 놓았다. 제물로는 떡하고 과일, 밤이며 만신이 정해진 날짜에 행한다. 그렇게 날이 잡히면 장님이 마을에 와서 터주에 고사를 드리면서 경을 읽는다. 굿은 밤새도록 했으며 장님 서너 분이 와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북을 치면서 지냈다. 이 굿은 주로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자주 했는데 지금은 행하고 있지 않다.

터주는 향아리에 쌀을 가득 담아서 대나무를 쪼고 어느 집에 가서 “이 집 병이 낫겠습니까”해서 맞으면 대가 딱 서고, 그것이 아니면 옆으로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

마을 전체를 수호하는 터주는 어병가리를 따로 모시며, 마을굿으로 어병가리를 위하기도 한다.

제보자 : 최의순 (여, 73, 고양시 풍동)



풍동에서 자리한 어병거리·대감거리

◆ 원신동 가신신앙

원신동은 고양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원당읍이 5개동으로 나뉘어지면서 원당동과 신원동이 합쳐져서 원신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 대감굿

음력 10월 초순에 날을 잡아서 제를 지낸다. 제일은 무당이 날을 받아 잡아주고 제물은 떡을 하고 술 안주는 돼지고기로 하는데 특히 돼지 다리를 안주로 한다고 한다. 제의 순서는 제사거리, 사당거리, 성주풀이, 성황거리 등 모두 12거리를 한다. 성왕거리는 무당이 나와서 하고, 조상거리는 조상의 넋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굿을 하는 주된 이유는 풍년과 집안을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이 굿이 행해지지 않는다.

· 삼 신

아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데 관여하는 신은 삼신이다. 삼신을 위한 굿이나 제의는 없고 아이를 낳고 나면 짚을 깔아주고 미역국을 아이 낳은 방에 놓는다.

· 성 주

방안 윗목에 모신다. 지금은 대개 절로 가서 모신다.

· 업 신

집안에는 어느 집이나 업을 모신다. 업은 주로 동물, 특히 뱀, 구렁이, 두꺼비 등이다. 구렁이를 집안에 업신으로 여기는 집이 가정도 화목하고 가족 모두가 잘 된다. 업가리가 있었다.

제보자 : 윤충갑 (남, 63, 원신동)

◆ 문봉동 빙석촌의 가신신앙

· 정월무굿

정월 열하루날 무당을 불러와 집안에서는 무굿을 하는 집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는 식으로 미리 점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 무당이 굿을 하거나 점을 본 다음에 처방을 내려준다. '무엇 무엇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면 그해는 각별히 그런 것을 지킨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 큰 무당이 있었다.

· 장독대고사

예전부터 장독대는 아주 신성시해서 아들이나 가족이 아주 먼길을 가기 전에 상이나 쟁반에다 정안수를 떠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날이 어두워지면 무사하라고 빌었다.

· 터주고사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마당이나 뒷곶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놓고 추수가 끝나면 수확물로 떡과 술을 해놓고 고사를 지낸다. 또한 이 지역에는 터주자리 이외에 대감독이 있었다.

· 성 주

집안의 대들보에 베를 걸어놓고 성주를 모셨다. 시월고사를 지낼 때면 시루떡과 술(막걸리), 돼지 머리를 놓고 치성을 드렸다. 물론 이때는 성주에만 고사를 지내지 않고 집안 구석 구석에 지낸다.

성주 고사는 10월 상달 중 첫째 말날에 한다.

집안 부적 :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절에서 받아온 부적을 문 앞에 붙여놓기도 하였다. 이 부적은 삼재 든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 업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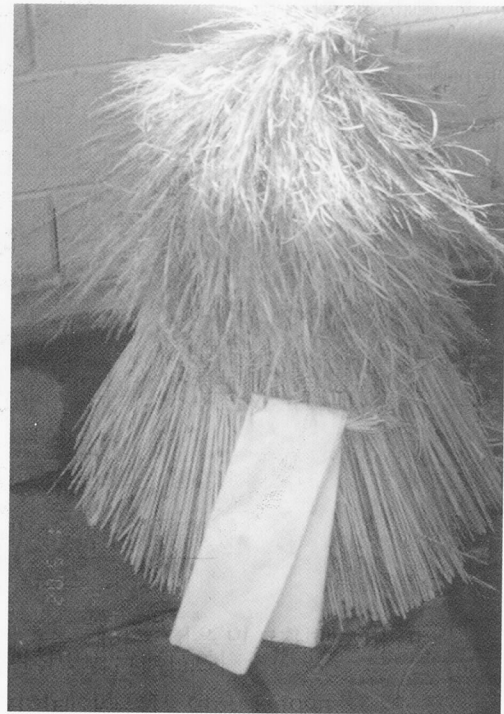
집안의 업신을 모시기 위해 업양가리를 만들어 놓았다. 업양가리는 터주자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시월고사에 함께 제물을 차려놓고 빌었다.

· 점 복

정월대보름에 보름달이 불그스름하면 가뭄이 든다.

· 기 타

예전에는 마을에 초상이 나서 조문을 갈 때나 올 때는 반드시 집에서 계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탈이 없다고 한다. 또 초상집에서 장갑 등을 가져와 부엌이나 화장실에 놓고 쓰면 탈이 없다.



업양가리라고도 하는 어병가리

◆ 효자동의 가신신앙

효자동은 고양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서울시 은평구와 접해 있는 지역이다. 마을 이름이 효자동은 예전에 박태성이라는 이름난 효자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용알뜨기

보름날 새벽에 일찍 우물에 가서 용알을 떴다. 우물물을 뜨는 것은 이 물로 아침밥을 하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좋다고 하여 행해진 것이다.



· 점 복

정월 열나흘 밤에는 잣불을 켜다. 이려고 나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이 잣불은 ○○ 잣불이다”고 하면서 식구 뒤편에 잣에 불을 붙이고 타 들어 가는 상태를 보고 그 해 신수를 점쳤다. 잣불이 잘 타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혹시 잘 타지 않는 잣불이 있으면 서너 번 불을 켜본다. 그래도 잘 타 들어가지 않으면 그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

· 밀떡고사

칠월 칠석에는 집안에서는 밀떡(밀전병)을 부치고 신에게 후식을 드린다는 의미로 참외를 곁들여 밀떡고사를 지냈다. 그렇지 않은 집들은 이날이 되면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 상달고사

10월 상달은 길한 달이다. 이때 조상에게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날, 말날 중에서 좋은 날을 잡아서 성주, 대감에게 고사를 지낸다.

· 삼 신

삼신은 아이 낳은 지 첫 이레, 두 이레, 세 이레 되는 날마다 상을 차려 위한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뜻에서 삼신을 위한다. 삼신의 위치는 아이를 낳은 방 한쪽에 막대기로 만들어 놓은 옷거리를 매달아 놓은 벽 밑이다. 아랫목이든 윗목이든 손이 없는 곳에다 놓는다.

◆ 문봉동 빙석촌

· 안택고사

구시월에 만신들이 날을 잡아 했다. 고사를 지낼 때는 만신들을 부르고 낮에 떡을 해놓고 저녁부터 시작한다. 술은 막걸리를 사용한다. 처음에는 성주에 놓고 다음으로는 대청마루, 터주자리 대감, 지석(제석)의 순으로 빈다. 예전에는 화장실, 노적자리 등에도 놓고 빌었다고 한다.

· 성 주

성주의 신체는 베를 너자 세치를 끊어서 네겹으로 접어서 대들보에다 걸어 놓는다. 안택고사 지낼 시에 위하는데 절은 3번 한다. 다른 집에는 대감 모자라 해서 대감모자를 성주로 모신다.

· 정한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가족 중에 먼 곳에 갔을 때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다.

· 터주고사

터를 관장하는 신이 터주신이고, 산을 모시고 있는 증거물이 터주자리이다.

· 업 신

업을 모시기 전에는 업받는다고 해서 손이 가는 데로 가서 업가리를 만들어 놓는다. 업양가리라고 하는데 이곳에 업신을 모신다. 예전에는 이 지역 만신에게 물어봐서 업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업신은 구렁이나 족제비, 두꺼비 등과 같은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제보자 집에서는 노랑족제비를 업으로 모신다고 한다. 특히 두꺼비를 모시는 집은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한다.



장동 위에 있는 성주신 신체

업고사를 지낼 때는 백설기, 냉수(정한수)를 놓고 과일은 일체 놓지 않는다. 시간은 밤 12시에 한다. 고사에는 무당이 징을 치면서 공수를 하고 주인은 바가지를 잡고 있으면 업신이 내린다. 바가지 안에는 쌀과 백설기를 넣는다. 그러면 바가지를 잡고 있던 사람은 뭐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가지를 집안 이곳저곳으로 가져가서 뿌리거나 가지런히 차려 놓는다. 특히 집안 뒤뜰에 놓는다.

지금은 업을 모시고 있는 집은 거의 없다. 새로운 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

· 기우제

비가 오지 않으면 여자들이 우물가에 가서 솔뚜껑(소두뱅이)을 때렸다. 남자들은 봉화독에 가서 산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봉화독 산제사에는 여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다. 이때는 돼지 잡고 남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간다. 특히 시루떡을 찌서 가지고 간다. 그리고 제기나 음식 도구는 전에 쓰던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새 것으로 준비한다.

봉화독 산신제는 남자들이 밤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이튿날 준비해두었던 떡이나 돼지고기를 마을별로 돌린다.

· 용알뜨기

정월 14일에 우물에 가서 식구들 나이수대로 밥을 해서 밥중에 조금씩 담아서 우물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용왕님께 일 년 열두 달 편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다. 던질 때는 한꺼번에 던지고 밥은 흰밥만 넣는다. 이 일을 용왕님 밥주기라고 한다.

· 삼 신

아이를 낳으면 짚을 깔고 미역국과 청수도 같이 올린다. 짚대신에 맨바닥에 놓기도 하고, 앞치마 같은 것을 깔아두기도 한다. 아이가 아프면 여러 색깔의 형겅을 자르고 밥을 새로 해서 서낭당에 가서 빌었다.

· 터주고사

집안에 터주거리라 해서 터주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 있다. 터주거리는 이엉을 엮어 만든다. 여기에 떡하고 술을 가져놓고 고사를 지낸다.

· 기 타

일본인들은 이곳 현달산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이것은 맥을 끊기 위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산룡대감이라 하여 산의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다. 이신은 산 모퉁이에 있는데 특별한 날에는 산의 흙을 못 뚫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제보자 : 이서운 (여, 75세)

◆ 문봉동 가신신앙

· 터주거리 · 업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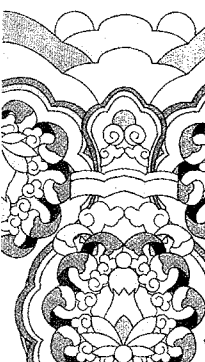
집안에서는 단지에 터주를 모셨고 업을 모시는 업항아리도 있었다. 업항아리는 검은색 항아리이고 그 안에는 새까만 콩을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주저리(주제비)라고 해서 그것을 찌어놓았다.

업항아리의 콩은 일년에 한 번씩 새로 바꿔주는데 이는 농사 지어서 까만콩이 나오면 곧바로 채우는 것이다. 또 첫 열매가 나면 그것도 넣어 놓는다.

까만콩을 넣는 이유는 집안에 모시는 업신이 검은 색 뱀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검정콩을 넣어 신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업신은 뱀 이외에도 김대업, 인업, 두꺼비업, 족제비업도 있다. 업중에서도 특히 두꺼비업은 부자가 되고 긴업을 모시면 용 같이 길어서 좋다고 한다.

업은 무당이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꿈에 보이는 것을 업으로 모신다.

성주단지와 업거리는 같이 놓는데 터주거리를 오른쪽에 놓고 업거리는 왼쪽에 놓는다.





제4장 민간신앙

· 서낭당(성황당)고사

정월 열나흘 날에 오탁밥을 해서 그것을 서낭당의 서낭할아버지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면 한해 액을 막아준다.

· 용알뜨기

정월 대보름에 나이수대로 밥을 해서 창호지에 묶어 우물에다 놓고 한해의 운수를 점쳤다. 이 밥을 용밥이라고 하고 일 년 동안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 굴뚝신

굴뚝에도 신이 있다. 신의 이름은 굴뚝신 또는 굴대장군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시월고사를 지낼 때 마지막으로 여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올렸다.

· 기 타

예전에는 집안에서 여러 가지 굿을 자주 했다. 집안이 좋아서 하는 굿을 경사굿이라 하고 마을에서 좋아서 하는 굿을 신사굿이라고 한다. 신사굿은 10월 상달에 한다. 그리고 집안에 병자가 생기게 되면 무당을 불러다 병굿을 했다.

· 업 신

업을 모셨는데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놓고 창호지로 덮어 놓았다. 이렇게 항아리에 놓은 쌀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뱀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운수가 대통한다고 한다. 특히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 삼 신

아이를 낳으면 밥을 두 그릇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던 방에 놔두고 “삼신할머니 고맙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이 끝나면 그 밥을 밖에다 버린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는 밥을 따로 해서 준다.

· 축간신

축간에 가서 쓰러지면 못 일어 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장실 귀신을 무서워한다. 환갑 잔치 때는 간장하고 여러 음식을 가져다 놓고 화장실에 차린 다음 문을 닫아 놓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빠지면 백설기를 해서 고사를 지낸다. 이때는 빠진 아이를 깨끗이 씻어 놓고 제사 지낸 뒤 백설기를 조금씩 떼어서 아이에게 던진다. 모든 것이 끝나면 백설기를 마을에 돌린다. 이것은 화장실에 빠지면 팔자가 사납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 좀생이점

좀생날 새벽에 일어나 별을 보고 농사점을 보았다.

· 보리 뿌리점

집안에서는 입춘날 밭에 있는 보리를 뽑아 놓고 뿌리를 보고 점을 친다. 보리뿌리가 길면 겨울이 춥고 비도 많이 오고 짧으면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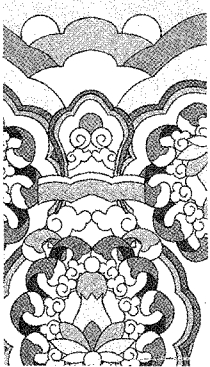
· 기타 점복

수수깁을 실로 칭칭 감아서 우물에 넣어 놓으면 6월달에 비가 온다. 그리고 달이 남쪽으로 이지러지면 남쪽이 흉년이 고 북쪽은 풍년이다. 그리고 달의 색깔이 하얀색이면 그해에 비가 많이 온다.

또한 잠자리가 높이 날면 비가 오지 않고, 사람하고 가깝게 날면 비가 온다. 또 재비가 사람 옆으로 지나가면 비가 오고 까치가 북쪽으로 집을 틀면 비가 온다.

· 안택굿

집안에 우환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 굿을 할 때 무당은 춤을 추면서 오색 깃발을 들고 나와



주인에게 뽑으라고 한다. 오색기는 빨강색, 노랑색, 하얀색, 남색 등이다. 이때 빨강색을 뽑으면 운이 좋다. 하얀색은 조상을 뜻해서 나쁘다. 보통은 빨강색이 나올때 까지 계속해서 뽑는다.

무당이 굿을 하는 경우에 쌀을 가지고 점을 보기도 한다. 무당이 준비한 쌀을 집안 주인이 뽑는다. 쌀의 숫자가 짝수이면 좋고 홀수이면 나쁘다. 홀수가 나오면 다시 하고 짝수가 맞으면 그 쌀을 입안에 넣고 씹고 삼킨다.

· 서낭당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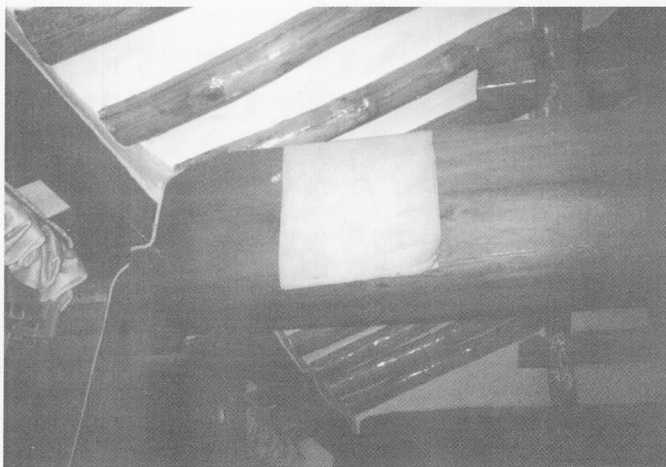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경우 집안에서 굿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서낭당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이때는 밥, 나물, 술을 준비한다. 그리고 다 끝나면 해놓은 밥을 서낭당 주위에 버린다.

· 기 타

정월 대보름에 서낭당을 지나가게 되면 돌을 버리거나 침을 뱉는다. 이는 귀신이 붙어오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다.

제보자 : 최공란(여, 68), 김옥기(여, 68세), 방정순(여, 64세)

◆ 고양동의 가신신앙



대들보에 있는 성주신 신체

· 터주대감

터주는 이 지역에서는 산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보통은 터주대감을 집 뒤에 모신다. 과거에는 모시던 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두집만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터주는 집안의 안녕을 관장하는 신이다. 터주신을 모신 단을 터주거리, 또는 터주대감이라 한다.

· 성 주

성주가 있는 곳은 마루다. 어떤 집에서는 대들보나 안방에 모시기도 한다. 성주의 신체는 종이나 삼베를 접어서 만든다.

· 상달고사

칠성을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들을 위하는 고사는 시월에 지낸다. 이는 자손들이 건강하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때문에 바에서 하는 것이다. 제물로는 시루떡, 돼지고기, 막걸리 등이다. 백설기도 올리는데 백설기는 칠성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다.

· 삼 신

근래까지 삼신을 위하는 집들이 많았다. 특히 아들이 없는 집은 더더욱 그렇다. 이는 아기를 위하는 것으로 모시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조 왕

주왕이라고도 부른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여자들이 주로 위한다. 아침이 되면 사발의 물을 갈아준다.



3) 무속신앙

◆ 병 굿

오늘날 몸이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되었는데 과거에는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좋지 않으면 무당을 불러 병굿을 했다. 병굿을 하게 되면 무당은 칼과 손가락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놓고 칼을 흔들며 춤을 추면서 '화시소'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칼하고 손가락을 던져서 칼이 바깥쪽이 보이면 병이 나가는 것이다. 만약 칼이 안쪽으로 보이면 병이 안나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칼을 던지고 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수차례 나갈 때까지 던진다.

그렇게 다 끝나면 마당에 칼로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병이 있는 환자가 칼을 쥔다. 침을 세 번 뱉는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 병이 말끔히 낫는다.

◆ 재수굿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면 무당을 불러다 재수굿을 했다. 이때는 새끼줄을 꼬고, 특히 새끼줄은 왼쪽으로 꼬아서 문앞에 걸어 두었다. 그 의미는 부정한 사람이나 잡귀신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왼쪽으로 꼬은 것은 이미 이집에 부정한 것이 있으니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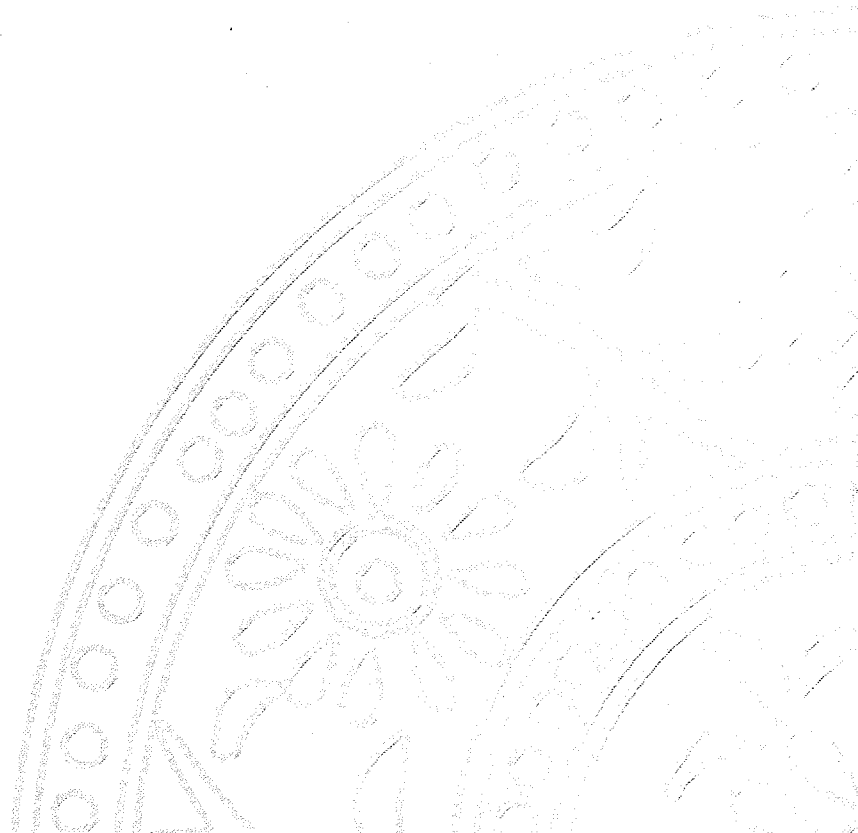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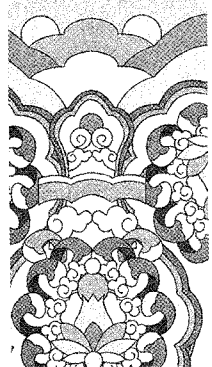
◆ 최영 장군 위령굿

고양시 일대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최영 장군에 관한 전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살아 생전의 최영 장군의 강직한 성품을 본받아 그를 신으로 모시는 무당이나 마을들이 많다. 더욱이 고양시 일대는 최영 장군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 지금은 대자동 대자산에 최영 장군의 묘가 있지만, 이전에는 최영 장군의 영정을 모시는 있는 영산(靈山)인 덕물산(지금은 북한 개성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번 답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만신들이 최영 장군을 주신(主神)으로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고양시에서는 최영 장군의 낯을 추모하고 위령하는 위령제(祝)가 열린다. 주무는 소마니 정해사 만신이고 2001년도에는 9월에 덕양구 관산동 필리핀 참전비 앞 고수부지에서 고양문화원과 고양시 향토문화보존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 위령굿의 순서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당
2. 영가 모시기
3. 초부정 거리
4. 분양 거리(도당 거리, 군웅 거리, 부군님 거리, 도당말명 거리, 도당초구 거리, 도당신당 거리)
5. 불사님 거리(칠성님 거리, 제석님 거리, 중생님 거리)
6. 성산 거리(관운장님)
7. 최영 장군님 거리
8. 별상님 거리
9. 장군님 신장 거리
10. 대감님 거리
11. 성황님 거리
12. 창부님 거리
13. 뒷전 거리

제보자 : 김봉순(여, 72세) 김간난(여, 90, 고양동)



4) 기타

◆ 고양향교 석전대제

고양향교는 조선 숙종 때 뛰어난 학자들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 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창건되었다. 이 향교의 대성전에는 오성(五聖), 육현(六賢), 우리나라의 성현을 모신다, 중국의 공자(孔子),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등의 다섯 성인과, 주돈이(周惇頤=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주희(朱熹) 등의 여섯 현인과, 우리나라 설총, 안향을 비롯한 18현의 위패가 향교에 봉안되고 있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제향을 올린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 전적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고 현재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매년 고양시의 유림에서 봄·가을에 공자를 제사 지내는 석전을 봉행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올리고 있으며 전교 1명과 장의 여러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음력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석전대제를 봉행하는데 당시의 전통을 이어 받아 제물로는 생식을 바친다.



매년 음력 8월 27일날에 올려지는 고양향교 석전대제 장면

◆ 일산구 가좌동 산신제

현재 마을에는 여주 이씨, 파평 윤씨 등이 제일 많은 성씨이다. 아파트 건립으로 가좌 1, 2, 3리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마을을 비롯해 산신을 모신 산이 없어질 예정인 것이다. 아파트 공사를 맡은 곳은 벽산, 청구이며 2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마을의 역사는 300년 정도 되는데 전체 가구수는 50여 가구이며, 원주민은 45가구 정도이다.

새로 이주한 사람이 원하면 유학회에 가입시켜서 당주를 지내기도 한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집이 몇 가구 있는데, 제의는 참가하지만 당주는 담당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가좌 2리의 침례교회와 가좌 3리의 가좌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다.

생업은 벼농사 위주이며, 밭농사로 보리, 밀, 콩, 딸기, 수박, 참외 등을 한다.



도내동 봉제산 산신제의 축문읽기



도내동 봉제산의 산신 제물



가좌동 중산마을의 은행나무 제사



가좌동 중산마을 은행나무제사의 제주올리기

- 제의명칭 : 산신제
- 제의대상 : 고창지신(남)
- 제의장소 : 심악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고창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 당의형태 : 산 정상쯤에 동네에서 산이 서쪽 방향으로 보이는 곳에 흙으로 땅을 평평하게 다진 곳에 제의 당일 날 5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제사를 지낸다.
- 제의일시 : 음력 10월 2일(유학회 총화날)
마을에 불상사가 있을 때는 10월 안에 다시 날을 잡아서 지낸다.
- 제의경비 : 유학회비²⁾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회원이 지계를 지고 다니면서 쌀(한 되)을 걷어서 제를 지냈다(70년대 말까지). 돼지³⁾를 잡을 때는 40만원 정도 들고, 돼지를 안 잡으면 30여 만원 정도 소요된다. 작년, 재작년에는 돼지를 잡았으나 올해는 잡지 않았다.

2) 유학회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계조직으로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고 대충 양반, 쌍놈이 없어지던 때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마을의 길흉사 때 도와주고 받는 돈을 모아두었다가 사용한다. 초상 때 큰사위를 놀림으로써 받는 돈이나 달구질을 하여서 받는 돈을 모아둔다. 회원은 현재 40명 가량이며, 조직은 회장, 총무, 감사가 있는데 임기는 2년이다. 예전에는 모두 가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원하는 사람만 가입한다. 모아진 경비는 산신제에도 사용하고, 다른 모임(애향회, 부녀회, 청년회)에 보조를 해주기도 한다.

3) 구산동 양돈장에서 돼지를 사오는데, 보통 120~150근 정도의 돼지를 사오며, 잡고 나면 내장은 순대국을 끓이고 나머지는 분배하는데 제관과 당주는 한 근 정도를 더 준다.



덕양구 행신동 가라외 마을의 산치성제의 제물



덕양구 행신동 가라외 마을의 산치성제의 소지올리기



덕양구 행신동 가라외 마을의 산치성제의 제주올리기



덕양구 행신동 가라외 마을의 산치성제의 제물로 올린 쇠머리

· 제관선정 : 제 지내기 2~4일 전에 뽑는데, 유학회 회원 중에서 당주 1⁴⁾ 제관 2를 뽑는다.

· 제물구입 : 제의 전날 장을 보는데, 예전에는 일산 구시장, 재래시장, 조리시장(예전 봉일천장)에서 장을 보았으나, 요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장을 보는 품목은 과일과 소지종이, 초, 향, 나물류, 기타 제물 등이다.

· 제 물 : 뽕(2⁵⁾), 탕(무, 다시마, 소고기), 과일⁶⁾, 소작, 진채류, 돼지머리(혹은 소머리를 익혀서 올린다.), 떡(백설기), 북어, 술(단술)⁷⁾

· 금 기 : 당주의 집에 황토를 두 군데 양쪽으로 놓고 술가지를 낀 원새끼 금줄을 친다. 잡인의 출입을 금했으며, 당주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근신한다.

· 축 문 : 옛날에는 한자로 썼는데, 현재는 한글로 쓴다. 제가 끝나면 태운다. 마을 어른들이 써 준다.

· 소 지 : 축 까지 읽고 나면 제관이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없다. 대동소지 1, 제관소지 1, 당주소지 1 개를 올린다. 소지의 형태는 기다란 백지로 예전에는 종이에 한자로 뭐가 적었으나 요새는 적지 않는다. 소지의 내용은

4)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관으로 선정하지는 않지만, 제사에는 참가한다. 다니는 교회는 가좌 2리에 있는 침례교회, 가좌 3리에 있는 가좌 장로교회 등이다.

5) 부부신으로 보기 때문이다.

6) 사과, 배, 감, 대추, 밤 등이며 껍지 않고 진설한다.

7) 제의 하루 전에 밥과 엿기름을 넣어서 만들어 산에다 묻어둔다. 이를 '조라 올린다' 라고 한다.



“대동이 편안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대동소지요. 마을의 안녕과 아무 탈 없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잘 안되면 손으로 띄운다.

· 제의순서 : 제 지내기 전에 회의하고(9시) 제를 지낸다(10시).

제물 진설, 헌작, 재배, 축, 헌작, 재배, 소지 순으로 지낸다. 절은 제관만 하고, 제의 참가자들은 절을 해도 되지만 하는 사람은 없다. 당주 소지 올릴 때 잔은 올리지 않는다. 음복은 제관이 먼저 한다. 2001년 제관은 윤태용(71), 이영대(52-전 회장), 이병순이 맡았다.

여자들은 제의 때 제당 주변의 나무를 위하기는 하나, 따로 지내지는 않는다. 또, 제당 주변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는다. 제의가 끝나면 당주의 집에 모여서 놀고 한다.

· 기 타 : 당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도 않았으며⁸⁾,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고 주민들은 진술하였다. 이곳에서는 상여 보관하는 곳을 ‘상여뜰’이라고 부른다.

상여는 20년 전에 예전 것을 소각하고 유학회에서 장만을 하였다.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화다지소리를 직접 불렀다. 동네에 예전같은 풍물패는 없으나 1년에 3~4회 정도 명절 때 위주로 치면서 논다. 또, 초복, 중복, 말복 중 하루를 택해 풍물치고 복놀이를 하였다.

음송유학회의 구성, 목적, 회칙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성 : 회칙, 부칙, 유학계 구성 안내서, 명단, 부고 기록부 등으로 되어 있다.

명 칭 : 본회는 음송유학회로 한다.

목 적 : 본회는 음송유학문화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구 성 : 음송부락 전, 현거주자.

임 원 :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씩 한다.

부 칙

1. 본회에 가입하려면 회장단 추천으로 한다. 회의 참석인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탈퇴시는 본인의 자유로 하되,
3. 가입회비 및 유지금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4. 본회의 상중 2회 이상 불참시 총회에서 2/3 동의시 제명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장, 총무,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 및 서기 임무를 수행하여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7. 임원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 및 거수로 한다.
8. 부편을 회원상중, 회장, 총무 회원 참석하여 부고를 작성한다.
9. 부편은 3반과 4반 끝 회원부터 순위를 정하고, 회장, 총무 감사(호상)는 부편을 제외한다.
10. 장례식에 찬조금은 음송(유학) 마을 자금으로 한다.
11.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12. 정기회총회는 음력 10월 2일로 한다.(산제사일)
13. 본회는 총회일 효력을 발행한다.

음 송 유학회 명단

회 장 : 이영대 총무 : 박용주 감사 : 이병순

회 원 : 이영선, 윤태용, 이종근, 이두경, 조병준, 조병훈, 우성환, 장명환, 이도식, 이영훈, 이광식, 이영배, 이덕중, 이영길, 이건현, 이영인, 이형식, 이영석, 이교식, 이영국, 이영오, 박원일, 이영순, 이양식, 이종식, 노재설, 이승규, 이환식, 이영기, 이영태, 이봉웅, 이희상, 남정복, 노광운 등 37명.

8) 주변 지역의 사례를 많이 보아서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개인치성으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고사를 지내는데, 팔을 넣은 떡시루를 하여 집안에서 축원한다. 접시에 떡을 조금씩 떼어서 수돗가, 농기구, 방, 부엌, 향아리 등에 갖다 놓는다. 제보자택은 쌀 두 말을 한다.

제보자택은 옥상에는 할아버지라고 하여서 세로 40cm, 가로 25cm의 향아리를 모시는데, 명칭은 뒤주대감, 대감향아리라고 부르며, 쌀과 돈을 넣어 둔다. 원래는 큰덕에서 하던 것을 받았다고 한다. 햅쌀을 바꾸고 쌀 판 돈이나 기분 좋은 돈을 넣었다가 그 돈으로 고사를 지낸다. 햅쌀은 떡으로 만들어서 돌려 먹는다. 쌀 두 말 정도 들어간다. 옛날에는 처마 밑, 툇마루 옆에 올려놓았다가 집을 새로 지으면서⁹⁾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이 마을은 신도시화가 되면서 외부인의 이주가 많이 늘어났으며, 토착민끼리의 유대는 강하나 마을 전체적 분위기는 도시와 유사하다. 마을 동제라고는 하나 차별한 분위기로 각자의 일을 하느라 바쁘며, 제사형식도 변하여 형태는 있으나 매우 간소하게 지낸다. 마을 산신이 사라져도 위기의식은 없어 보이며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마을에서 조금만 나오면 변화가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민속문화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제보자 : 박용주 (남, 49세, 3대째 거주)

◆ 일산구 송산동 덕이 5통 산신제

현재 마을의 가구수는 덕이 5통의 경우 210세대인데, 3년~5년 전에는 70세대 미만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증가하였다고 한다. 제사는 토박이 원주민 위주로 지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며 세입자들은 원하면 참가시킨다. 작년에는 68세대의 소지를 올렸다. 덕이 5통의 주요 성씨는 천안 김씨, 전주 이씨, 정씨 등이 있는데, 토착 성씨 천안 이씨가 역적으로 몰려 피난 왔다가 정착하였다고 한다.

· 제의명 : 산제사

· 제의유래 : 마을 평안을 위해 지내는데 언제부터 지냈는 지는 모른다.

· 제의날짜 : 음력 10월 2일

· 제의장소 : 일산구 고봉산 줄기. 고봉산맥이라 해서 지내는 터가 있는데, 얇은 산이라서 특별한 이름은 없다.

· 제관선정 : 마을에서는 5일 전에 마을 사람이 모두 참여해서 통장(1), 반장(5), 새마을회장(1), 부녀회장(1), 개발위원(8)이 모여 회의를 해서 날을 택하고 당주를 선정하는데, 집에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당주¹⁰⁾와 제관을 삼는다. 그리고 당주를 보조하는 소임 2명을 선정한다.

· 제의준비 : 경비는 현재는 마을기금으로 제물을 준비하는데 총 50만원 이내이다. 5~6년 전까지는 소임 두 사람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쌀 두 되씩을 걷어 상, 중, 하로 구분을 하고, 쌀을 낸 사람이 하품을 쌀을 냈으면 청한 쌀로 바꾼다. 소임이 장보기를 하면 당주는 제물 준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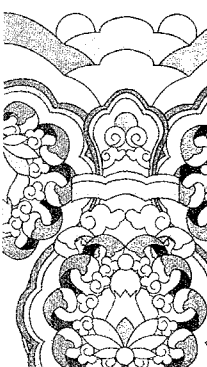
· 제 물 : 소머리, 소족 1개(앞), 술¹¹⁾, 떡¹²⁾, 대추, 밤, 배, 복어, 탕을 올린다. 뿔과 물은 올리지 않는다.

9) 집 지은 지는 10년 되었으며, 집을 짓고, 파주에서 무당을 불러와 신사굿을 하고 향아리를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당시에 여자들이 3~4명이 저녁에 와서 다음날까지 굿을 하였다. 당시 200만원과 쌀 한 가마 반을 경비로 들었다. 신사굿은 집의 신을 기분 좋게 하는 굿이다. 이웃들이 와서 구경을 하였다. 굿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인데,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였다고 한다.

10) 이 마을에서는 당주를 제를 지내는 사람 혹은 절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제인'(祭人)이라고도 한다.

11) 제의 전날에 누룩 한 장과 막걸리 한 병을 비벼서 산에 있는 향아리에 담가 두는데, 이를 누룩술이라 칭한다. 술을 담그는 쌀은 걷은 쌀 여섯 홑으로 만든다.

12) 동네에서 쌀을 한 말, 한 되, 여섯 홑을 걷어서, 한 말은 떡을 만들고, 한 되의 당주네 고사를 지내고, 한 홑은 제주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예전에는 세 말, 세 되, 여섯 홑이었으나 지금은 줄었다. 떡을 찌 때 제사떡 위에 백지를 깔고 한 되의 쌀을 올려서 당주네 고사떡을 같이 찌는 것이 특이하다.





· 제의순서 : 제 지내러 가는 시간은 현재 10시 전에 올라간다. 예전에는 1시에 올라갔으나 시간이 늦어져서 찬이슬만 내리면 간다. 산에 도착하면 제물을 차린 후에 당주가 잔을 올리고, 절 두 번을 하고, 축 읽고, 마을주민들의 소지를 각호 별로 올려주면 끝이 난다.

제이가 끝나면 음복하고 당주네로 가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제의결산을 하고 헤어진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당주와 소임이 올라가 천막을 철수한다.

· 축 문 : 부락민 중에 유식한 사람이 쓴다.

維歲次庚辰十月戊午朔初三日庚申 幼學○○○敢昭告于
高奉山脈落爲秋山維願 山神鎮此一方戶口節
牛羊泄蕘 虎袍遠跡 民俗熙穰 如命淳淳
虎報神惠 河海莫量 纒具酒果 乃擇良辰
宰一犧牲 禽議克煙 伏願祀後 降我遐福
維願其身 三災不入 萬事如成 人口漸殖
瘴疫運藏 小小之誠 神庶來亨 尙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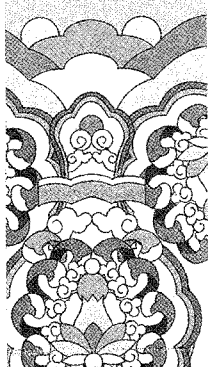
· 기 타 : 산제를 지내기 전에 당주의 집에서 먼저 고사를 드린다. 마을 경비로 걷은 한 되의 쌀로 떡을 해서 장독, 우물, 주차장, 벼광, 대청(성주), 부엌, 방에 지내는데 예전에는 떡을 세 개 해서 놓았는데 지금은 한 개를 올려놓고 제를 지낸다. 떡을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은 자기네 정성으로 보태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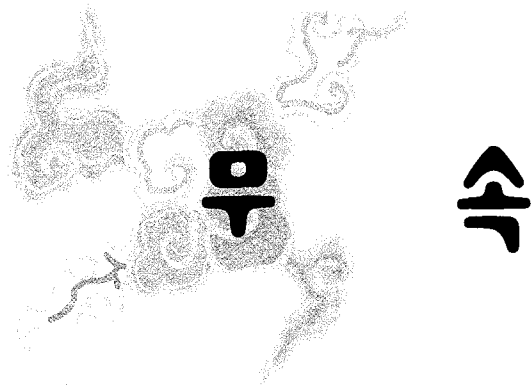
당주네 원고사일은 시월 상달 말날에 고사를 지내는데 마을 제이가 10월 2일이라 제의날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을 고사에 사용한다.

집 고사 때 올리는 소지의 내용은 “내가 당주합니다. 우리 집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

제보자 : 이기준 (남, 65, 개발위원장, 김진서, 남, 59, 2001년 당주)

이상과 같이 살펴본 고양지역의 민간신앙과 의례는 경기도의 무속과 민간신앙의 한 갈래로서의 독자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인희 (중앙대 겸임교수)

.....

1. 서론
2. 본론
 - 1) 고양시 무속의 변천
 - 2) 만신과 삶
 - 3) 만신과 신
 - 4) 만신과 제의
 - 5) 무복과 무구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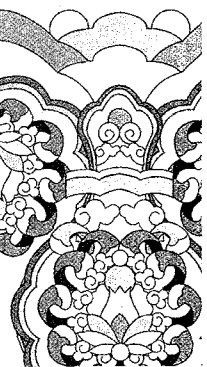
1. 서론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동안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오던 주민들은 새로 구획된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무속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연촌락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무속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신도시 개발로 새롭게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 기간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1월 달에 걸쳐 조사하였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는 기존의 무속의 변천과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조사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고양시민들 삶 속에서 무속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현재 정발산 도당굿 기능보유자인 양동순 만신, 정발산 도당굿 후계자인 정정자(지정자라고도 한다.) 만신, 양동순 만신의 신탈인 박금선 만신, 새로 신이 내린 허영순 만신, 방영희 박수, 호미걸이 기능보유자인 김현규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양동순 만신은 현 78세로 화전동에 살고 있다. 정발산 도당굿 기능보유자이며 고양시의 대표적인 만신이라 할 수 있다. 35세에 만신이 되었는데 젊어서는 얼굴이 예뻐 이쁜이 만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바리공주와 황제풀이를 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무업을 배운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다. 현재 과거 큰무당들의 대가 끊긴 상황에서 양동순 만신은 유일하게 과거의 고양시 무속을 전승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방아고개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만신으로부터 무업





을 배웠다고 하며 주로 자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60~70년대 무속에 대해 제보해 주었다. 현재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직접 굿을 뛰지는 않으며 신딸과 신아들이 굿을 할 때 잡이를 해주는 정도이다. 신딸로는 박금선 만신과 정정자 만신이 있고 신아들로는 하재용 박수가 있다.

정정자 만신은 올해 50세로 소만이 만신이라고 불린다. 시어머니가 능곡의 소만이라는 곳에서 만신을 하였기 때문에 소만이 만신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뒤를 이어 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소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다른 만신들은 보통 이름 보다는 소만이 만신이라고 정정자 만신을 불렀다. 현재 정발산 도당굿 후계자이며 최영장군제와 행주산성제를 주관하고 있다. 고양시의 다양한 무속행사를 이끌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정자 만신에게는 주로 시에서 거행하는 무속활동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박금선 만신은 올해 66세로 양동순 만신의 신딸이다. 34살에 내림굿을 하여 30여 년간 무업에 종사하고 있다. 박금선 만신의 개인사적인 것은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굿당에서 만나 다양한 제보를 해 주었다. 박금선 만신은 조상거리를 잘 하는 만신으로 몇 차례 조사한 굿에서 조상거리는 모두 박금선 만신이 맡아서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조상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박금선 만신의 굿을 중심으로 하였다.

허영순 만신은 올해 54세로 만신이 된 지 5년이 됐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무속 체험을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무업의 입문과정을 조사할 수 있었다.

방영희 박수는 올해 80세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아주 어렵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온양 방씨로 15대째 원흥 2리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도당굿을 많이 하였으나 지금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가끔씩 굿을 한다.

김현규 선생님은 서울 홍제동에 살고 있으며 올해 60세이다. 고양시 호미곶이 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고양시 무속의 흐름과 구체적인 지식을 소상히 알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편적인 내용은 따로 제보자를 밝히지 않으나 특수한 사항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를 따로 밝히도록 하겠다.

2. 본론

1) 고양시 무속의 변천

고양시 무속 또한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대략 1930년대의 모습으로 대략적인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큰만신으로 으뜸이와 번달이 있었다. 으뜸이와 번달은 최고의 만신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상태였던 것 같다. 으뜸이는 살아 있었으면 올해 125세이고 번달은 124세로 나이가 비슷하다. 으뜸이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좋았으며 춤도 잘 쳤다고 한다. 소리를 잘해서 길 가던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울며 갔다고 한다. 즉, 으뜸이의 굿은 연회적인 측면이 강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러나 으뜸이의 굿은 깨끗하고 잘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아 주로 재수굿이나 신사굿을 하였다. 번달은 지금 식사동의 옛 지명인 번달에 살았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또는 궁글패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가족 모두가 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할머니, 며느리, 손주며느리가 모두 무업에 종사하였다. 번달 만신은 으뜸이 만큼 미모가 뛰어나지 못하였으며 으뜸이 만큼 잘 하지 못하였으나 굿을 하면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필요로 하는 병굿을 주로 하였다. 두 만신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는데 으뜸이가 타고난 용모와 연회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굿의 놀이로서의 재미를 주었다면 번달의 굿은 으뜸이만큼은 재미가 없으나 병을 고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신앙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만신은 최고의 만신으로서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면서 고양시 무속을 이끌어왔다.

예전에 굿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의 부자인 신흥부자는 으뜸이를 불러 굿을 했으며, 일제 강점 이전의 부자들은 번달을 불러 굿을 하였다. 큰만신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두 만신은 같은 시기에 살면서 고양시 무속을 이끌었으나 그들의 후계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으뜸이는 아들이 없어 데릴사위를 들었는데 데릴사위가 반대하여 고양시를 떠나 버렸으며, 신딸인 조옥순 만신이 있었으나 4년 전에 죽었다.

번달은 서울이 돈벌이가 좋다고 하여 서울에서 살았는데 40여 년 전에 마지막 굿을 했다. 김현규 선생님은 그때 황제풀이와 바리공주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굿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번달의 굿은 60년도에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가리는 번달의 후계로 죽은 지 20년이 지났다. 번달은 30여 년 전에 죽었으며 자손이 없고 신팔과 신아들이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으뜸이와 번달의 굿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지 못하고 맥이 끊겼으며 고양시의 큰만신들의 전통은 현재 단절된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황해도 사람이 굿을 하기 시작하였다. 황해도 굿은 경기도 굿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굿을 오랫동안 구경하기 위하여 황해도 만신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현재의 고양시 굿이 황해도 굿을 계승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나 고양굿을 계승하는 상황에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 약간씩 변화되고 있다.

가을이 되면 굿을 경쟁적으로 하였는데 누구네 집에서 시작하면 그럼 우리도 하지 하면서 다른 집도 하게 되어 동네가 다 굿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굿을 많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으뜸이와 번달의 특징을 살펴 본 바와 같이 굿은 오락적 기능과 신앙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으뜸이는 연희 능력이 뛰어난 만신이었기에 굿의 효과가 없음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며, 번달은 연희 능력은 떨어지나 굿의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으뜸이와 번달은 민중들이 굿 속에서 찾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았다.

예전에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면 동네에 들어오는 취군파의 공연이나 굿이었다. 몇십 리 길이어도 굿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걸어가서 밤새도록 굿 구경을 하였다. 양동순 만신에 의하면 굿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거지들도 굿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몰려드는데 이들도 모두 음식을 해서 먹었다고 한다. 굿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였던 것이다.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취군파가 들어와 노는 것을 구경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집안에서 거행되는 굿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구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사람들 놀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굿하고 싶어도 만져느리 춤 추는 것 보기 싫어서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은 굿놀이를 즐겼다.

악기도 치고 풍악을 울리는 굿은 남자들에게도 재미있는 놀이거리였다. 당시에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요리집이나 가야 젊은 여자의 손목을 잡을 수 있었으며, 여자 머리를 올려 주려면 쌀 60가마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굿을 하면 젊은 여자가 술도 따라주고 소리도 하기 때문에 흥겨웠다. 경기굿의 대감놀이에서는 창부거리 중에 젊은 무당이 술을 팔기도 하였다. 따라서 젊은 여자 무당이 없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끼가 있는 여자들이 무당패를 따라다니다 무당이 되기도 하였다. 소리하던 사람들도 무당이 되고 박수가 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모두가 무속인이 연희패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약장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박수라고 하여 몇 년 동안 굿을 해서 잘 벌어먹은 예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 이유는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굿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재미가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번달은 병굿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병원이 일반화되기 이전 만신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치병이었다. 만신 중에는 병을 잘 고치는 만신이 있다. 정정자 만신 시어머니의 신어머니는 골머리 만신으로 술을 좋아하여 아무 데나 소피를 보고 눕고 하였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매를 많이 맞으면서 배웠다고 한다. 골머리만신을 맥재 할머니라고도 하였는데 침을 잘 놓았다. 예전에는 머리에 적기라는 것이 있는데 기생충 같은 것으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맥재 만신은 적기를 잘 잡았다고 한다. 정정자 만신의 시어머니도 침을 잘 놓았다고 하는데 이로 볼 때 특히 치병에 강한 만신들이 있었으며 의학적인 정보는 신어머니에서 신팔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단골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별일 없이 사는지 살피고 다녔다. 이 마을 저 마을 순력 돌 듯이 다니며 일이 있으면 풀어줬다. 아프면 빌어주고 사편을 터 주었다. 아침이면 사람들이 침을 맞으러 오곤 하였다고 한다. 침을 잘 놓았는데 보상으로 담배 한 갑을 가지고 왔다. 만약 침만으로 효과가 없으면 비손을 해서 풀어준다. 때로는 무엇을 달여서 먹으라든지 비법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 병원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당에게 의존하였다. 찢어지거나 부러지기 전에는 병원에 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병의 90%는 무당에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당시 만신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은 치병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실제적인 치료와 함께 굿을 거행하여 귀신을 잡았다. 만신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을 받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굿의 효과에 대한 믿음이 강하였다. “굿한 자리는 민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굿을 하면 재물을 쓰지만 좋은 일이 생겨 그 재물을 다 채우게 된다는 뜻이다.

5·16이 나기 전까지는 굿을 많이 하였는데 5·16 이후에는 지사에서 많이 귀찮게 하였다. 이전에는 유원지에 가면 장고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치고 소리를 하고 놀았다. 효창공원이나 탑골공원 같은 곳에서 장구를 치고 소리를 하고 놀았다. 5·16 이후에는 장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으며 장고 소리를 내면 시말서를 쓰게 하였다.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지만 장고를 빼앗아 갔다. 미신타파라고 하여 절대 못하게 하였다. 이 때는 경찰들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고 몰래 하였다. 사람이 아파서 죽어 가면 굿은 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뇌물이라도 주고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도당굿은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개인굿은 금하지 않았다. 오히려 5·16 이후에 더 강하게 단속을 하였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 5·16 이후 굿을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못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 번은 마포에서 굿을 하다가 정부에서 고용한 깡패들에 의해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주인이 깡패들을 속여서 돌려보내고 본인은 그 후에 도망을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굿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 자체가 필요로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고양군 굿판의 무속인들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조금 풀려졌다. 지금도 밖에서 장고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 일제시대를 거쳐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무속 타파정책으로 인하여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예술이고, 정상이며 민간에서 하는 굿은 미신이라는 편견을 받게 되었다.

2) 만신과 삶

(1) 만신의 유형과 특징

고양시 무속인은 만신, 박수, 봉사 세 종류로 나뉜다. 무당이라는 명칭은 비칭으로 인식되어 좋아하지 않으며 여자 무당은 만신이라고 부른다.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부른다. 전체적으로 만신의 수가 많으며 무속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박수가 만신의 보조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박수도 굿거리에 참가하며 능력이 있는 경우 만신보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아가리는 큰 굿만 하고 만신보다 더 인정을 받았다. 박수가 잘 하면 대를 이을 신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무속 집단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만신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대를 이을 신딸이나 신아들에게 신을 물려주는데 박수가 능력이 있으며 신어머니의 계승자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큰만신은 황제풀이와 바리공주를 한다. 황제풀이, 바리공주, 부정을 해야 큰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 황제풀이와 바리공주를 할 수 있는 만신이 5~6명도 안 된다고 한다.

봉사는 평소에는 장님 또는 소경이라고 부르지만 굿을 할 때는 존칭을 써서 봉사라고 부른다. 장님은 경문을 읽고 신장대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다. 장님이 하는 것을 안택이라고 한다. 무당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나 봉사는 여자 봉사는 없고 모두 남자 봉사이다. 이들도 몇 명의 봉사가 팀을 이뤄 활동한다. 만신의 굿에는 다양한 무구와 악기가 사용되지만 봉사가 하는 굿은 공중에 걸어놓고 치는 북이 유일한 무구이다.

무당의 역할에 대해서 정정자 만신은 “굿판은 멧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당이고 일이 안 풀려서 막힌 고를 풀어 잘 되게 하는 것이 무당이다. 죽은 사람은 좋은 데로 가라고 천도하는 것이 무당이다”라고 하였는데 결국 무당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세의 문제를 신의 도움으로 풀어주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풀어주는 사람이라 하겠다.

만신은 신이 내려 무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만신불깃이 있어야 만신이 된다고 한다.

김현규 선생의 견해에 의하면 “무당 불깃이 있으면 반드시 내린다. 세습무는 지어낸 말이지 세습무는 없다. 모두 강신무이다. 옛날에 피리 부는 악사나 만신은 시집 장가를 갈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세습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였다. 즉, 만신은 신이 내려야 하는 것이지 집안이 만신집안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신은 죽을 때가 되면 부채와 방울을 땅에 묻어두는데 새로 신이 내린 강신무는 밤중에 손뼉을 치고 뛰어나가 묻어둔 방울과 부채를 찾아와야 만신이 될 수 있었다. 즉, 강신무의 특징은 비범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이었던 만신들은 모두 자신을 강신무라고 소개하였으며 소상히 자신에게 신이 내렸던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항상 덧붙여서 하였던 말이 사실은 자신의 집안이 만신 집안이라 자신에게 신이 내렸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무속인들은 기본적으로 만신 집안에서 만신이 난다는 세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만신 집안이라고 하여 모두가 만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이 내린 한 명이 윗대를 이어 만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양시 만신들이 말하는 만신 불깃은 무당이 될 개인적인 성향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만신집안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한 번 내린 만신불깃은 몸이 건강했다가도 다시 내린다고 하여 무당이 될 팔자는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신불깃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이런 사람은 점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철학으로 푼다. 세습무라 하면 집안 전체가 무업에 종사하는데 반하여 이곳의 만신들은 가족 중에 신을 받은 한 사람만이 만신이 되어 세습무와 강신무의 특징을 일부분씩 가지고 있다.

예전에 만신은 천인 중에 천인이었다. 비록 큰 만신이 되어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천대를 받았으며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서 별도로 살았다. 따라서 신이 내리면 그 집은 초상집과 마찬가지로 되었다고 한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 신병을 앓은 지 7년만에 내림굿을 할 정도로 남편의 반대가 심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대감집의 딸이나 며느리가 신끼가 있으면 창고나 뒤주에 가두고 밥이나 좀 주다가 굶어 죽었다. 옛날에는 무당이 나오면 쌍놈의 집안이라고 했다.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양반의 집에서 무녀가 나오지 쌍놈의 집에선 안 나온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무당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또한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부분 “무당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자신의 삶을 토로하였으며, “나이 70~80된 노인들에게는 무당을 하는 것이 최고의 벌이다”라고 할 만큼 무당이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무당의 팔자는 매우 세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였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책에 무속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평소에 무당들은 아주 천대를 받았지만 굿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음식도 최고급으로 하고 담배나 방석도 최고급으로 준비한다.

예전에는 무당이 그리 많지 않았다. 신이 내리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김현규 선생님이 사시던 곳은 8개 마을 240호에 성저리 박수와 객광말 만신 둘 밖에 없었다고 한다. 1971년 고양군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무당은 남자 6명, 여자 34명으로 모두 40명이었다. 점쟁이는 8명, 판상은 7명, 풍수는 5명, 사주는 7명, 독경은 1명, 골상은 1명으로 모두 69명이었다.¹⁾ 제보자들 모두는 요즘에 무당이 많은 것은 산을 헐고 물을 막아 무당이 많이 내린다고 하였다. 『정감록』에는 2000년이 되면 남산에 풀끝마다 무당이 내린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상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였다. 요즘은 남자 만신들도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허영순 만신에 의하면 “경신회 모임에 가보면 여자와 남자가 반반이며, 굿당에 가봐도 남자 하나 안 낀 데가 없다고 하며 요즘은 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1) 『고양군지』 고양군지편찬위원회, 경인일보사, 1987, p.1117



조사대상이었던 만신들은 모두 자의전 타의전 신을 거부하는 누르는 곳을 하였으며 그러나 다시 신이 발동하여 인다리를 놓아 주변 가족들의 죽음을 가져 온 후에 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만신이 누르는 곳을 하였다는 것은 60~80년대 무속에 대한 탄압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편해졌으며 병도 낫고 몸도 편해져서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2) 만신이 되기까지

① 양동순 만신의 경우

친정에 아버지, 작은 할머니가 만신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생전에 “이놈들 나만 죽어봐라. 니네 집안 뻥발쭉발이 된다.”고 악담을 했다. 결국, 동생은 죽고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내가 3살이던 해 동짓달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파면 뱀 덩어리가 나오고 다시 파도 뱀 덩어리가 나왔다. 세 번째 파니까 몇 마리 나오지 않아 그곳에 무덤을 썼다.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가 돌아와서 나를 안고 잠을 잤는데 내가 “뱀 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 때 할머니가 나에게 만신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20대 말에 병이 시작되었다. 꿈에 무지개가 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동아줄에 묶인 방울과 부채를 받았다. 내가 밤 2~3시에 옥수를 뜨러 가면 옆집 친척 사람은 방울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방울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외가집의 단골이 너는 아무 때고 귀신의 밥이 된다고 하여 피하기 위해 밥장사를 하였는데 술도 팔게 되고 하여 남편 직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까봐 그만 두었다. 밥집을 그만 두고 바로 아프기 시작하여 허를 깨물어 허가 너털거릴 정도였다. 평소에는 대문 밖도 모르고 바느질을 얌전하게 하기로 소문이 난 며느리였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는 극심하였다. 집안이 초상난 집 같았다. 남편은 만신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나를 묶어놓았는데 “내 앞에서 어떻게 죽나 보자”고 남편에게 악담을 하였다. 남편은 병을 오래 앓아 뻘뻘 마르고 힘도 없는 나를 죽진 머리를 휘감아 쥐고는 때렸다. 결국 남편은 내가 인다리를 놔서 내림굿을 받고 2년 후인 내 나이 37살에 죽었다.

37살부터 소년 과부로 5형제를 길렀다. 당시에는 몸이 많이 아팠지만 병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지는 않았다.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자식 살리게 장소만 빌려달라고 하여 내림굿을 하는데 주당을 물리고 부정을 치는데 뛰어서 지붕이 뚫릴 정도였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술술 하였다. 7년만에 내림굿을 했다. 신어머니는 방 아고개 할머니로 살아 계시면 100살이 넘었으며, 74세에 돌아가셨다. 신어머니는 집안이 모두 만신인데 7살에 노랑진에 살 때 신이 내렸다고 한다. 남편이 노름을 하여 고양시로 내려오게 되어 고양시에서 무속활동을 하였다. 방아고개 할머니에게 무업을 배웠다.

② 박금선 만신

박금선 만신은 28살부터 신병이 시작되었는데 꼬챙이처럼 말랐다. 약을 먹다 안 돼서 남편하고 침을 맞으러 갔더니 침을 놓는 할아버지가 남편을 부르더니 이 사람은 침을 못 놓는다고 데리고 가서 굿을 하라고 하였다. 침을 맞을 병이 아니라고 하였다.

신이 내리고 나서는 심통이 나서 아궁이에 불을 땔 때도 나무를 아궁이에 한 번에 쭈서 놓고는 쇠부지깥이를 두들기면서 “좋다, 좋다, 너만 좋으냐, 나도 좋다”하고 혼자 소리를 하였다. 장독에 가서는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 “좋다, 좋다”하고 손뼉을 쳤다.

하루는 동네에서 개를 잡아 남편이 개 반쪽을 가져왔다. 그래서 술에 삶아 고기를 찢는데 “오늘 밤 열두 시를 넘어나봐라”하고 말이 나왔다. 10시가 되니까 남편이 네 발로 죽는다고 벅벅 굶기 시작하였다. 고통을 못 견뎌서 몸을 막 뜯기 시작하였다. 바늘로 몸을 여러 군데 찌르고 물을 떠 가지고 장독에 가서 “할아버지 몰라서 그랬다”고 빌었다. 30분을 빌고 오니까 남편은 자고 있었다.

그 후에 남편의 동의아래 34살에 내림굿을 하는데 만신이 질르는 굿을 하였다. 그 당시 2만원이면 들지도 못하게 흥정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흥정한 보따리를 들고 안방에서 흔들고 마루에서 흔들고 안마당에서 흔들었다. 쌀 한 가마를 담아 놓은 그릇을 힘 안들이고 엎어버렸다. 못 해먹게 하는 굿을 하여 화가 나서 그랬다. 그 만신은 질르는 굿을 하고 일 년을 놀았다. 질르는 굿은 누르는 굿이다.

언니와 신촌에 갔는데 “빨간 치마짜리 무당집에 가자”고 공수가 나왔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50살이 넘는 늙은이가 애기를 업고 나오는 아주머니에게 물어 보면 안다고 하였다. 애기를 업고 나오는 아주머니가 있어 그 집에 들어가니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다. 굿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 만신이 제자가 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친정의 외할머니가 월농에서 무당이셨는데 신장할머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신이 내릴 때 꿈에 외할머니가 빨간 옷을 입고 방을 부채를 쥐어줬다.

③ 정정자 만신

북아현동에서 고양시의 강매리라는 곳에 왔는데 9살 때 널을 뛰다가 쓰러졌다. 혼수상태에 빠져 모두들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혼수상태 속에서 뱀도 많고 가시도 많은 곳을 가는데 물도 건너지고 하였는데 그 길을 잡아 준 것이 도사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가 가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여 되돌아왔는데 마침 내가 죽은 지 알고 갔다 버리려 하고 있었다. 9살 때의 경험은 무당이 되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무당이 되려고 그런 경험을 한 것 같다.

그 후에는 특별한 사건 없이 지냈다.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시어미는 소만이라는 마을의 무당이었는데 강매리에 와서 굿을 하였다. 굿을 하면 어린 나이에 끝까지 보았다. 춤고 그런데도 끝까지 보았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녔다.

결혼을 하고 나서 되는 일이 없었다. 아이를 둘을 낳고 사는데 꿈에 잉어를 안고 들어왔다. 이태원에 살 때 시멘트 마룻바닥에 잉어 세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금잉어, 은잉어 세 마리를 안아 장롱 속에 넣었다. 지금 보니까 세 식구가 산다. 19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한 시간 만에 죽었다. 그때 신에게 공수를 받았으나 내가 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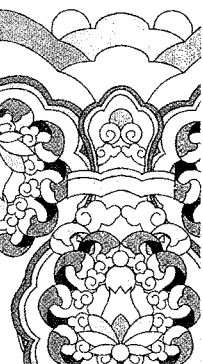
결혼해서 28~29살까지는 괜찮았으나 그 후로는 계속 아팠다. 먹는 대로 토하였는데 약을 먹으면 특히 심하였다. 약 먹은 것을 토하고 나면 괜찮아졌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나 위산과다라고 하였다. 가슴을 뜯고 먹으면 토했다. 지금도 별을 받으면 가슴을 뜯는다. 당시에는 신병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쫓겨났다. 중대병원에서도 맹장이 아닌데 맹장이라고 하고, 담석이라고 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없었다. 빛을 안 켜는데도 빛쟁이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 남편도 실직하고, 모든 길을 막았다. 지금은 할아버지 일이나 집안 일만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다.

무당 되는 기운이 있어 불의정사, 팔공사 같은 절에 가서 누르는 굿을 했었다. 그 후에 시어머니가 절을 하라고 해서 시어머니 법당에서 절을 하는데 손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제로 손을 떼고는 뒤로 쓰러져 혼절해 버렸다. 시어머니가 와서 비니까 소리가 왕왕 퍼지듯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말문이 열려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오셨다”고 외쳤다. 그 다음으로 “옥황상제이다. 팔선녀다. 천지신명이다. 일월 타고 하강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등 별 소리를 다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더니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손으로 바닥을 얼마를 쳤는지 손이 얼얼하였다. 손으로 자신의 따귀를 때렸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이년 네 서방이 왜 바람을 뺐는지 아느냐. 이년 가서 누를 대로 놀러라. 피해라 피해. 네가 놀러서 네 서방이 바람을 피는 것이다. 네가 신을 거역하니까, 네 팔자지 누구 팔자냐. 계집팔자지 서방팔자냐”라는 말이 속에서 막 나왔다. 다 뛰더니 시어머니 허리끈을 잡고는 시숙과 사돈이 앉은자리에서 “혼역하다 마마하다 죽은 별상동녀다”라고 동녀가 하는 소리를 다 했다. 시어머니 딸 흥내를 다 내니까 시어머니도 기가 막혀 하고 남편도 기가 막혀 했다. 당시 나는 이 집안에 시누가 별상동녀로 앉아 있는 것을 몰랐다.

맨 처음 인다리를 놓은 것은 친정 오빠였다. 내가 친정엄마에게 “엄마 아들 밥 먹을 줄 알아, 딸 밥 먹어”라고 말을 했는데 친정 엄마는 지금도 내 말을 무서워한다.

19살 된 아들을 데려갔다. 아들도 인다리를 놓은 것이다.

신이 자주 때려서 남편과 함께 관악산을 갔다. 전등도 없이 가는데 앞이 흰하였다. 남편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다고 하였다. 남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것을 확 낚아채 겨우 잡았다. 그때 신령님과 약속을 하였다. 자식도 잃었는





데 남편마저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남편을 살려주면 무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이 많아서 간 여자 같은데 집에 가지 않고 따라와 후에 벗겨냈다. 목이 조여들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수비는 잠신인데 산에 가서 수비가 끼면 미친다. 남편은 엄마도 무당, 마누라도 무당이라고 안 산다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동의를 하였다.

내림굿 받기 전에 신이 들어와 시어머니가 병곳을 할 때 작두를 타고 칠성맞이를 하였다. 그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이 든다. 그때는 두들겨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다 맞는다고 한다. 무당이 말문을 떼어주는 경우와 내 스스로 말문을 여는 경우는 틀리다. 나는 내 스스로 천상의 별을 다 풀었다. 내일 아침 올 손님 얘기를 다 했다. 아침에 법당의 종을 땅 두들기면 “오늘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은 집 고친 사람인데 화장실 고친 사람이야. 이 집은 산소 고칠 것이다”라고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37살 되던 해에 만신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만신이었고 친정고모가 만신이었다. 양쪽 집이 모두 만신집이었다. 시어머니는 소만이에서 무업을 하여 소만이라고 불렸다. 시어머니는 할아버지 신을 모셨다. 시어머니는 골머리 만신을 대신할머니로 모셔왔는데 골머리 만신은 굿이 있으면 나타나서 한 마디씩 알려준다. 적기 잡는 방법을 곧 알려 주신다고 하였다. 지금의 굿당은 시어머니가 81살에 물려준 것이다.

④ 허영순 만신

친정어머니가 무당을 하였고 대물림하였다. 어머니의 고향은 개성인데 그곳에서 무업을 하셨다. 살아 계셨으면 89세인데 70살에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무당이 아니었는데 몇 대가 끊어졌다가 대물림한 것으로 보인다. 1·4후퇴 때 수색으로 피난을 나왔다. 딸이 6명인데 그 중 다섯째인 내가 대물림하였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셋째 언니에게 모시라고 하였다. 태몽을 꾸었는데 셋째가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니는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전에 위장을 잘라냈다. 혹이 나서 2/3를 잘라냈다. 처음 신이 내렸을 때는 언니를 원망했다. 언니가 안 해서 내가 신을 받아 이혼을 당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살 것을 그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였다. 자신이 모시지 않으면 자식한테 간다.

처음 신이 내린 것은 37살 때였으나 아들,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시기여서 다락에 모셔놔었다. 꿈을 꾸면 춤을 추는 것만 보여 집을 뛰쳐나갔다. 자주 현관문을 열고 왜 남자가 나오라고 하였다. 낮잠을 자든 밤잠을 자든 우주복을 입고 머리에는 태극기 모양의 사각을 쓴 남자들이 나오라고 하였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그곳은 깜깜한 절벽이니 이곳으로 오면 환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니까 꽃밭이었다. 물이 흐르고 제주도 유채꽃 마냥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때 따라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저승사자이다. 안 간다고 몸부림치고 깨어나니 꿈이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여 열흘을 밥을 안 먹었다. 아니 못 먹었다. 밥을 입에 넣으려고 하면 바람 부는 식으로 뱉어내게 되었다. 돌맹이 같아 보리차만 마셨다. 그런데도 죽지를 않았다. 드러누워서 자면 그냥 땅 속의 우물로 툭 떨어지는 거 같고, 별이 보여 일어나면 아파 꺾하고 토하였다. 목구멍에서 피가 나와 토하면 피를 한 두 세숫대야씩 쏟았다. 그래도 죽지를 않았다. 열흘에 한 번은 피를 쏟았다.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부천에 살면서 청량리, 인천, 안양 용하다는 만신은 다 찾아다녔다. 원래 점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아팠기 때문에 찾아가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만신집을 찾아가면 대문에서부터 뭐 하러 왔냐고 호통을 쳤다. “니 점 니가 보지 될 보러 왔냐”고 하였다. “아들 딸 대학가는 것 때문에 왔다”고 봐 달라고 하고 들어가면 점은 안 봐주고 신을 받아야 낫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찾아간 만신집이 100군데이다. 만신들이 전부 신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아는 병이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고 말한다. 밤낮으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미 아는 병이었다. 집안에 만신이 없는 경우, 즉 3~4대 조상이 만신이었던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고 한다.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그래서 만신들 중에 본 남편과 사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이혼을 안 하면 인다리를 놓아서 남편이나 아들이 죽는다. 인다리를 놔서 사람이 하나 죽어야 신이 오는 것이다. 남편이 이혼도 안 해주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 중에 죽는 경우도 보았다. 만약 본인이 거부하면 본인도 죽는다.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이 아프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다. 남편이 통장을 장 위에 숨겨 놓았는데 그것을 꺼내 50만원을 찾아 도봉산으로 향하였다. 그냥 발걸음이 도봉산으로 향하였다.

도봉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10만원은 방 값으로 주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 12시가 되면 절에서 못하고 산을 넘어 가서 기도를 한다. 무당들은 허공을 보고 기도를 한다. 또는 큰 나무나 하늘을 보고 한다. 큰 바위 밑에 신문지 한 장 깔고 촛불을 키고 하는데 겨울이라 처음에는 추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바닥이 다 젖어 있다.

신병은 주로 봄가을에 많이 오는데 이 시기는 신이 발동하는 시기로 이때 신내림을 많이 한다.

신병의 증상은 남녀가 같다. 머리 아프고 헛소리하고 자꾸 나가 돌아다니고 싶어 한다. 11살짜리가 신병을 앓는 것을 보았는데 증상이 같다.

돈을 700만원 해서 39살에 신내림을 받았다. 그런데 창피해서 영업은 못 했다. 부천 월미동에 살았는데 딸 3, 아들 1인데 딸이 20살, 18살, 16살이고 아들이 14살인데 대학생부터 고등학생,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락에 모셔놓고 촛대 하나에 옥수 한 그릇 놔두고 교인처럼 나 혼자 초하룻날 물만 떠다 놓고 기도했다. 신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점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7~8년 있다가 47살에 집을 나왔다. 옷 보파리만 싸 가지고 나왔는데 이젠 내가 나왔다기 보다는 밖에서 끌어냈다는 말이 더 맞는다. 아팠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동네사람들을 붙들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피병이라고 하였다. 집을 나와 굿당을 차리고 내림굿을 받았다.

신어머니는 점을 보는 과정에서 결정이 된다.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어 그런 곳에서 신내림을 받게 된다. 금촌 신어머니는 처음 가 본 곳이었었는데 신내림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게 해 준다. 팔자는 못 말린다. 6년이 되었다. 현재 3거리 정도를 한다.

내림굿 하고 나서부터 잘 불리는 사람이 있다. 내림굿 하고 신당을 차려놓으면 손님들이 찾아와서 처음부터 잘 불리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허영순 씨의 경우는 3년 동안은 일이 별로 없었다. 신어머니 집에 가서 주방에서 일하고 음식 차리는 것을 배운다. 그렇게 3년을 배웠다.

금촌에서 있다가 재작년 11월에 화전으로 왔다. 어머니가 하던 곳이라 어머니에게 다니던 단골이 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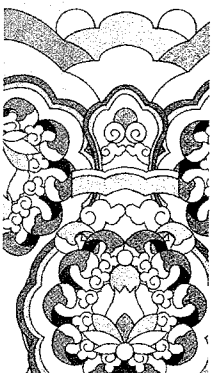
(3) 학습

내림굿을 받았다고 하여 그대로 굿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어머니에게 몇 년에 걸쳐 무업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 받아야 한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 신어머니에게 3년간에 걸쳐 배웠다고 한다. 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어머니가 장구를 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일러주었다. 신어머니에게서 황제풀이와 바리공주를 배웠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만신이 된 경우에는 신어머니에게서 구체적인 학습을 받기보다는 신어머니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형태가 많았다. 방영희 박수의 경우는 자신이 신이 내려왔다는 것을 듣고 만신들이 찾아왔으며 그래서 그 만신들에게 내림굿을 받았으나 굿하는 법을 배우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무가도 따라하고 춤도 따라 하였다고 한다. 박금선 만신의 경우 양동순 만신의 굿을 계승하고 있으나 바리공주의 경우는 신어머니의 것이 배워지지 않아 김포 만신의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한 번에 배워졌다고 한다. 새로 신딸이 된 만신들은 신어머니의 굿을 쫓아 다니며 신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학습을 한다. 그러나 양동순 만신이 신어머니에게서 구체적인 학습을 한 것에 비해 그 이후의 만신들은 굿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웠다.

이처럼 신어머니의 굿을 계승하던 체계가 흩어진 것은 무속탄압 정책과 관련이 있다. 무속이 사회에서 미신으로 천대되었으며 무속의 중요한 기능이었던 치병기능이 약화되면서 무속은 설 자리가 좁아졌고 따라서 무가나 춤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도 축소되었고 전수하고자 하는 욕구도 축소되었다.

현재 무속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제는 출판된 무가나 녹음테이프를 듣고 배우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굿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차용을 하여 굿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전국적인 보편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만신들은 신어머니가 아닌 무속학교에서 굿을 배우는 경우도 있어 만신의 굿은 신어머니의 계보를 이으면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통일된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허영순 만신의 경우는 신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으나 경문은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



모든 굿거리를 할 만큼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10년의 과정이 필요하며 3~4거리 정도를 할 수 있게 되면 4~5명이 함께 굿을 진행한다. 만신들은 각자 자신이 잘 하는 굿거리가 있어 12거리를 할 때 자신이 잘 하는 굿거리를 담당하여 한다. 박금선 만신의 경우는 조상거리를 잘 하기 때문에 조상거리를 주로 하며 정정자 만신의 경우는 대신거리나 장군거리를 주로 한다. 두 만신은 팀을 이루어 활동하고 있는데 대감거리에서 정정자 만신은 분위기를 고조시켜 매우 흥분된 분위기로 이끄는 데 반하여 박금선 만신의 조상거리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이처럼 각자 기능이 있는 부분을 나눠서 조를 이뤄 활동한다.

(4) 만신과 신도와의 관계

신도시로 개발이 되기 이전 이 지역은 만신을 중심으로 단골판이 형성되어 있었다. 만신의 수도 적고, 버스가 없어 걸어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야 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신도가 되었다. 당연히 만신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골판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단골판은 만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단골판이 사라지고 있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속의 주요 기능이 점으로 축소되면서 멀리에서도 용하다는 소문이 나면 손님이 찾아온다. 명다리를 모셨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맞추는 곳을 찾아간다. 명성이 있으면 멀리서도 온다. 예전에는 신도들 하고 연대가 끈끈했으나 옛날처럼 가깝지 않다. 따라서 삶의 고통을 풀어주고 상담자 역할을 하던 만신의 기능은 사라지고 예언자적 기능만이 확대되면서 단골관계는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궁글패나 으뜸이 만신의 경우 단골집이 있어 단골집의 굿을 담당하기도 하고 도당굿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도당굿을 책임지고 하였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신도들이 200명이 넘었으며 신도들은 만신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손님들은 정월 초순부터 15일 안에 불공을 드리고 액막이를 하기 위해서 온다. 4월 초파일에도 오는데 그리 숫자가 많지는 않다. 칠석에는 칠석맞이라고 해서 많이 오는데 밀전병을 부쳐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 밖에도 한달에 한두번 와서 집안일을 상의하기도 하고 만신이 일이 있는 경우 단골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만신과 단골의 끈끈한 관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방영희 박수의 경우 4~5년 전부터는 신도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몸이 아픈 경우에 만신집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에는 지금도 단골이 100명 정도 되며 어떤 이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와서 집안일을 상의한다고 한다.

허영순 만신에 의하면 “단골은 단골이 주변 사람을 소개하여 처음 찾게 되며 재미를 본 사람들이 단골이 된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자기가 일이 안 풀리면 몇 십만 원씩 주고 축원을 부탁하면 해 준다. 단골 손님을 정리한 카드가 있는데 병원 카드처럼 만든다. 이름, 주소 등을 적어놓는다. 몇 해씩 안 오면 태워버리기도 한다. 단골은 근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다. 의정부나 동두천 등에 사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동생이 단골이 된 후에 재미를 보면 언니를 끌어오고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카드를 작성해 놓았다가 축원을 해주고 산기도를 간다고 하면



화전 양동순 만신의 명다리

돈 좀 받아서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 준다.” 신도들은 뱀, 쥐, 원숭이, 닭날은 빼고 온다. 신도들은 30대 이상이며 그 밑은 없다.

명다리는 흰 천에 아이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 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명다리는 명을 길게 해 주고 재수 있게 해준다. 수다리 또는 칠성다리라고도 한다.

명다리의 주인이 죽을 때까지 만신이 보관한다. 큰무당이 죽으면 신딸이 명다리를 물려받는다. 명다리는 기저귀천을 창호지고 싸서 중간을 무명실로 묶어 결에는 소원을 비는 사람의 이름을 쓴 형태이다. 양동순 만신이 진적을 할 때 불사거리 한 다음에 명다리를 들고 서 있는 신도들에게 공수를 주었다. 신도들이 명다리를 하나씩 들고 차례로 줄을 섰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돈과 함께 명다리를 무당에게 건네주면, 무당은 신도들의 한 해 운수와 패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다. 이 명다리는 지금은 카드로 대체된 단골과 무당의 관계를 의미하며 명다리를 계승자인 신딸이나 신아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자신의 단골판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다.

(5) 경제생활

주 수입원은 점이나 굿을 통하여 얻는다. 따라서 굿을 하는 비용은 만신들에게 있어 경제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만신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일에서 실패를 한 경우가 많으며 집안이 망할 정도가 되어서 만신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무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굿은 한 거리에 한 가마가 들어간다고 하여 12거리를 하면 12가마 쌀이 들어갔다. 쌀 한 말을 팔면 사람 셋을 살 수 있었고 세 사람이 사흘 일을 해줘야 했다. 일년 머슴을 해야 상머슴에게 7가마를 줬다. 농사를 지어서 12가마를 하려면 약 600평 농사를 지어야 한다. 병굿 같은 것은 세 가마 정도 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굿을 못하였고 부자나 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굿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이 든다. 보통은 600~700만원이 든다. 무당에게 50만원, 악사에게 50만원씩 주는데 이 돈만 해도 500만원이 된다. 허영순 만신에 의하면 100만원 안쪽은 치성이고 150~300만원은 굿인데 단골은 200까지도 해준다고 한다. 200만원인 경우 만신은 4명이 아니고 3명이 한다. 정정자 만신의 경우 “굿이 350에서 넘어가 보지 못했다. 싸게 부르면 저 사람이 잘 할까 생각을 한다. 35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면 적당한 것이다. 500만원이면 소갈비, 양갈비 족발 놓고 돼지 잡고 피리를 분다. 350만원이면 돼지 잡고 피리 불고, 4~5명이 들어가야 굿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일당은 벌 수 있다. 12월 달에는 20번을 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쓸 돈이 없다. 20~30만원 정도 남는다. 많이 남는 경우는 50~60만원 가량 남는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이렇게 모은 돈은 3년에 한 번 굿하는데 사용한다. 시굿, 즉 장군님굿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 밥을 해서 풀어 먹이는 것은 신도들이 갖다 준 것이다. 신도들이 신령을 위해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굿을 할 때 밥을 해서 먹인다.” 따라서 만신의 경제적 수준은 굿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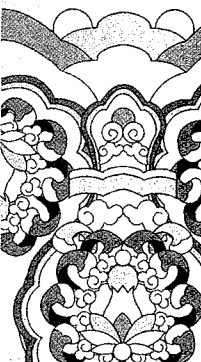
“춤춰서 번 돈은 춤추면서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당 주변에 형제간이나 친척들은 다들 못 살아서 무당에게 달라붙어 살아 무당들은 벌은 대로 다 쓰게 된다고 한다. 목수나 만신은 당대라는 말이 있는데 부자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장고소리 끝나면 끝난다. 남자가 놀면 기생의 서방이나 만신의 서방이나 하는데 이는 기생이나 만신의 서방은 되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없어진다고 한다.

3) 만신과 신

(1) 신을 거부하는 방법

신이 내린 경우 안 받을 수도 있다. 할아버지가 약한 경우에는 이길 수 있지만 강한 경우에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대가를 치뤄야 한다. 과부가 된다면, 자식이 일찍 죽는다면, 대가를 꼭 치루게 된다.

신내림을 막는 방법이 있다. 신내림을 막는 굿이 있는데 아주 무시무시하다. 신을 쫓는 굿이다.



예를 들어 대학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신기가 와서 아프고 먹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미쳐 날뛰다. 그러면 해 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신내림 막는 곳을 한다. 북한산성 같은 곳당에 가서 상을 차리고 돼지도 잡는다. 신이 내린 사람을 마당 중앙에 앉히고 이불보 같은 것을 물에 적셔서 그걸 씌우고 그 다음에 석유를 묻힌 헝겊을 또 두른다. 그 다음엔 솜방망이를 만들어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인 다음 장군들 가지고 다니는 긴 칼로 사방을 찌른다. 일종이 거짓 죽음을 연출해 내는 것이다. 이런 곳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면 신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곳을 하여 신을 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여자들은 술장사나 다방, 주모, 물장사를 한다.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무당하고 팔자가 똑 같은 사람들이다. 신 쫓는 곳으로 강한 신은 쫓을 수가 없다. ”요년, 요놈은 이걸 해먹어야 한다. 중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2) 신단과 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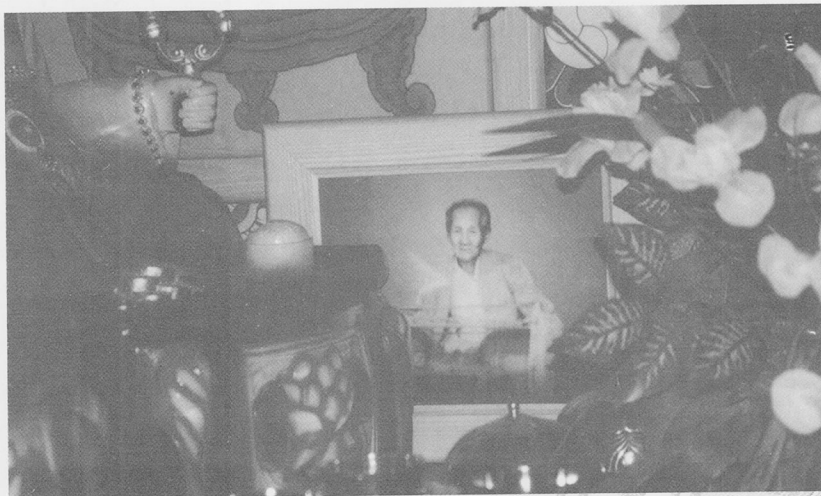
현재 탕화는 대부분 종로에서 사오기 때문에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탕화를 종이에다 그리지만 예전에는 원단 같은 것에 그렸다. 탕화에 금물을 입히기도 하였다. 탕화에는 유리를 끼우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할아버지를 유리 안에 가두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신단과 탕화 (화전 양동순 만신 곳당)

탕화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새로 신이 들어오면 모신 후에 새로 탕화를 걸기 때문이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삼불, 약사여래불, 산신, 동자, 동녀, 장군, 대신할머니 두 분을 모신다. 대신 할머니는 양동순 할머니의 몸주신이다. 뿌리의 대신, 즉 근원의 할머니라 한다. 무조신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만신이 부처가 없었는데 지금은 신도들이 모셔논 것이다. 모신 지는 15년 정도 되었다.



양동순 만신의 신어머니 영정

(3) 신 모시기

만신들은 많은 신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은 몸주신으로 내림굿을 할 때 처음으로 말문이 열리면서 부른 신이다. 대부분이 할아버지 신을 몸주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신을 모시게 된다. 내림굿 과정에서 몇 명의 신을 더 모신 후에 꿈에 선물을 하여 나타나면 음식을 차려 제를 올리고 신을 모시게 된다.

신은 잘못 하면 벌을 내리기도 한다. 금천에서 만신이 굿에 전에 사용했던 과일을 다시 사용해서 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돈을 탐냈기 때문에 망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붙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신과 신의 관계는 아주 개별적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신들이 살아온 삶과 신의 특성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신들과 신의 관계는 만신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정정자 만신의 경우

맨 처음 내린 신은 태백산 할아버지, 옥황상제이다. 둘 다 천신이다. 그리고 장군줄이 내리고 동녀별상이 내렸다. 신 중에 주장이 되는 신이 있다. 장군굿을 많이 하는데 주신은 도사할아버지이다. 도사할아버지는 약명도사로 약물을 내리는 신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이다. 태백산 할아버지를 먼저 찾았어도 주로 활동을 하는 신은 도사할아버지이다.

맨 처음 뵈었을 때의 일이다. 겨울에 잠을 자려고 누어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지팡이를 든 백호도사, 즉 지금 법당에 모신 도사와 같은 분이 “애야 나가자”라고 해서 잠옷바람으로 따라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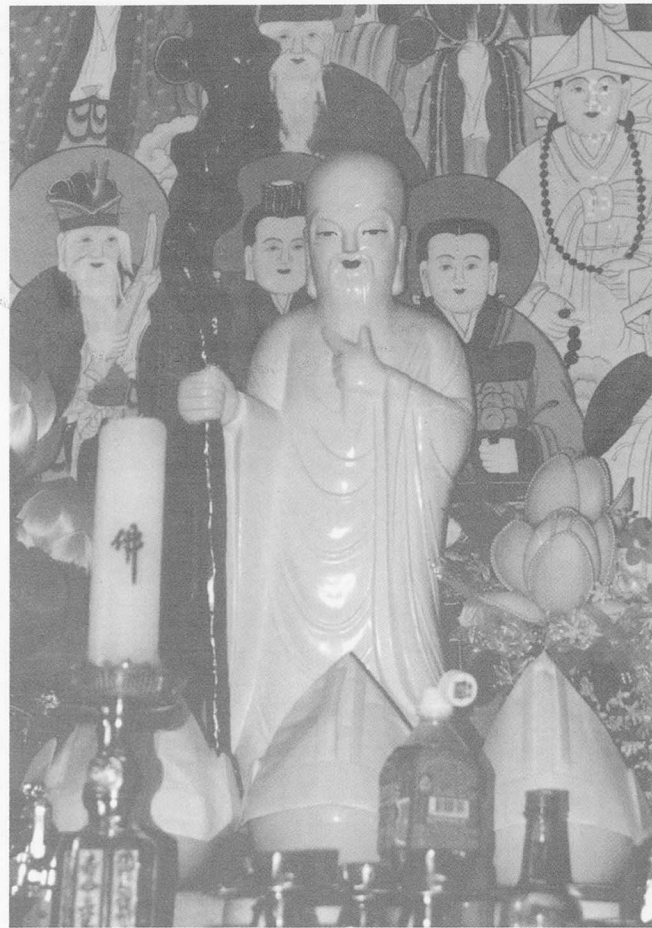
옥수를 뜨러 가자고 해서 가라피 쪽으로 갔는데 물이 말랐는데 부정이 많이 켜다고 하면서 삼 배를 하라고 해서 삼 배를 했다. 집에 오더니 지프락을 입에 물리고는 사방에 절을 세 번씩 해서 천신의 벌을 풀자고 했다. 찬물로 목욕을 시키더니 물이 너무 더럽다. 이 물을 가지고 정월에 홍수맥이를 어떻게 하니 그랬다. 말을 해도 뜻도 모르고 하였다. 물이 푹 푹 떨어지는데 방에 들어와서 뛰었다. 뛰고 나니까 새벽이 되었다.

조카며느리가 밥을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목욕을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모두들 의아해 했다. 물을 다시 파서 정월 홍수맥이를 하였다. 그해 봄에 많이 아팠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고 넘기는 곳을 하는데 “요년아 네 입으로 물이 더럽다고 하고 그것도 몰랐니”하고 공수가 나왔다. 그때부터 더 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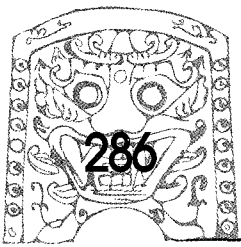
나는 도사 할아버지가 약명도사이기 때문에 병굿을 잘 한다. 병원에서 물이 차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을 250만원 주고 굿을 하였다.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굿을 하여 두 번이나 살렸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조상하고 엮여지는 것이다. 우리 신하고 그쪽(신도) 조상하고 대화를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한다. 그때마다 활동을 하는 신이 있다. 역할이 틀리다. 본인이 안다. 어느 누가 대역을 해 주는 것인지 안다. 말은 안 해도 안다. 4~5분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20명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옥황상제는 천신으로 가장 높은 신이다. 누린 것 비린 것은 피해야 한다. 그 분이 가장 윗분이다. 단군도 천신이다. 약명도사도 천신이다. 육신은 장군신으로 작두도 타고 호국신이다. 주로 천신이 많다. 불사는 비린 것 누린 것을 싫어해 천신이라 한다. 용궁도 천신이다. 용궁에도 장군이 있다. 물고기도 장군줄이다. 대감, 창부, 대신할머니, 애기씨, 선녀도 있다. 지금 모든 신을 모신다. 최일, 권율장군, 제주한라산에 여장군님, 백마장군, 관운장님, 별상님, 도사



만신들이 보편적으로 모시는 산신



할아버지(글문도사, 약명도사, 천신도사, 용궁도사, 산신도사), 불사할머니, 제석, 칠성, 태신할머니, 창부, 굴대신할머니, 낫대신할머니, 매화부인 태을부인, 척직부인, 동자, 병상, 전체적으로 20분이 넘는다. 아주 많이 모시는데 그러나 12분이 라고 한다. 자기들이 입으로 하강하는데 신어미가 12분을 모셔드린다. 장군줄에서는 제주한라산의 여장군님, 최영장군님, 별상님, 사신장군(독물로 장군을 한 분만 모시는 경우도 있다.) 별상님, 신장님, 최영장군, 불사, 제석, 대신할머니, 도사할아버지, 부처님 세 분 모시는 사람(어머니 때부터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도 모신다), 산신할아버지를 모신다. 옛날에는 동자를 치지 않았다. 거짓도 잘하고 영특하게 잘 맞추기도 한다. 주로 주장은 윗신들이다. 애들은 야단치면 들어가야 한다.

한라 여장군은 장수이다. 키가 장승이다. 장군님굿을 할 때면 제주도를 간다. 제주도가 탐라국인지 몰랐다. 용두머리에 갔는데 “아이고 바보야. 너는 여기 왔다 그냥 갈려고 했냐. 내가 탐라국의 웅주다”라는 말이 나왔다. 종로 지부에서 온 사람들이 탐라국이 제주도라고 알려 주어 나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탐라국이라 부른 사실을 알았다. 신이 들려서 무당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막은 모른다. 제주 한라산 여장군마누라, 황해도 평산의 신장군님, 덕물산의 최영장군, 감박산의 비틀대왕, 이 나라 충신에 임장군님이라는 공수가 있다. 한라 여장군은 “내가 누워서 발을 뻗치는 것이 다 내 땅이다. 제주도 땅이 다 내 땅이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 말이 한라산여장군이 하도 커서 같이 살 남자가 없었다. 최영 장군이 갔는데 최영장군이 더 강해 꼬떡 없었다고 한다.

최영 장군의 비를 모시는 섬이 있다. 전라도쪽 섬에 당이 모셔져 있다. 장군님 굿할 때 추석 전전날인데 대성황이었다. 장군님 목 친 장면을 하니까 다리가 틀렸다. 돌아가실 때 주리를 틀었던 것 같다. 이쪽에서 무당들은 최영 장군을 많이 모신다. 덕물산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리산도 전라도는 여신이고 경상도는 남신이다. 산에 들어가면 하얀 할아버지신이다. 호신이다. 육산이다, 소산이다 구분을 해서 다닌다.

불교신의 이름을 모르고 다닌다. 향일암에 갔었는데 산신각에 절을 하는데 미륵님이 오셨다. 그래서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합일 받으라고 하나 생각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못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뭔가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교섭을 시켜주는 것, 등불을 비춰주는 것” 이런 느낌이 바로 신이다.

꿈에 군자봉 서낭을 찾아간 일이 있다. 일자 집인데 한쪽에서 중년부인이 나오는데 빨간 치마에 파란색 저고리, 젊은 여자는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 올린 머리를 하였다. 노인은 통통하고 젊은 부인은 가랑가랑 하였다. “너는 나에게 인사를 해야 불릴 것 아니냐”라고 하여 그 부인들을 따라 갔다. 그래서 따라 가는데 상탕, 중탕, 하탕 연못이 있는데 하탕은 보지 못하고 중탕은 지프락이 많았고 상탕은 깊어서 물을 뜰 수가 없었다. 병뚜껑같은 것을 구해 줄을 연결하여 물을 퍼서 옥수를 올렸는데 산신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산신각이 없었다. 길이 매우 험한 곳을 찾아갔다. 여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안산 군자봉 서낭이라고 하였다.

꿈을 깨서 알아 보니까 안산에 그런 당이 있다고 하였다. 안씨부인, 홍씨부인해서 무당문서에도 있다. 직접 그곳에 가 보니까 꿈에서 본 나무가 있었다. 서낭당을 찾지 못하여 안산 지부장을 찾아가니 굿당이라고 알려주었다. 두 부인은 대왕의 장모와 마누라로 장군이 죽은 줄 알고 자살한 것이라고 하였다. 법당은 일자집인데 장군님과 안씨, 홍씨를 모셨다. 상탕, 중탕, 하탕도 있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좋아 지금도 가끔 간다. 아차산도 불사가 남불사. 미륵님이 계신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왔다가라고 해서 갔다 왔다. 한강줄기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당이 있다. 세습무로 생각했는데 신이 실리는 것을 보면 강신무이다. 선물을 받고 다닌다. 그때 뿐이다. 때가 되어 못 찾을 때 선물을 한다. 창경궁도 꿈에 보니까 방마다 우물이 있었다. 창경궁에 가보니까 똑 같았다. 모시는 신은 그대로이지만 신들이 선물을 통해 나타나서 알려준다. 그렇게 찾아뵙게 되면 그분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게 된다. 자주 꾸지는 않지만 신의 꿈은 잊혀지지 않는다.

산에 들어갈 때 섬жит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뭔가 귀신이 있는 것이다. 휘말리면 당하게 된다.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한다. 느낀다기보다는 말이 나온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온다. 무속의 뿌리가 물에 넣는 들 떠내려가라. 불에 넣는 듯 타라.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에 의해서 한다. 신은 신과 무당(제자) 단 둘이다. 신은 소유욕이 있다. 다른 것을 섬겼을 때 벌을 준다. 잘 모시면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와준다.

꿈에서 보고 찾아간 신들은 굿할 때마다 한 번씩 나타나서 알려준다. 대신 할머니들이 실리면 한 마디씩 알려준다.

법당에 돈을 꺼내고 하면 벌을 준다. 빌면 땅이 들었다가도 금방 가신다. 예전에 어머니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느 법당이든 미리 꺼내면 벌을 준다.

② 허영순 만신의 경우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동자가 보였다. 동자는 5살인데 꿈에 나를 따라다녔다. 동네라고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구덩이를 파고 있어서 가서 구경을 하였다. 까만 남자 교복을 입혀 아이를 묻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였다. 남자들이 삼을 들고 한 삼 두 삼 다리부터 덮어 얼굴만 안 덮고 있는데 5살 먹은 아이 얼굴이 달덩이 같았다. 죽었다고 하는데 허영구 잘 생겼다. 이미 몸은 흙으로 덮었고, 이제 얼굴을 덮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려다보니까 내 얼굴이랑 마주치더니 툭툭 털고 일어났다. 일어나니까 옆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귀신이라고 다들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나도 막 도망을 갔다. 골목골목을 도망가고 담을 넘고 그레 여기까진 못 오겠지 뒤돌아서면 애가 서 있었다. 그래서 너 정말 귀신이구나 하고 또 도망가면 또 서 있었다. 그래서 너 왜 자꾸 나 따라 오냐 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서, 판 사람들은 다 싫고 엄마가 좋아”라고 대답하였다. 이젠 신이 안 내렸을 때 이야기이다. 처음에 신 내릴 때는 동자가 나와 따라다니지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동자가 먼저 나온다. 동자는 자식이 어려서 죽은 경우 자식의 혼이 동자가 되어 엄마에게 오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는 위의 언니가 쌍둥이였는데 한 명이 죽었다. 지금 동자신은 둘 때 죽은 언니이다.

동자신은 할아버지의 심부름꾼이다.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집을 할아버지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동자가 휙 날아서 그 집에 갔다 오는 것이다.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나, 손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가, 그 집에 재수가 없어 동복이 들었나” 등을 알려준다. 동복은 장이든 밥상이든 나무 같은 걸 들여와서 동티가 나는 것을 말한다. 새 물건을 들여와도 동티가 난다. “당신네 물건 들여왔지, 까만 색 들여왔나, 뭐 사왔지” 등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뭘 사왔다고 대답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는 것이다.

지금 동자 옷은 검은 색의 교복이 아니고 색동옷이다. 아이들의 돌복을 입고 있다. 여러 벌의 동자옷이 있는데 이 옷들은 신도들이 사 온 것이다. 사람들이 물으러 오면 “엄마 옷 사줘, 그럼 오빠 대학에 붙여줄게”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2만 5천원 짜리 돌쟁이 옷을 신도들이 사 온다. 사 오라고 하면 다 사온다. 다음에 대학에 붙었다고 찾아온다. 믿는 사람들은 달달이 찾아온다. 동자 먹으라고 사탕, 과자를 사 온다. 신도들이 사온 사탕과 과자는 올려놔다가 고아원에 갖다 준다. 신도들이 사오는 것은 하루 이틀 올려놔다가 내가 다 먹는다.

신이 처음 내릴 때 작두신이 들어왔다. 장군님이 몸주신이어야 작두를 탄다. 작두를 타고 발이 베지 않는데 이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탈 때도 무섭지 않았다. 내가 작두를 탄다 마음을 먹으면 두렵지 않다. 작두 탈 때는 주변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한다. 작두를 잡고 있는 사람은 돈을 입에 물려놓고 말을 못하게 한다. 발에 통증은 느껴지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두 타는 것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신 내리고 2년 하다가 안 탔다.

작두 타는 곳이 있고 안 타는 곳이 있다. 산곳 할 때도 동네가 부정하면 작두를 타지 않는다. 정사곳에는 작두를 타지 않는다. 곳에는 대개 작두를 타지 않는다. 진적할 때도 작두를 타지 않는다.

작두를 타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다. 병 고치는 곳에는 탄다. 작두를 타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발을 딱 딛고 올라가면 하늘이 반짝 반짝 한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기분이다. 따로 연습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잘 못하고 올라가면 큰 일이 난다. 본인 자체가 깨끗해야 한다.



허영순 만신집의 동자상



가장 어린 나이에 신을 받은 경우는 11살짜리를 봤다. 내가 신을 받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부채를 가지고 앞을 찍어 보라고 해서 가운데 할아버지를 찍었는데 그 아이 말이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보다 더 높아. 해라 왜 안 해. 안 하면 죽어 앉은뱅이 되서 다리를 못 쓰게 된다”고 하였다.

허영순 만신은 죽을 때까지 모시다가 치울 것 치우고 태울 것 태우고 고물상 갈 것은 고물상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신딸이 생기면 신딸이 모셔 간다. 신딸이 자신의 할아버지 신과 내 신을 함께 모시게 된다.

만신들은 자기 주장이 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주장이다. 최씨면 최씨,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자기네 조상이 주장이다. 자기네 조상 할아버지가 주장이 되는 사람들은 조상거리를 잘 한다. 조상거리란 죽은 사람들 옷 입고 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알아맞춘다. 약 먹고 죽었는지, 차에 치어 주었는지 알아맞춘다. 이것이 조상거리를 잘 하는 무당이다.

나의 경우는 옥황상제가 주장이다. 옥황상제신은 내림굿을 받을 때 모셨다. 내림굿을 하려고 할아버지 만신 5명을 모셨다. 파주 적성산에 있는 굿당에 갔는데 옷을 빨간 것 노란 것 이것저것 입혔다. 할아버지 옷을 입히면 굿당 안에서 춤을 추다가 마당으로 뛰어 나가서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 춤을 쳤다. 말문을 여느냐고 그런 것이다. 절을 하고는 미친 듯이 춤을 춘다. 울다 춤추다 울다 춤추다 하루종일 한다. 굿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문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5~6번씩 하는 사람도 있다. 말문이 열려야 점을 보고 바로 맞춰 준다. 나는 두 번째에 됐다. 39살에 하고 5년 전에 해서 말문을 열었다. 그때 둘째딸을 데리고 갔는데 만신 할아버지가 딸한테 종이하고 뽕을 주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게 하였다.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목을 콕 조르는 것이 느껴졌다. 영화의 귀신들처럼 누군가 목을 누르기 때문에 살라고 악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러면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나는 옥황상제다. 나는 천하대신이다. 나는 백마 타고 온 백마장군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딸이 받아 적었다. 그렇게 그때 7분을 불렀다. 처음에 부른 분이 옥황상제이다. 그런데 어떤 무당은 “난 몇 대 할아버지 조상이다”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그 조상이 먼저 우선이 된다. 먼저 부른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이다.

옥황상제를 부르고 백마장군을 불렀다. 백마장군은 최영 장군을 말한다. 김유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인 경우도 있다. 터줏대감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7분을 모셨고 지금은 12분을 모신다. 처음에 7분을 모시고 살면서 1년에 한 분씩 들어왔다. 모셔놓고 있으면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나는 오감신장이다”, “나는 도사할아버지다”하고 나타난다. 그러면 다음날 떡에 밥을 한 상 차리고 모신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굿할 날 받아놓으면 부부가 안 자야 된다. 목욕을 12시에 하고 할아버지하고 신당에서 자야 한다. 그래야 할아버지가 꿈을 꿉 준다. 할아버지는 거인이다. 덩치가 매우 크다.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며 수염이 달려 있다. 옷은 두루마기를 입었고 감투를 썼다. 말은 잘 하지 않는다.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은 잘 하지 않는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아서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영적으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부적을 쓸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다. 산에서 이슬비가 오는데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였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4~5시에 가보아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용왕제를 지내러 갈 때 신도들도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마지막에 통복어를 던질 때 보면 일반인들이 던진 것은 가로 동동 뜨는데 무당이 던진 것은 복어가 머리를 위로 하고 동동 떠 있다. 산에 가서 복어를 던져도 무당이 던지면 서고 일반인이 던지면 눕는다. 이것이 바로 신의 위력이다.

양동순 할머니의 신은 무서운 신령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순한 신령도 있고 무서운 신령도 있다. 저녁에 일하고 다 청소해 놔도 그 다음날 가보면 쌀이 한 주먹씩 떨어져 있다. 나는 내림굿 할 때 만신들 얘기가 허보살은 신이 참 순하고 점잖게 들어온다고 하였다.

신할아버지는 개고기만 안 좋아하고 다 드신다. 평소에는 아침마다 옥수 뜨고 촛불 키고 향 갈고 절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청소하고 다 치우고 절하고 “할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일 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하면 일이 들어온다.

우리 어머니도 부처를 모셨는데 부처님은 아주 큰 신이다. 관세음보살, 약사보살, 미륵보살 3분을 모신 것을 봤다. 부처님은 무업을 한지 10년이 되어 모신다. 지금 자리가 있어도 모시지 않는다. 12할아버지 신을 내가 손에 놓고 좌자우지 할 수 있어야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귀신은 전에 신병을 앓을 때 본 모습이다. 검은색의 우주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통 그림자나 안개 같은 기운이다. 주로 말로 들린다.

③ 방영희 박수의 경우

신을 받는데 1개월 걸렸다. 1년이면 다 들어온다. 신이 그냥 들어왔다. 꿈에 보이면 떡하고 밥해 놓고 기도하면 신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탕화를 갖다 부치면 된다. 10년씩 걸리지 않는다.

부처님을 모시는데 1년만에 부처님을 모셨다. 신을 다 받아들인 후에 부처님을 모셔야 한다. 부처님도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모신다. 그냥 모시지는 못한다. 최고의 신으로 최영 장군이 있는데도 모시는 것은 종류가 다른 신이기 때문이다. 장군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지만 부처님은 불교의 신이기 때문에 모신다. 제석, 불사를 모신다. 자식은 제석에서 점지한다는 말이 있다. 없는 자손 점지하고 있는 자손 수명장수하게 하는 것이 삼불제석이다. 삼불제석도 자신이 삼불제석이라고 외치고 무속처럼 모신다. 부처님은 다른 신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고 싶을 때 모시는 것이다.

대감님은 별상대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대감님을 잘 위하면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어떤 대감은 돈을 없애는 대감도 있다. 대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집안이 점점 낭패한다.

평상시 아침저녁으로 불공드린다. 밥과 옥수를 올린다.



방영희 박수집의 최영장군 영정

4) 만신과 제의

(1) 제의의 형태

만신이 거행하는 제의의 형태는 고사, 치성, 무꾸리, 푸닥거리 등 만신 혼자 하는 형태와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다.

곳은 악사와 몇 명의 만신이 12거리를 모두 갖추어 하는 것을 말한다. 곳은 보통 가을에 하는데 시월 그믐부터 곳이 시작되어 동짓달이면 끝난다. 정월달에 하는 것은 병곳이나 우환곳, 신사곳을 한다. 가을에 곳을 많이 하지 일손이 딱 나면 곳을 안 한다.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10월이면 4시부터 초부정 치기 시작하여 밤 세워서 한다. 그 다음날 11시면 끝이 난다. 모든 곳이 4시에 시작 다음날 아침 10시 11시면 끝난다. 조상이 많은 집은 좀 늦게 끝난다. 이를 넘는 곳은 없다.

고사는 아주 축소된 정성으로 집에서 떡을 해서 성주, 터주, 조왕 그런 곳에 놓고 농사 잘 되었다고 음감하시라고 하는 것이다. 무당 불러다 하는 것도 있다. 고사보다는 큰 것으로 제금만 가져 와서 덕담을 한다. 치성은 100만원 이하의 돈을 받고 손님을 위해 치성을 올려 주는 것이다. 손님이 원하는 바가 있으며 매일 아침 치성을 드려주는 것으로 불교의 불공을 드려 주는 것과 같다.

무꾸리는 점을 보러 가는 것을 말한다. 정월 초하루 또는 다음날에 괴무꾸리를 한다. 단골한테 가지 않고 평소에 알지 못하던 만신을 찾아가 일 년 운세를 본다. 잘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간다. 심심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먼 곳에 가서 본다. 점은 주로 쌀점과 엽전으로 한다. 엽전은 궁점이 많이 나오고 쌀점은 산점이 나온다. 쌀이나 엽전을 던지면 공수가 나온다. 허영순 만신에 의하면 점을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은 안 봐 준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곳에 가서 보라고 한다. 그런 집은 나쁜 집으로 액운이 닥쳐서 내일 모레 초상날 집으로 이런 집은 안 봐준다. 하루는 할머니가 아침 9시에 와서 돈을 놓고 점을 보는데 평소에는 할아버지가 점 보러 온 사람 집안 얘기를 다 해주는데 말을 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가르쳐 준다고 할머니를 쫓았다. 그런 집은 사고가 닥치는 집이다. 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 2명 있었다.



(2) 굿의 종류

① 홍수맥이

정월달에 무당집에 가서 하는 것이다. 말이 굿이지 실제 굿은 아니다. 장고도 안 치고 제금만 치고 달달이 일 없게 풀어 달라고 한다. 신도들이 10~20만원 정도 가져온다. 이렇게 액막이를 해주면 크게 날 사고가 작게 난다. 막아주기 때문에 단골이 되는 것이다.

② 운맞이

운은 나이에 7자가 들어올 때 들어온다. 17살, 27살, 37살 등에 들어서 4~5년씩 든다. 따라서 자신이 7자가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운맞이굿을 해야 한다. 대운이 집에 와 있으니 그걸 받아야 한다. 반대로 삼재가 들어 온 경우에는 정월에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

③ 신사굿

집을 새로 짓고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하는 굿이다. 성주맞이라고 하며 새 성주를 모실 때 하는 굿을 신사굿이라 한다. 신사 바친다고도 한다. 신사는 새로 한다는 뜻이다. 대들보에 성주를 걸어놓고 양쪽에서 톱질도 하고 한다. 예전에는 적송을 최고로 치는데 오대산, 춘향, 봉화, 안동에서 많이 난다. 나무씨를 심어 배어 때를 지어 대목을 들여 치목을 하여 집을 짓는 과정을 노래하는 것을 황제풀이라고 한다. 신사굿에는 황제풀이와 바리공주를 한다. 양동순 만신은 신어머니에게 3년간 마주 앉아 황제풀이를 배웠으나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집을 지어도 굿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었으며, 배워서 3번밖에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신사굿에는 녹두 3그릇, 북어 3마리, 쌀 한 말, 적, 약주 3잔을 준비한다.

양주소놀이굿이 마치 하나의 굿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소놀이굿은 신사굿에 한 거리로 소를 놀리는 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소놀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사굿은 12거리를 하면서 성주거리를 크게 한다. 대들보에 천을 걸어놓고 만신이 잡고 춤을 추면서 한다. 일종의 집들이와 같다. 집에 들어가면서 한다.

④ 경사굿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농사를 잘 지었다든가 자손이 없던 집에서 자손이 생겼다든지. 그러나 원래는 거슬러 올라가면 벼슬에 오른 경우에 하는 굿을 말한다.

⑤ 진 적

신의 생일이다. 신이 내린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신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잔치를 해 드리는 것이다. 진적을 드리면 마음이 좋아진다. 음력 3월 1일에 길일을 잡는데 이는 초승에 잡아야 부정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봄에 하는 것은 꽃맞이라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단풍맞이라 한다.

옛날에는 봄과 가을에 두 번 했다. 신딸이나 신아들이 모두 참여한다. 5년만에 하기도 하고 3년만에 하기도 한다.

⑥ 도당굿

도당굿은 동제를 지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자연 촌락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당굿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풍동의 경우 마을이 사라지게 되어 올해 마지막으로 도당제를 지내면서 봉사를 불러 경을 읽었다. 그들은 앞으로 마을이 사라져 다시 도당제를 올리지 못하니 신령님은 먼 곳으로 가시라고 알렸다.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된다면 고양시의 마을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거행하는 도당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발산 도당굿의 경우는 마을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굿을 할 수 없게 되어 서에서 보조를 하여 굿을 거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마을 주민들이 풍년에 감사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전통적 의미의 도당굿은 아니다. 마을 주민이 없는

곳은 이미 도당곳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며 정발산 도당곳이 새로운 의미를 담은 곳으로 탄생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이는 단지 정발산 도당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다른 마을의 경우에도 마을이 해체되지 않았다 해도 새로운 주민의 이입으로 전통촌락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당곳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말머리 도당곳과 땡개도당곳이 유명하였다. 말머리 도당곳은 지금의 정발산 도당곳이며 땡개도당곳은 대화동 도당곳이다. 땡개 도당곳은 곳을 크게 했었다. 도당곳은 이틀을 하는데 당주집에서 하루 하고 다음날 아침 먹고 올라가 곳을 하고 해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곳이 끝난다.

예1) 땡개 도당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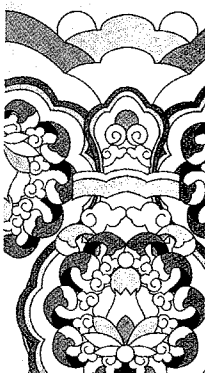
지금의 송포동 사무소 있는 동네에서 많이 했다. 곳은 돈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인데 그 동네는 돈 있는 사람이 많았다. 김현규 선생은 땡개 도당곳을 할 때 21살에 서낭대를 잡았는데 16년만에 한 것이라고 하였다, 16년 전에는 18년 전에 했다고 하였으며 얼마 전에 34만인 1998년에 했다. 일본강점기 이전에는 자주 했었다. 무악재 고개에서 고양군에서 가장 부자인 김서방네가 있었는데 도당곳을 하면 그 집에서 당주를 맡아 해 곳을 자주 했다. 부자가 망하니까 곳이 없어지게 되었다. 으뜸이는 땡개 도당곳을 했었는데 하도 드물게 하여 85세에 돌아가실 때 땡개 도당곳을 한 번 더 하고 돌아가시겠다고 하였다. 10년 또는 15년에 한 번씩 했다. 90년 전에는 자주 했었는데 왜놈이 들어오면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2) 정발산 도당곳

1987년의 편찬된 『고양군지』²⁾에 의하면 “일산의 마두리와 장항리에서는 5개 자연부락이 모여 3년에 한번씩 도당곳을 한다. 무당은 모두 5명으로 악사도 3명이다. 양동순 만신이 주관하며 악사 중에는 박영봉 씨가 계속 참여한다. 도당곳은 한국전쟁 때도 계속되었으며 곳을 하는 날이 정해지면 덕물산에 가서 최영 장군께 굿할 것을 고하고 돌아온다. 아침에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계속되며 산에서 내려와서는 당주집에서 계속한다. 곳은 16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 초당 : 첫 장구소리를 내는 것
- 부정 : 참석한 마을의 성씨를 들어 축원함.
- 부정거리 : 부정사에 부딪혀도 무사를 빌며 축원함.
- 부정말명 : 처녀귀신 달래어 쫓아냄
- 가망청배 : 각자의 조상을 청함.
- 성황거리 : 성황신께 빌며 애원함
- 대감놀이 : 각종의 대감신께 도와달라고 빌며 애원함
- 불사거리 : 부처 삼신할미에게 기원함
- 칠성거리 : 칠성님께 자손의 명복을 기원함
- 제석거리 : 제석(삼신할미)께 기원함
- 호구거리 : 인물, 사물을 몰아냄
- 대밭이(도당대) : 깨끗한 자로 대밭이가 대 내리도록 기원함
- 산신거리 : 구능거리 -- 산신과 어울려 논다
산양거리 -- 산신할아버지가 사냥나갈 때 응원함
막둥놀이 -- 산신할아버지 심부름꾼 놀이
- 장군님 놀이 : 최영장군을 모시고 하는 놀이
- 도당거리 : 산신 전체와 하는 놀이

2) 『고양군지』 고양군지편찬위원회, 경인일보사, 1987, p.1127~1129.



- 별상거리 : 제일 나쁜 귀신을 몰아냄(이 때 무당은 칼을 들고 작두를 탄다)
- 신장거리 : 옛날 말을 타고 벼슬한 귀신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함
- 성주거리 : 대동 대주 잘 되라는 놀이
- 창부거리 : 삼년의 평안을 기원함
- 건립 : 터주 걸립놀이
- 지신 : 터놀이
- 맹인 : 장님도 복 받으라는 놀이
- 텃대감 : 동서남북 빠짐없이 각 가정을 기원함
- 영산풀기 : 달리고 뛰면서 무고를 기원함

정발산 도당굿은 번달과 방아고개 만신이 번갈아 거행하였으며 화전동의 양동순만신이 이어왔으나 1991년도부터 재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양동순 만신의 신딸이 정정자만신이 거행하고 있다. 정발산굿의 경우 시에서 돈이 나와서 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돈을 추렴을 해서 상당주, 하당주, 중당주가 있어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드린다.

예3) 풍동 도당굿

2001년 11월 20일 음력 10월 6일 고양시 일산구 풍동 식골 마을에서 거행되었다. 마을이 해체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굿을 하면서 서울 왕십리에서 봉사 4명이 모셔와 경을 읽었다. 그들 중 한 명은 30년 전부터 하였고 한 명은 10년 전부터 하였으며 2명은 금년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소경들은 서양복과 같이 생긴 복을 공중에 걸어놓고 채 두 개로 치면서 굿을 하였다. 무당의 굿과는 달리 앉아서 경을 읽는 형식이였다.

굿은 먼저 어병대 내리기부터 시작되었다. 오병권 노인이 술가지를 들고 쌀을 담은 함지에 술가지를 꽂아 들고 앉아 있다. 어병대는 술가지에 한지를 묶어 만든다. 술가지로 어병대를 만드는 이유는 사철 푸르고 변치 않으며,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살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어병대는 나쁜 것을 집어삼킨다. 부정만 씻고 정화시키고 가시는 것이다. 소경은 주소를 대고 마을상황을 설명한 후에 마을이 개발되어 떠나게 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하강하시어 주민들을 도와달라고 기원하였다. 계속 주문을 외우면 어병대가 흔들리기 시작 왼쪽으로 쓰러지더니 바닥을 친다. 봉사가 산신령님, 도당신령님이 하강하셨다고 하고 부정을 거둬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다. 오노인은 어병대를 들고 밖으로 나가 굿하는 천막을 친 곳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들어와 어병대를 쌀을 담은 함지에 꽂는다. 들고 다시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 한 여자의 머리를 쳤는데 맞은 분은 잘못 했다는 듯이 빈다.



마지막으로 제주를 올리는 풍동 도당제



풍동 식골 도당제에서 독경하는 봉사

봉사는 다양한 경문을 읽으며 마을을 위해 축원을 해 주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산신대 내리기이다. 산신대는 참나무에 한지를 묶은 형태이다. 참나무는 길흉을 알려준다. 참나무에 신이 내린 상태에서 봉사가 공수를 한다. 봉사가 한 말이 맞으면 쿵 찍고 맞지 않으면 좌우로 흔든다. 봉사가 --씨 가족도 편안하고 하고 말하니까 참나무가 좌우로 흔들리니 봉사는 안택정이라도 읽으라고 알려준다. --씨의 경우 이름만 나온 상태인데도 좌우로 흔들린다. 이사가 문제냐고 물으니 좌우로 흔들렸고 다시 우환이 문제냐고 물어도 좌우로 흔들렸으며 구설에도 좌우로 흔들렸다. 풍파냐는 질문에 쿵 찍었다. 동네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서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조심할 것을 새겨 듣는다. 나쁘게 나오면 봉사는 신령님이 살펴줘도 고사를 지내라고 한다. 심하게 안 좋은 경우 참나무가 바닥을 두들기기도 한다. 좋은 집은 이름이 나오면 바로 쿵 찍는 경우도 있다. 봉사는 참나무 신에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올해 장가갈까 하고 물으면 참나무가 쿵 찍으면 장가를 간다고 하신다라고 답한다. 구설이 올해냐 내일이냐 묻고 올해냐 하고 세부적으로 물으면 맞으면 쿵하고 찍는다. 봉사가 공수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참나무는 흔들려 봉사는 다시 물어봐야 한다. 봉사는 스스로 공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산신대에게 뜻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거행된다.

이번 도당제는 풍동이 없어지면서 신령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되어 이제 먼 곳으로 가시라는 뜻으로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도당나무를 도지사, 시장, 구청장 중 누가 지켜줄 것인가를 물었는데 산신대는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 줄 것이라는 말에 쿵하고 찍었다. 그래서 얼마나 계실 것인가를 물었더니 주민이 원하면 이곳에 있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 푸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먹고 놀다가 가시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계시다가 가시겠냐고 봉사에게 물으라고 하여 봉사가 10년, 5년하고 물으니까 산신대가 봉사를 막 때렸다. 묻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산신령님을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안 가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하였다. 몇 백년을 모셨는데 안 가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봉사에게 여기 계셔도 뽕뽕이 흩어져 모실 수 없으니 잘 좀 달래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예4) 원흥리 도당굿

원흥리는 곳을 안 한지 10년 정도 되었다. 노인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고 안 한다. 새마을 운동 때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당굿이 많이 없어졌다.

도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신이 있다. 원흥2리(나무드머리)에 할아버지와 원흥3리(가시골)에 할머니 신이 있다. 당집은 없고 산만 있었다. 산 자체가 할아버지신이다. 산꼭대기에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굿을 한다. 굿을 할 수 있도록



닭아 났다. 도당굿은 9월 9일날 한다. 당주가 음식을 준비한다. 육찬은 고기 준비하는 사람이 하고 소찬준비하는 사람은 떡이나 채소를 준비한다. 두 집안이 나누어서 준비한다. 이 사람들은 당주인데 이들은 비린내 나는 것을 먹지 않고 초상 집에도 가지 않는다.

먼저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한다. 유교식 제사는 저녁 먹고 한다. 8~9시쯤 제사를 지내 10시면 끝난다. 굿할 때는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한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한다. 도당굿을 할 때 산에 올라가 덕물산 기를 받아 굿을 한다. 9월 9일이 굿이면 하루 전에 갔다 온다. 예전에는 덕물산까지 기를 받으러 간다. 최근에는 덕물산까지는 가지 않고 고양리 당집에 가서 기를 받아다 한다. 기 받을 때는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절 하고 도장을 찍어 와서 도당에 갖다 놓고 굿을 하였다. 그곳 만신들이 도장을 찍어준다.

당제 지낼 때는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들이 지낸다. 12거리 한다. 다른 굿과 마찬가지로이다. 돼지를 잡는 해가 있고 잡지 않는 해가 있다. 회의를 해서 돼지 잡아 올리자 해서 올리기로 결정되면 돈에 따라 결정된다. 돼지는 장군님, 별상 놀 때 돼지를 갖다 놓고 한다. 돼지를 놓으면 안되는 굿거리는 불사와 제석이다. 돼지고기는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

도당굿을 해도 보수는 없다. 동네 사람들이 추렴해주는 것이 없다. 다른 무당들을 불러오고 악사 불러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추렴해서 건어준다.

⑦ 진오기

진진오기는 장사 치르고 바로 하는 것이고 진오기는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하는 것이다. 자리걸이는 진오기의 약식으로 집에 있는 혼신만 걸어 내는 것이지 극락세계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 자리걸이는 성복 들어와서 바로 한다. 제금만 치고 하는데 만신 혼자서 한다. 굿은 여럿이 여러 거리를 하는 것이다. 자리걸이는 냇만 달래서 기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한다. 자리걸이는 웬만한 집에서 다 한다.

냇대는 그 사람의 냇이 들어오는 것이다. 냇대를 잡으면 돌아가신 분의 냇이 잡힌다. 냇대는 참나무로 만든다. 섯대와 녁대는 참나무로 만든다. 섯대는 10월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자리걸이할 때 모재비를 굽으면서 한다. 버들로 만든 것으로 떡을 담는 것이다. 사각형의 모양 키 만드는 버들로 만든다. 모재비를 굽으면서 진언을 한다. 동이에 쌀을 7홉쯤 담아 새발심지를 피우고 창호지를 덮어 상위에 올려놓는다. 창호지 위로 그림을 보고 죽어서 무엇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쌀이 변한 모양을 보고 죽어서 새가 되었다 부처님이 되었다 알 수 있다. 새발 심지는 창호지로 만들어 기름 위에 올려놓아 만든다. 새가 많이 된다.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 모양이 영험한 만신이면 명확하게 나온다. 자리걸이는 살아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은 냇이 집안에 있으면 횡방을 놓는 것이다.

진진오기는 성복 들어와서 하니까 여름에는 4시, 겨울에는 3시 정도에 한다. 12거리를 한다. 만신이 길을 가를 때 배하고 난목으로 배를 묶고 앞으로 힘을 줘서 앞으로 가며 길을 가른다. 난목은 금방 찢어지지만 배는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잡아서 당겨 찢는다. 굿청에서 조상옷을 입고 혼을 청배한다. 무당의 몸에 내리게 하기 위해 조상의 옷을 잡고 흔들기만 하지 입지는 않는다. 12거리를 하다가 조상거리를 길게 한다. 조상거리에서 배를 갈라 준다. 진진오기와 진오기는 차이는 없다. 길가르는 굿을 진오기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진진오기라 한다.

바리공주는 조상거리에 한다. 바리공주는 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설이 듣기에 좋기 때문에 굿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요구한다. 예전에는 책을 읽어 주는 사람들이 남자였는데 여자인 만신이 읽어주면 듣기에 좋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해준다.

진오기할 때 불사맛이, 제석은 안 한다. 불교계통의 신은 안 모신다. 진오기는 사람이 죽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불사제석은 모시지 않는다. 대감놀이는 한다. 굿상을 차리고 죽은 혼을 불러올 때 만신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 죽은 사람의 혼은 조상거리할 때 들어온다.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한다. 혼이 들어올 때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혼이 들어왔을 때 자기정신을 안다. 조상이 아니라 혼이 들어온 것이다. 진오기는 죽은 사람이 좋으니까 가라고 한다. 대감 놀고 그런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한다.

예전에는 밤에 했는데 지금은 낮에 한다. 시골 사람들이라 밤에만 사람이 있지 낮에는 없어 밤에 했다.

진오기를 안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경우이다.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하였다. 꼭 해야 하는 경우는 물에 빠진 경우나 목맨 경우이다.

예전에는 3년이 되야 진오기를 했는데 지금은 함께 한다. 자리걸이 진오기를 거의 다 한다. 12거리를 하고 성주와 불사를 하지 않는다. 작두를 타지 않는다.

※ 2002년 1월 3일 조사한 진오기

장고, 징, 바라만 치고 하였다. 양동순, 박금선, 하박수가 참여하였고 징은 손님으로 온 남자가 쳤다. 굿은 박금선 만신과 하박수가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였다. 장소는 양동순 만신의 집이었으며 굿을 하는 동안 문을 열어놓고 하였다.

이 날은 아침부터 굿이 시작되었는데 운맛이 굿을 한 후에 진오기를 하였다. 이날 굿한 사람은 3년상을 치르고 하는 굿이 아니라 조상이 엉겨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오기를 했다. 운맛이에서는 12거리를 하며 가족들의 나쁜 액운을 미리 알아내어 막아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칼로 아픈 곳을 베어주는 듯이 하였으며 그 해에 조심할 것들을 알려 주었다. 운맛이에는 돼지 대가리를 쓴다. 산치성에는 소머리를 쓴다. 굿은 신을 모신 법당에서 하지 않고 조상상을 다른 방에 차려 그 앞에서 하였다. 조상상에 올리는 음식들은 방앗간에 맡겨서 해 온다. 조상상 위에는 냇종이를 만들어 올려놓았다. 진오기의 중요한 소품인 조상옷은 동대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있어 그 집에서 사온다. 이렇게 굿을 하는 비용은 250만원 정도이며 조상옷, 명다리하고 하면 5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비용은 총 300만원이 든다.

굿을 하는 날 아침에 그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다 풀어버리고 손님을 데려 온다. 옛날 진오기는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날은 사자놀이, 말미들이고, 도령돌고, 베 찢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자노는 것은 저승사자를 노는 것이다. 사자는 사람을 많이 잡아가면 계급이 올라간다. 도령돌기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뱅뱅 도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저승에 잘 가라고 하는 것이다. 버린 공주가 아버지인 임금이 죽게 되었을 때 뼈살이 살살이를 구해 아버지를 살렸다는 내용이다. 차근차근 하면 듣기 좋다. 노인들이 모두 앉아서 듣는다. 바리공주를 할 때 상 하나에는 조상옷과 길 가를 무명베를 올려놓으며 만신 앞에는 쌀을 세 무더기만 들고 그 위에 세발심지를 올려 놓고 한다. 바리공주를 할 때는 큰머리를 얹고 장삼을 입고 궁인의 모습으로 한다. 바리공주가 끝난 후에 쌀이 흘러내리면서 난 모양을 보고 조상이 죽어 무엇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새, 나비, 개 등이 되며 뱀이 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국수를 차려 제사를 지낸다.

길가르기는 무명베 위에 조상의 옷, 냇종이, 꽃, 한과 부스러기를 올려 놓고 만신이 허리에 베를 묶은 다음 허리로 베를 잘라낸다. 굿을 마친 후에는 문 밖을 향해 절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개를 벗긴다. 손님은 모두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웅크리고 앉으면 친구들 위에 창호지를 덮고 북어로 창호지로 덮은 위를 쓸어 북어를 버리고 계란도 집어던지고 잡곡도 창호지를 덮은 위로 뿌린다. 청개를 벗긴 후에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미리 차 시동을 걸어놓았다가 끝나는 말이 떨어지는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대수대명으로 사용하는 북어는 그 사람의 성, 이름, 나이, 생일을 쓴 것을 넣어 일곱 매듭으로 묶는데 죽은 사람 염습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계란에도 성, 이름, 나이, 생일, 대수대명을 하는데 계란은 상문을 잘 물리친다. 잡곡을 뿌린 것은 잡귀를 물러가게 한다.

대수대명으로는 보통은 북어로 한다. 아주 나쁜 경우에는 닭으로 한다. 정월의 홍수맥이에도 마찬가지로 대수대명을 만들어 한다. 손님들이 준비물을 해 오면 이곳에서 박수가 대수대명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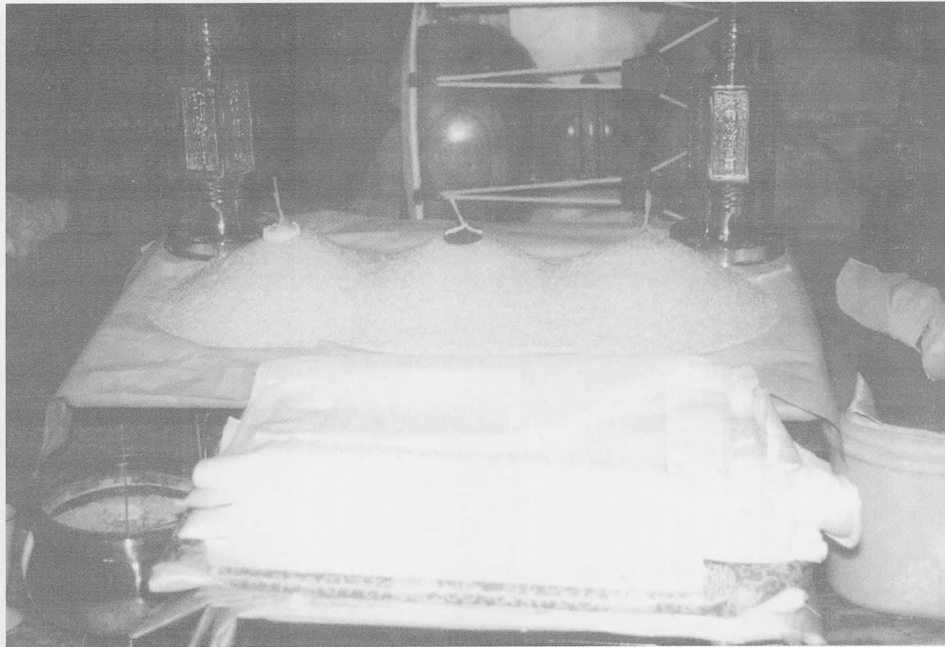
바리공주 (화전동)



청개 벗기기 (화전동)

※ 2002년 1월 8일 조사한 진진오기

원당의 최씨집에서 거행된 진진오기를 조사하였다. 72세의 할머니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 후에 자리견이와 겹하여 진행되었다.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었다. 굿을 정정자, 박금선, 하재용 만신이 진행하였다. 장소는 돌아가신 집의 큰방에 조상상을 차려놓고 거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고인의 남편과 자손들이었다. 진진오기에는 불사거리와 산맞이는 하지 않는다.



죽은 영혼을 알아보는 쌀더미

박금선 만신이 자리견이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뉘를 내리기 위해 준비한 뉘대는 상수리나무로 중간에 한지를 묶었다. 뉘대는 동네 할머니가 쌀을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담은 함지에 꽂아 오른손으로 잡고 앉아있다. 박금선 만신은 “뉘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뉘이 내리기를 기원하였다. 이때는 바라만 치면서 뉘이 내리기를 기원한다. 상주들은 모두 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신들은 곡을 해야 뉘이 내린다고 상주들에게 곡을 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몇 분이 진행되도 뉘이 내리지 않아 뉘대를 잡는 사람을 중년 여인으로 바꾸었다. 뉘대는 잡아온 사람이 잡아야지 처음 잡는 사람은 잘 안 내린다고 한다. 뉘대를 잡아도 뉘이 안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중년 여인이 뉘대를 잡고 몇 분이 지나 뉘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뉘대는 다시 일어나 상제인 딸을 치기 시작하였다. 딸은 마치 뉘대가 실제 어머니인 것처럼 “엄마, 좋은데 가라”하면서 온다. 뉘대는 다시 아들을 치는데 아들은 “엄마 마음 다 안다”고 대답한다. 뉘대로 아들을 치면서 서로 끌어안는다. 이렇게 뉘대로 자손들을 때리는 것은 자손들을 잊지 못해서라고 한다. 뉘대를 들고 다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와 상제들을 때린다. 뉘대가 딸을 때리자 딸은 “엄마 내 맘 알고 가셨어, 한도 풀고 원도 풀고 가라, 엄마 좋은 데 가라”고 한다. 자손들은 뉘대에 고인의 뉘이 내린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다. 그러면 뉘대를 쥔 중년 여인은 여기에 대답이나 하는 듯이 자손들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대답을 해 준다. 뉘대를 쥔 여인은 만신을 붙들고 울었고 만신은 “이제 뉘대를 주고 다른 대로 가라”고 하고는 방울을 흔들고 베를 찢어 뉘대에 내린 혼을 풀어 주었다.

다음으로는 시루에 쌀을 넣고 그 위에 세발심지를 올린 다음 창호지로 덮는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바닥에 쌀을 펴놓고 창호지로 덮은 후에 만신이 바라를 치면서 무가를 외운다. 이 무가는 노래형식이 아니고 경문과 같은 형식으로 앉아서 한다. 경문을 마친 후에 시루를 덮었던 창호지를 벗겨 내어 창호지에 겹게 그릇 모양을 보고 고인이 죽어서 무엇이 되었는지 알아맞춘다. 고인은 죽어서 황새가 되었다고 한다. 바닥에 깔아놓았던 쌀에도 새발자국이 나 있어 고인이 죽어서 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부정치기 과정으로 만신이 부정을 치는 거리를 진행한 후에 소금을 넣은 고춧가루물, 소금, 맑은 물을 들고 굿당을 한 바퀴 돈 후에 밖에 갖다 버린다. 한지에 불을 붙여 제장을 한 바퀴 돌린 후에 밖에 버린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장을 정화한다.

조상상에 촛불을 키고 굿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제들은 먼저 조상상에 제사를 지낸다. 군웅거리는 정정자 만신이 진행하였다. 아래는 붉은 치마를 입고 위에는 붉은 소매 남패자 위에 붉은 장삼을 입었으며 붉은 색 모자를 썼다. 노란색 부채와 방울을 들고 진행하다 삼지창을 몸 쪽으로 꺾은 자세로 자손들에게 공수를 준다. 군웅거리가 끝나고 사슬을 세운다.

신장거리는 정정자 만신이 진행하였다. 붉은 소매 남패자에 붉은 치마, 검은 모자를 쓰고 오색기를 들고 한다. 기를 뽑으면서 공수를 준다.



저승길 가르기

대신거리는 정정자 만신이 진행하였다. 붉은 치마에 노란색 쾌자를 입고 모자를 벗은 상태로 한다. 방울과 부채를 들고 하는데 박금선 만신과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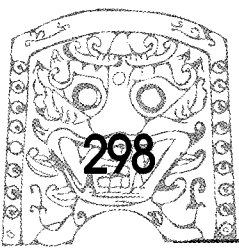
호구거리는 정정자 만신이 진행하였다. 무복을 벗고 붉은 치마로 앞을 가리고 하며 붉은 치마를 상제들 위로 휘둘러 호구를 데리고 간다.

장군거리는 박금선 만신이 진행하였다. 파란 치마에 연두색 쾌자, 남철릭, 파란 장삼을 입고 부채를 허리에 매고 하며 큰머리를 얹고 그 위에 붉은 모자를 쓴다. 큰머리와 모자 사이에는 창호지를 상제들 모두에게 만원씩 받아 한지로 싸서 넣는다. 월두천검과 삼지창을 들고 하며 굿이 끝나고 월두천검에 우족과 돼지머리를 꽂아 사슬을 세운다. 무복을 벗은 후에는 상제들 머리 위로 한 번 돌리는데 이는 잡신을 거둬 간다는 뜻이다.

조상거리는 박금선 만신이 진행하였다. 고인의 옷을 입고 흰 소창천을 들고 한다. 이 과정에는 남편도 참여하였다. 만신은 남편을 붙들더니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쓰러져서는 혼절한 모습을 보이며 매우 고통스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살아 있을 때 아팠던 모습이라고 한다. 한참을 고통스러워하여 냉수를 먹이고 베를 찢고 방울을 흔들며 정신이 들어오게 하였다. 만신은 “오늘은 만고 재판날”이라고 하며 가족들과 맺었던 감정을 모두 풀어낸다. 평소 큰딸과 오해가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풀어주지 못했으니 큰딸의 한을 남편과 아들이 풀어줘야 한다고 하며 서로 손을 잡게 하였다. 남편과 아들에게 큰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가족들간의 오해는 풀렸고 드디어 큰딸도 웃음을 띠기 시작하였다. 진오기는 고인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고인과 산자들의 오해를 풀어 살아 있는 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의례라 볼 수 있다.

만신은 또 자신이 죽었을 때 염습을 하던 과정 판이 나갈 때 운구할 때의 과정이며 산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신이 매우 만족했음도 표현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베 찢는 과정을 하였는데 만신이 한쪽을 잡고 다른 쪽은 상제들이 잡아 서로 잡아 당겨 찢었다. 만신은 “찢어야 편안하다”며 자손들에게 베를 많이 찢을수록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인과 상제의 이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의례라 할 수 있다.

조상거리는 밤 1시쯤 끝났는데 그 후의 과정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⑧ 결혼굿

결혼굿은 총각이 죽은 도령귀와 처녀가 죽은 손각시를 결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조사는 두 가지 예를 조사하였다.

방영희 박수에게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 전쯤에 해 본적이 있다. 해질 무렵 한다. 인형을 짚으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써서 붙이고 만신이 뭐라고 주문을 외면 서로 붙는다. 혼이 내리면 서로 붙고 서로 등을 지고 있으면 안 됐다고 다시 한다. 여자는 노랑 저고리에 빨강 치마. 남자는 도령복을 입힌다. 제웅처럼 만든다. 인형은 동네 사람 아무나 만들어도 된다. 잘 된 것은 마주 앉아보고 잘 안 된 것은 돌아선다.

12거리를 다 하지는 않는다. 부정치고 굿처럼 하다가 맨 나중에 한다. 불사, 제석, 성주를 하지 않는다. 조상거리는 한다. 만신이 서로 합의 받아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죽어서라도 좋은 대로 가라고 한다. 합방을 시킨 후에 물어버린다. 아무데나 묻는다. 대개 남자쪽에서 요구한다.

김현규 선생님에게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굿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떡으로 사람을 만들어 키에다 올려 놓고, 만신이 혼자 한다. 진언을 해서 치면서 하면 둘이 붙는다. 낮에 한다. 별도로 이것만하지 잡이를 치고 하지 않는다. 아주 어려서 집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 남자쪽에서 많이 요구한다. 방석 위에 올려놓아 축등(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마을 밖에 버린다. 축등은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나무가 드문 드문 있는 곳이다. 텀부살이로 쓰레기 갔다 버리는 곳에 갔다 버린다. 원래 축등은 이런 곳이 아니나 축등이 없어 이런 곳에 버렸다.

⑨ 물 굿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을 모시는 곳이다. 상패라고 120세 정도 된 사람이 85년 전에 돌아갔는데 선달에 돌아가셨다. 저수지가 없어 동을 막고 물을 채웠는데 상패는 동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비가 오니까 쇠스랑을 가지고 흙을 잡아당기다 자루가 빠져 물 속에 빠졌다. 물굿을 할 때는 만신이 물 속에 들어가 혼을 건져 온다. 그 다음 해 물이 녹은 다음 혼을 건진다. 만신이 난목소창을 허리에 매고 병을 하나 허리에 매고 춤을 추다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 속에 병을 넣었다 꺼내어 병 속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냇을 건졌다고 한다. 병의 입구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창호지로 막는다. 없으면 건질 때까지 계속 들어간다. 냇이 건져지면 만신은 건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냇을 건진 다음에는 진오기를 한다. 물에 빠진 경우에는 반드시 한다. 진오기를 꼭 하는데 진오기를 안 하면 혼신이 저승에 못 가고 이승에서 돈다고 하여 꼭 한다.

⑩ 병 굿

병굿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우환굿의 일종이다. 예전 무당에게 있어 치병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였다. 이전의 고양시 만신들은 일정 정도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치료와 굿을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정자 만신의 신어머니의 경우 침을 잘 놓았으며 시어머니의 신어머니는 골머리 만신은 침을 잘 놓았으며 머리에 사는 적기라는 기생충을 잘 잡았다고 한다. 이들의 계통을 잇는 정정자 만신의 경우에도 병굿을 잘 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우리 민족은 몸이 아픈 것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병과 같이 살았으며 또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물었다. 따라서 병이 났을 경우 만신의 굿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것이었다. 방영희 박수에 의하면 “4~5년 전에는 병굿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양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무속에 있어서도 치병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굿은 만신이 하는 경우와 소경이 하는 경우가 있다.

김현규 선생에게 조사한 내용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목수일 할 때였는데 사람이 찾아와 소실이 병이 났다고 경을 읽으니 소경이 나를 찾아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경은 소경이 혼자서 읽는데 영이라는 이름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굿을 하였다. 병굿은 3일을 하는데 옥주경으로 귀신을 몰아낸다. 경을 읽을 때는 3일은 읽어야 하며 억센 귀신의 경우 7일을 읽는 경우도 있다. 초부정은 귀신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떤 신장님이 와서 기둘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 며칠을 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초다짐이라 한다. 억센 귀신이면 더 오래한다. 초다짐을 해 보니 그날로 사람이 죽어가 어쩔 수 없이 그날로 귀신을 잡았다. 신장대는 나무가 짜개질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야 한다. 꼭 잡지 않으면 섯대가 내려 버린다. 섯대는 약한 것이다. 섯대는 어깨가 찌릿찌릿 하지만 신장대는 발뒤꿈치부터 올렁거린다. 억센 귀신이 많을 때는 굵은 복숭아 나무 50cm가량 되는 것으로 5개를 만들어

다듬이돌에 때는데 나무가 머릿가락 피듯이 한다. 그럴 정도로 억센 귀신이 있다. 장님이 미친 병 고치는 것은 80~90%는 고친다. 별안간에 미치는 병은 거의 다 고친다. 배탈이 났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전에 완벽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신에게 의존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몸살이 나도 경을 읽었다. 닭으로 대수대명을 한다. 닭이 사람 대신 죽는 것으로 닭에게 대수대명으로 가라는 푸념을 하고 닭은 땅 속에 묻는다. 닭이 사람 대신 죽는 것이다. 환자의 옷도 태워버린다.

소경은 혼자서 하지만 무당은 여럿이 한다. 적어도 3명은 온다. 째이까지 하면 모두 4명이다. 깊은 병인 경우 정식 곳을 하며 12거리를 다 한다. 안 하는 거리가 없다. 역시 대수대명할 때는 닭을 쓴다.

정정자 만신에게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곳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키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산에 탈이 났다든지, 조상이 원한기가 있는 경우, 집을 지을 때 맞은 주당, 초상집에서 맞은 주당, 돌음식, 잔치집 어디에서 주당을 맞았는지 포인트를 잡으면 고칠 수 있다. 환자에게 비비거나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옷을 닭에 묶고 매장하듯이 한다. 굿당을 빌려서 한다. 사람을 앉혀 놓고 벗겨주는 것이다. 12거리를 다 하고 마지막에 한다. 머리카락 3개, 손발톱을 빼서, 중환자인 경우 쌀을 나이대로 세어서 침을 발라 닭에게 먹이고 닭에게 환자의 옷을 입혀 일곱 마디를 묶고 동전 일곱 개를 넣어 환자에게 닭을 안고 있으라고 한 후에 사람을 신문지 등으로 씌어 놓고 살을 벗겨 준다. 종이를 덮은 위로 오곡, 소금을 돌리고 칼을 돌리고 물과 불을 돌리고 천을 찢어서 벗겨 버리는 것이다. 응어리가 지게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얹어놓고 우로 좌로 달구질을 해 준다. 환자의 머리의 위치를 바꾸면서 한 번 바꿀 때마다 세 바퀴씩 돌아 총 9바퀴를 돈다. 각성반이 세 사람이 한다. 예전에는 수수깡을 들고 했다. 예전에는 소똥을 세 삼을 떠서 훑하고 그 사람 위에 올려놓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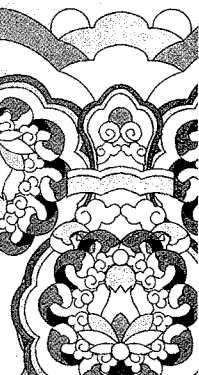
대수대명 귀신을 빼내서 대신 죽이는 것이다. 무당은 뒤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까 죽든 말든 하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무당이 하다가 죽으면 감옥을 간다.

고칠 수 없는 병은 원점을 대신말명이 옮겨주고 있어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원인이 찾아진다면 고칠 수 있다. 병의 요인을 찾으면 고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소를 잘못 만져서 아픈 경우에는 동법을 먼저 잡아야 한다. 12거리를 다 한다. 배가 고프는 때 밥을 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모든 구석을 다 나눠줘야 한다. 동법 잡는 것은 부적을 내려 예방을 하여 팔진을 쳐서 한다. 12거리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잡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다. 동전, 부적, 소금, 고춧가루, 결명주사를 가지고 한다. 오방을 질러서 구덩이를 파고 누르고 네 구덩이에 묻어준다. 기를 눌러준다. 소금, 고춧가루는 잡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금, 재,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

허영순 만신에게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닭으로 병을 옮겨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닭을 보이지 않게 보자기에 싸서 문병은 것처럼 꾸미고 병실로 간다. 환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닭을 환자의 몸에 비빈 다음 산에다 묻는다. 환자에게 귀신이 붙었을 경우 귀신을 닭에 옮겨 닭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닭을 대수대명이라고 한다. 대신 죽는다는 뜻이다. 병실에서는 안되니까 환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닭을 몸에 비빈 다음 살아 있는 닭을 산에 가지고 가서 땅에 묻는다. 보통 닭으로 한다. 작년에는 돼지로 했는데 사지를 묶어놓고 추운데 떨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당이 칼을 질러서 피를 내면 옷에도 묻고 잔인하다. 지금은 못한다.

암 같은 것은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한다. 굿을 할 때 환자가 별떡 일어나 춤을 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귀신의 병에 걸린 경우로 귀신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중풍은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병이기 때문에 굿으로는 고칠 수 없다. 굿으로 귀신의 병은 쫓지만 육신의 병은 쫓을 수 없다.



⑪ 행주산성제

2001년 10월 5일 행주산성에서 거행되었다. “고양시 번영 발전 기원 행주산성 산신굿”이라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행주산성 진오기 굿을 하였다. 싸움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은만 사장이 굿을 해주자고 해서 처음 시작하였다. 95년 권을 장군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여 권을 장군 진혼굿을 하였다. 그 당시 동네에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다. 쌍초상이 나고 젊은 사람들이 객사를 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다. 굿을 한 후에 마을에 우환이 없어져 3년간 매년 도당제식으로 추렴을 하여 굿을 하였다. 장군님상 외에도 동네에서 추렴을 해서 산신상을 따로 하나 보고 돼지도 한 마리 잡아 올렸다. 행주도당제식으로 형태가 변해 거행되고 있다. 4년째 되는 해부터 행주문화제의 일환으로 거행되면서 시에서 200만원씩 보조금이 두 번 나왔다. 예전에는 4월 30일날 전야제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10월 달에 했다.

굿을 하는 목적은 장군님의 평안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행주산성제를 거행하는 이유는 당일 문화원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놈들이 평양까지 지배하였는데 압록강만 건너면 일본의 속국이 될 상황이었으며 선조는 의주까지 몽진을 한 상태였다. 명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여 이여송이 4만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 고양리의 벽제까지 와서 싸움을 하다 일본군에 대패하였다. 이여송은 황해도까지 회군하였는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권을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권을은 43살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집안의 힘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산천을 돌아다니며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을 배웠다. 각지를 다니면 인심을 쌓았다. 어려서는 어머니가 비단옷을 입혔으나 입지 않았다. 비단옷을 입으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다 하여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덕을 쌓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었다. 전라도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는데 이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며 오산의 독산성에서 큰 전투를 하였는데 지혜를 발휘하여 마을을 구원하였다. 권을 장군이 발휘한 지혜는 말을 물로 목욕시킨 것으로 일본놈이 생각하기에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있다면 군량과 힘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러갔다고 한다. 원래는 아현동에 진을 치려 했으나 부하가 행주산성이 좋다고 하여 행주산성에 진을 쳤다. 권을 장군은 부하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병사가 얼마 안 되어 2~3백명 정도의 군사가 4만의 일본 군사와 맞섰다. 치마 부대, 즉 주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승병이 합세하여 일본군사가 7번 공격하였으나 모두 물리쳤다.

일일이 병사들을 독려하고 군사들을 돌보는 덕장이었다. 일본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여송이 황해도에서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불거져 다시 이곳으로 와서 한양으로 진격하였다. 이순신처럼 훌륭한 장군이 권을이다. 이곳에서는 많은 병사들이 죽고 민간인이 죽은 곳이다. 적국인 일본의 병사들도 죽고, 억울한 혼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를 지켜 준 혼이 서려 있는 곳이다. 문화원에서 혼을 위로하고 일본사람들의 영혼도 달래기 위해 이 굿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3년에 한 번 거행하고 있다.”

행주산성제에서는 권을 장군 외에도 선거이 장군, 권을, 뉘할머니, 처영, 조정장군을 모시고 있다. 선거이 장군은 이순신 장군 밑에서 일을 하다 권을장군이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와서 싸웠다고 한다. 현재도 강매동 1리 매화정에는 보성 선씨가 100여 집 산다. 처영 장군은 스님이었다. 역사에 행주산성에서 전투를 했던 사람들을 모시는 것이다.



행주산성 산신굿의 깃발



행주산성 산신굿의 행주대첩 주장군 위패

굿상은 다양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굿상의 앞에는 빨간바가지에 고춧가루물과 맑은 물을 놓아 두었다. 이 물은 부정을 가시기 위해서 놓아두는 것이다. 굿상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추렴을 하여 차린 도당상이 차려져 있었다. 이날 굿을 할 때는 돼지가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굿상을 준비하는 쪽에서 준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에서 준비한 것이다. 굿을 하는 입구에는 짚신 여러 켤레와 3인분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잡신을 먹이기 위한 것이다.

굿은 아침 10시가 넘어 시작하였다. 정정자 만신이 담당을 하고 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굿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멀찌기 앉아 굿을 구경하였다.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는 도당굿이나 가정굿보다는 참여도가 떨어졌다.

굿은 부정을 가시는 거리부터 시작되었다. 만신들은 모두 흰색의 한복을 입었다. 정정자 만신이 한지에 불을 붙여 제당을 돌면서 부정을 가신다. 몇 번 휘두른 후에 던져 버린다. 그 다음 장군님에게 새 칼을 바친다. 대동회 회원이 절을 하고 만신들이 절을 한다. 굿은 12거리가 진행되었으나 성주거리는 제외된다. 이 중 장군거리는 굿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장군거리는 정정자 만신이 진행하였으며 남색 치마에 연두색 쾌자, 남철릭, 남색 장삼을 입고 붉은 모자 쓰고 굿을 하다 다시 장군복으로 갈아 입고 장군모자를 쓰고 장군거리를 진행한다. 장군의 행위를 모방하여 칼을 들고 위엄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활을 쏘는 흉내를 내기도 한다. 장군이 칼 두 개를 들고 전쟁을 지휘하는 장면 등을 연출한다. 신장 칼 두 개를 들고 춤을 추면서 손목에 그어 보고 목에도 찔러보고 칼을 혀 끝에 대 보기도 한다. 다음에는 신장칼로 돼지의 머리와 등부위를 찌른다. 칼로 사방을 휘저은 후에는 칼을 던져 버린다. 돼지를 발로 밟고 꼬리도 들었다 놔다 한다.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하는 행동을 하는데 아마도 장군의 위엄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인다. 돼지에 술을 뿌린다.



신의 위용을 보여주는 정정자 만신



사늘 세우기



작두타기 전 신의 뜻을 알아보는 장면 (칼을 혀에 맨다)

작두를 받아 들고 춤을 춘다. 작두를 불에도 대고 혀에도 맨다. 혀끝을 작두날에 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비손을 한다. 혀끝을 작두날에 대고 혀끝으로 양쪽을 오가는데 매우 위험에 보이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한다. 물에 발을 씻고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칼을 두 개 입에 문 채로 작두에 오른다. 작두 위에서 무릎을 구르면 춤을 춘다. 작두 위에서 무가와 공수를 하면 사람들은 모두 작두 위의 만신을 보면서 빈다. 오색기를 들고 기 뽑기를 한다. 시루떡을 머리에 이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춘다. 작두에서 내려온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발에 방울을 흔들며 댕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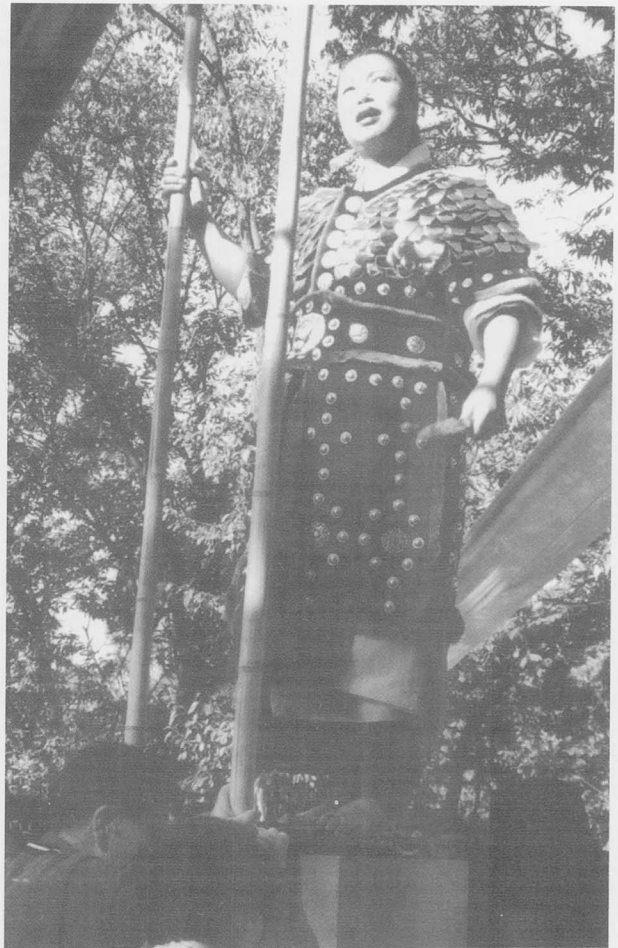
위의 장군거리는 행주산성제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장군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다. 원래 도당제에는 작두를 타지 않는 것인데 행주산성제에서 작두를 타는 것은 산을 자르고 물을 막고 전쟁 중에 여러 영혼이 죽어 원혼이 많기 때문에 작두발로 누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 행주산성제는 95년도에 처음 새로 시작된 곳으로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곳의 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⑫ 최영장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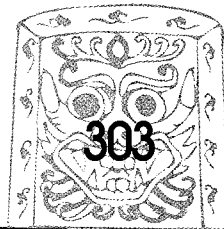
예전부터 이곳에서는 최일장군이라고 해서 최영장군을 중시하였다. 덕물산 꼭대기에는 최일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다. 만신의 조상은 덕물산이라고 하여 큰곳을 하는 만신은 명다리가 모두 덕물산에 있다.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일년에 한 번씩 그곳에 다녀왔다고 한다. 도당제를 지낼 때도 덕물산에 가서 고한 후에 돌아와서 도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은 덕물산을 중시하였다. 이곳에서 최영장군을 중시하는 것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가까워 고려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원인이 되겠으나 그보다는 최영장군의 비범한 행적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최영장군은 충신으로 고려를 살리려다 이성계에게 목숨을 빼앗겨 돌아가신 분이다. 최영장군은 칼로 아무리 목을 베어도 다시 붙어 죽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첩이 간괴를 부려 칼로 베어 떨어진 목에 재를 뿌려 다시 붙지 못하여 최영장군은 죽게 되었다. 그때 목이 떨어질 때 덕물하면서 죽어 덕물산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덕물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만신들은 벽제에 있는 최영장군 묘에 칼이나 방울을 꽂아 놓아 장군의 힘으로 곳을 하고자 한다.

고양시 무속인들이 최영장군을 위한 곳을 개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었다. 처음 시작된 것은 97년으로 99년에 하였고 2001년인 올해 거행하였다. 그 시초는 고양시의 무속인들은 모두 장군님굿을 하고 있고 또한 고양시에 최영장군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경신연합회에 속해 있는 무속인들이 최영장군의 넋제를 지내주자고 합의가 되어 시작하였다. 처음에 합의된 것은 10만원씩 돈을 내서 하기로 하였으나 잘 진행이 되지 않자 정정자 만신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박인호 씨와 함께 최영장군제를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날이 없었으며, 10월 달에 행사가 많다고 하여 시에서 봄에 해달라고 하여 앞으로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01년에는 9월 29일 벽제 관산동 고수부지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과정은 행주산성제와 같으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최영장군의 묘에 가서 혼령을 모셔온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작두 타기 (정정자 만신, 행주산성제)



(3) 굿의 절차

① 양동순 만신에게 조사한 12거리

서울굿과 고양시 굿은 같다. 시골은 거리를 딱딱 떼서 논다. 옛날에는 주당물리고, 부정치고, 부정말명 초대감, 서낭놀이, 불사맞이, 장군별상, 신장대감, 안당제석, 조상, 성주, 창부, 뒷전을 놀았다. 그리고 지신도 놀고 맹인도 놀았다. 부정을 칠 때는 부정가망, 대신가망을 놀았다. 부정말명은 초대감을 노는 것으로 호구말명, 대신말명을 불러오는데 말명은 죽은 신을 말한다. 이들을 청배해서 대신칼로 부정을 몰아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서낭, 초대감, 만수맞이, 노래가락하는 것도 없어졌다. 요즘은 많이 생략하고 한다.

② 김현규 선생님에게 조사한 12거리

굿은 모두 12거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신마다 다르고 무복도 만신마다 다르다.

부정거리 : 무색옷, 흰옷. 무복을 입지 않는다. 부정은 굿하기 전에 만신 혼자서 장고만 치면서 하는 것이다.

주인도 나가야 한다. 소까지 몰고 나가는데 집을 싹 비운다. 이를 초부정이라 하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온다. 부정은 알리는 것이다. 굿을 하니 잘못된 것이 있어도 후이 잘 받아주십사 하고 청배하는 것이다. 고유제와 같은 것이다.

가망거리 : 뒷대감을 모신다. 어병거리가 뒷걸에도 있고 헛간에도 있다. 어병은 입을 말한다. 마굿간에도 있고 본인의 댁에는 외양간하고 광에 모셔놓은 것을 보았다. 버를 항아리에 넣어두었다.

제석에는 쌀을 넣어둔다. 두꺼비, 구렁이, 족제비를 말한다. 두꺼비는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떡과 손은 큰 것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개구리 종류이지만 크기 때문에 모신다. 집구렁이가 있었는데 구렁이가 돌아다니면 잡지 않았다. 그러나 구렁이가 나타나면 집안이 덜 좋다. 집안이 망할려면 구렁이가 서까래 밑으로 돌아다닌다.

말명거리 : 죽은 아기를 모시는 것이다.

별상거리 : 별상장군님을 모시는 거리이다.

성주거리 : 성주님을 모시는 거리이다.

신장거리 : 집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모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장대감을 모신 집도 있고 몸주대감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몸주대감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대감독이라고 하여 대부분 모신다.

대신거리 : 벼슬한 관리를 모시는 것이다.

조상거리 : 집안의 조상을 모신다.

제석거리 : 삼불제석을 모시는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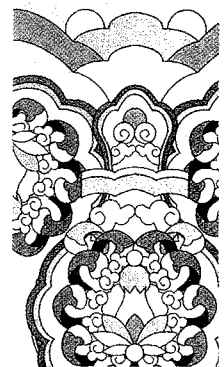
불사거리 : 제석거리와 같이 한다.

군웅거리 : 굿하는 곳에 와서 병이 나는 것을 군웅살을 맞았다고 한다. 혼인과 환갑은 추당살이고 장사는 중복살이라고 한다. 만신들을 불러다 맞은 살에 대해 पू다.

뒷 마 당 : 다 놀고 잡귀 잡신 잘 놀았으니 좋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창부거리는 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대감거리에서 창부대신을 놀린다. 창부는 노래하는 만신으로 소리하는 만신은 창부대신이 지펴야 하는 것이다. 박성기 박수는 큰굿을 많이 했는데 대감놀이할 때 창부를 놀 때면 그 사람을 불러다 했다. 소리 잘 하는 만신이 대감놀이를 한다. 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때 만신에게 주는 돈을 별부라고 한다. 상산거리는 도당굿할 때 한다. 산신을 모시는 것이다. 호구거리는 별상거리에 들어간다.

소놀리는 것은 신사굿과 경사굿에 한다. 소를 만들 때 사람이 7명이 들어간다. 지금은 소를 만들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7명이 구부리면 그 위에 명석을 덮어 대충을 소의 몸체를 만들고 쇠대가리는 거물개로 하였다. 완벽하게 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충 소의 형상을 만들어 마부와 만신이 주고 받는 대화가 중심이 되는 놀이이다. 예전에는 술이 흔하지 않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소 안에 들어가 소한테 술을 주면 안에서 받아먹는다. 소가 비계질하며 상기둥에 비비면서 장난을 친다. 소놀이굿은 따로 없다. 소가 병 없이 일 잘 하게 해달라고 제석거리 끝나고 노는 것이다. 제석거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의 소놀이굿은 창작품이라 봐야 한다.

작두는 병곳이나 내림곳할 때 탄다. 작두대신이 있어 작두대신이 지퍼야 탄다. 아무나 탈 수 없다. 작두를 타는 만신은 큰만신이라 할 수 있다. 영한 신이 내려야 잘 불린다. 개대가리 물 끼얹는 만신 곳을 잘 하지 못하는 만신을 말한다.

③ 정정자 만신에게 조사한 12거리

12거리 속에 12거리가 있다. 상산거리에서 12거리, 제석거리가 불사거리인데 여기에도 12거리가 있다.

주당 물리기 : 악한 신은 내쫓고 선한 신은 두들겨서 깨운다. 악한 신을 두들겨 깨울 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밖으로 내 보낸다.

부정거리 : 동네나 산의 부정을 쳐서 신을 청배하는 것. 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상 거 리 : 본향이라는 것은 타향에서 살기 때문에 본향의 산을 당겨서 오는 것으로 도당에 사는 곳의 부군이다.

붉은장삼을 입고 한 것은 산에 들어가 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산거리도 열두거리 본향 도당, 부군, 군웅을 논다. 3마디로 공수를 나누어준다. 도당제를 지낼 때 한다.

가망거리 : 집안에 무당이 된 조상을 모신다.

말명거리 : 말명도 가망과 비슷하다.

불사거리 : 삼불제석을 모신다.

상산거리 : 관우장군님을 모신다.

장군거리 : 장군님 거리에 들어간다. 거리에 속하지 않고 불사맞이하고 장군님놀이를 하고 작두를 한다. 장군님옷을 입어 장군이 실렸을 때 모습을 하는 것. 실리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것이 없다.

별상거리 : 장군 별상이 상산에 끼는 것이다

신장거리 : 신장님을 모시는 거리

대감거리 : 가사굿을 할 때는 조상 중에 높은 할아버지들이 대감신이다. 산대감을 논다. 대신이 있다. 도당에서 불리던 대감은 놀이굿이다.

조상거리 : 일반적인 죽은 조상을 모신다.

호구거리 : 마마에 걸려 죽은 사람들로 붉은 보를 쓰고 그 집안에 액운을 거둬 간다.

성주거리 : 집안의 세성주를 모시는 것으로 황제풀이를 한다.

창부거리 : 관재수 재난을 막는다. 홍수맥이할 때는 창부를 막는다. 창부는 신도 아니다라는 말도 한다. 놀이를 마무리 짓는 한량신이라고 한다.

뒷 전 : 잡신들을 먹여 보내는 거리이다.

병곳에는 그 집안에 액운이 있다 해서 작두를 탄다. 환갑에는 잘 타지 않는다. 신이 차고 든다든지, 만져서 부정을 탔다면 작두를 탄다. 우환곳에 많이 탄다. 경사곳에는 안 탄다. 사람이 죽어 부정하기 때문에 안 탄다. 작두를 솥돌에 갈아야 편하지 칼날이 무디면 작두를 타는 것 같지 않다. 작두를 타는 것은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과 나와의 관계로 신이 내려야 탄다. 장군별상이 내려야 한다. 허끝, 손에 대보는 것은 부정을 탔으면 섬짓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다. 만일 부정이 탔으면 그날은 작두를 못 탄다. 작두를 탈 때 두렵지 않으며 작두에 올라갔을 때 세상이 모두 내 것 같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하다. 작두에 발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때 힘들다. 예전에는 작두를 많이 타지 않았다. 요즘에는 많이 타고 있다. 산을 깔아뭉개고 물줄기를 막아 혈을 막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겨 작두발로 누르기 위해 작두를 탄다. 행주산성굿할 때 작두를 타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④ 방영희 박수에게 조사한 12거리

부정거리를 치고 상산거리, 장군, 별상 신장거리, 산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부정거리 한 후에 상산거리를 한다. 성주거리를 한다 하면 도당굿을 할 때는 다르다. 도당굿과 잡 안에서 하는 곳이 다르다.

집안에서 하는 것으 부정거리, 상산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집안성주), 불사거리, 제석거리, 창부거리, 조상거리, 뒷전, 뒷전도 거리에 들어간다.

도당굿 할 때는 부정거리 상산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도당성주 거리성주는 집안의 우두머리이다. 집안의 집안 성주를 도당은 도당성주를 모시는 것이다. 무기는 한 가지이다.

(4) 무가

무가는 신어머가 장구를 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가르쳐주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으나 지금은 녹음테이프를 듣고 배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바리공주와 황제풀이를 해야 큰만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고양시에 5~6명 정도 있다고 한다. 바리공주는 진오기에 부르기 때문에 아직 계승되고 있으나 황제풀이의 경우는 신사굿에 부르는 것으로 요즘은 신사굿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계승이 되지 않고 있다. 양동순 만신의 경우에도 황제풀이를 배워 겨우 세 번을 불러봤을 뿐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무가는 정정자 만신의 시어머니인 소만이 김봉순(1910년생) 만신이 생전에 불렀던 무가를 필사해 놓은 내용을 옮긴 것이다.

※ 진적재수초부정거리마달

영정가망 부정가망

날니도(날리로간)부정 존물도부정

산에올라 산망우리도부정 들로내려 들망우리도 부정

마당너구 땅너구리도 부정이요

말을 잡아 대마부정 소를 잡아 우마부정

개를 잡아 피부정 닭을 잡아 살성부정

동내부정 마을부정

물 근너오든(건너오든)부정 들 근너오든(건너오든)부정

사람 죽어 두엄부정

귀로 뚫면(들은)부정 입으로 원간(외운)부정

손으로 만진부정 여자치마폭에 싸여오든(던)부정

우마도 부정 백마도 부정

흰나비 백나비도 부정 은하수 곡성부정

마주쳐 보던 부정 고개 고개 넘던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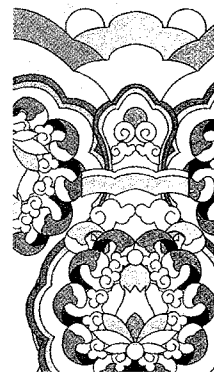
전우아부정은 진시리물이쳐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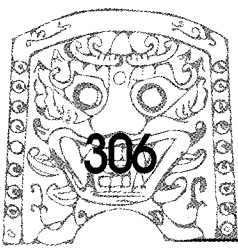
※ 시위드러소사햇쌍년마달

햇쌍년으로는 아무 년 아무 달 아무 일이 읊(없고)고

거주지점은 아 무동네 사시든니

재수면 재수라고 하고 진적이면 진적이라고 하고 지노기면 망제느서 하고





제4장 민간신앙

※ 시위드러소사 호구말명

사위로 삼당호구 국내로 제당호구
 강남은 흥씨호구 우리 나란 이씨호구
 두데린님 수자호구 열네애기 당자호구
 왕십리 수풀당 애기씨호구 서두물 물마누라 물호구
 선바위로 미력호구 왕십리 부인호구
 동과남묘 남과남묘 위패 모시든(던)
 두주대왕 양전호구 강남은 사신별쌍호구

※ 시위드러소사 불싸(사)마달

사위로 삼당불싸 국내로 제당불싸
 청궁불싸 일월불싸
 해 가도다 일광불싸 달리도다 일광월광
 양일광에 빗치워서(비추워서) 나옹불싸
 백항아리 진동불싸 바다로 용왕불싸
 신에불싸 부리불싸

※ 시위드러소사 제석마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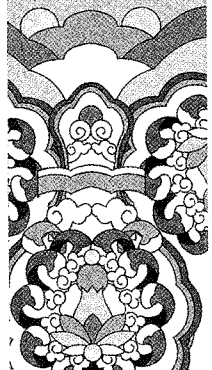
대암제석 전제석 천지권권 일월용왕
 황사제군 불싸제석 자사치로 고깔제석
 숙(석)자 세치 후대제석 박아지로 녀출제석
 해 가도다 일광제석 달리도다 월광제석
 유다락에 으구제석 백항아리 진동제석
 불싸제석님이 비린내도 금하시고 누린내도 금하시든 불싸제석님 안니시리
 아들애기 딸애기 줌(점)지하시든(던) 제석님 안니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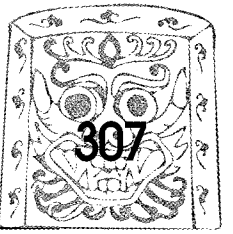
※ 시위드러소사 칠성마달

동도칠성 남도칠성
 서도칠성 북도칠성
 한기운데 삼태육성 위하든 칠성
 대한칠성 칠성님 소위에서
 아들이기 따님애기 서립하시든
 칠성님 아니시리
 신에 칠성 부리 칠성 도와주시고
 쟁겨 주시든 예바르고 동 바르고 으구찬 칠성님
 재수사망 쟁겨주옵소서

※ 시위드러소사 신장마달

천궁신장 일월신장
 팔만신장 육합신장
 둔갑신장 오방신장





신에 신장 위하든(던) 신장
대주에는 몸주신장 기주에는 직성신장
산에 올라 산신신장 드노나리어 들신장

※ 시위드러소사 대감마달

사위로 삼당대감 국내로 제당대감
이고량산 도당대감 부금(군)대감
으(어)사 돌든(던) 대감 술역 돌든(던) 대감
자취 보든 대감 명기 보이든 대감
압둘러선 시준대감 뒤뚱래선 하주대감
울안에선 터쫓대감 엄비영대감 긴업대감
대주는 몸주대감 기주에는 직대감
우무문전도대감이 도와주옵소서
독갑대감 산낭게 왕내대감 축근나지점대감

※ 시위드러소사 성주구능마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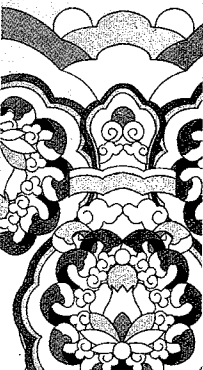
우청용좌백호 좌청우백호
청용백호 나(내)린 줄기에
사라대 오신 구능 아래대 오신 구능
상살바다 오신구능
한오백이 실각구능 으마구능 백마구능
염성주 복성주와 가성주대가
성주 천 년 대을(를) 느릴 성주
만 년 대을(를) 느릴 성주
조년성주 마흔 일곱
이년성주는 쉬흔일곱 한(환)갑성주
예순한나 종연성주 예순일곱 일흔일곱
노제성주 아홉 아들 한 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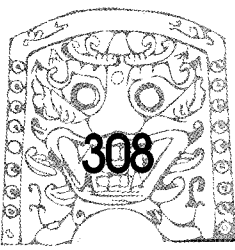
※ 시위드러소사 창부씨광대씨마달

앗싼광대 밧싼첻게 밧싼광대 앓산첻게
스무씨하고 녀털광대 소년출세 아이광대
설명도라 대신창부 이고량산 도당창부
으(어)른 창부는 통우 불고 아이광대는 옥저 불고
외줄 잡고 놀든(던) 광대씨 창부씨가
일년 홍수도 막어 주고 삼재팔난도 다 져쳐(져혀)주시고
드는 삼재는 명삼재 요묵는 삼재는 복삼재라
직성법도 다 막어(아) 주시기를 바라냅니다

※ 시위드러소사 서낭거리마달

북경서낭 남경서낭





제4장 민간신앙

사위로 삼당서낭 국내로 제당서낭
 덕물산 말허리서낭 영천고개 사신서낭
 고개고개 넘든(던) 서낭 여울여울 때묵서낭
 팔도명산 도시서낭 선바위로 미력서낭
 하주당 매달 왕신서낭

※ 시위드러서사 지신마달

동에 지신 남에 지신
 북에 지신 한가운데 오방지신
 사위로 삼당지신 국내로 제당지신
 천 연(년) 대를 느리시고 만 연(년) 대를 느려 주시든
 한가운데 원당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손도 발뚧(본)하게 도와주시고
 출야도 느려주신 지신니 안니시리

※ 시위드러소사 영산마달

사위로 삼당영산 국내제당 영산여영산 남영산
 산에 올라 호영산 물에 빠져 수살영산
 불에 타서 화덕영산 목을 매여(어) 재결영산
 차에 치여서 객사영산 엠병씨병가 든 영산
 못영떠영산니 많이 먹고
 원망 읊세(없이) 다 젖혀 주옵소서

※ 시위드러소사 글입(걸립)마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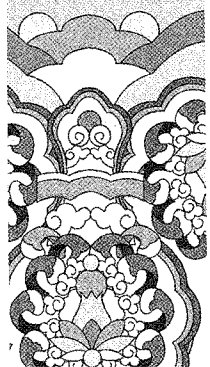
사위로 삼당글입 국내로 제당글입
 천궁글입 일월글입 앞문으로 시준글입
 뒤문으로 하주글입 엇차재차 무인글입
 고개고개 넘던글입 왔다갔다 왕내글입
 여울여울 때묵글입 대마우마 영마글입
 아무가중 재수가망 셈겨 주옵소서

※ 시위드러소사 맹인마달

곽곽선생 이순풍이 제갈공명 와룡선생
 사위로 삼당맹인 국내제당맹인
 설명고라 대신맹인 이고량산 도당맹인
 부리맹인 신에맹인
 열맹인 뜬 맹인 다젖혀주시고
 상덕입퍼 주옵소서

※ 시위드러소사 상문거리마달

일법상문 월법상문
 주작상문 백호상문





해 묵은 상문 달 묵은 상문

날 묵은 상문 눈으로 보든 상문

산을 너머 오든 상문 물 근(근)너 오든 상문

순세 명 때상문 아흔아홉 못상문이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소사

※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영정가망 노러나오 부정가망 노러나오

흐린 부정 맑은 부정은 모두 다 물리쳐 주옵소사

곳사위에섯천명 워리 나비 본 듯

※ 초가망거리마달

초가망 이가망 상가망 조라도 존물가망

말때 다러(따라) 오신 가망 설때 다러(따라) 오신 가망

말때는 설때요 근는 말러 채질하고 섰는 마래

석뵈쳐 오신가망 안니시리

사위로 삼당가망 국내로 제당가망

그연으로 삼산가망 육천전안 안즈난 삼천는 진중설명도라 대신가망

이고량산 도당가망 신에가망 부리가망

양산으로 변양(본향)가망 시위드러소사

수천년 수버냥 육천냥 육버냥

승주신버냥 씨주신양산버냥 할아버지 할머니요

오대는 봉사요 삼대는 공신인데

선대 다러(따라) 할아버지 할머니요

진주 따러(따라) 양위분 동생다러 할아버지 할머니요

하늘(늘) 아래 아부(버)지실영 땅 위로 어머니말명

앵모말명 게모말명 스(서)모말명 고모말명 숙부백부말명

삼사춘(춘)에 가 든 말명

오륙 춘(춘) 칠팔 춘(춘) 구십 춘(춘)에 가 든 말명

※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이승나배 저승나배 가든말명 호역마마 가든말명

사돈산돈 훗사돈 겹사돈 모두 다 오시라고 청배하온니

구조상 신조상이 밀건니 쓰건니

향길마루 꽃밧되여(꽃발되여) 씨근(씨은)손목 마주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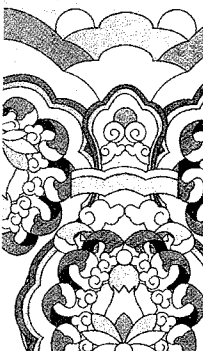
설상에 꽃 본듯이 눈진산에 나비 본듯이

스(서)신 데는 그늘 없고 안진(얕은) 데는 자치 옴씨(없이)

두어오시여 한 잔 수례(술에) 히망하시고

천금같은 스라(술하)자손 만금같은 손주방송

모도(두) 다 명과 묵을 태산같이 받들어 주옵소사





제4장 민간신앙

※ 번낭 노래가락

첼니소하오 번낭양산에 산에 올라
그염은 단신인데 구비설쌍에 도라든니
설상에 매화본 꽃이 나비본 듯

※ 버낭양산 오시는 길에

가야코(가야금)로 다리놀까
가야코는 열두 줄인데 어느 줄누(로)만 서교시나
줄 아래 덩기덩 소리에 논니라고

※ 버낭양산 자부신(잡으신) 잔에

잔마닥(마다) 이슬 매져(맺혀)
이 잔은 저 잔인데
지성이라고 쌍비오리 일광에
시 읊는(읊는) 잔에 스스라고

※ 인에 하위 하손니다

아무 가중에 인에 하위 임조차 하위려가
정성데린(드린) 데 덕이라고
마누라상에 상덕을 다 입힐까

※ 재수사망 섬겨을(를) 주소

아무 가중에 재수라고 재수와 사망인데
정성데린(드린) 데 재수라고
사도허여진 출냥 열쓴을 몬 듯

진적 데린다

도도리장구 굿거리장구
별쌍장구 뛰는 장구까지
치구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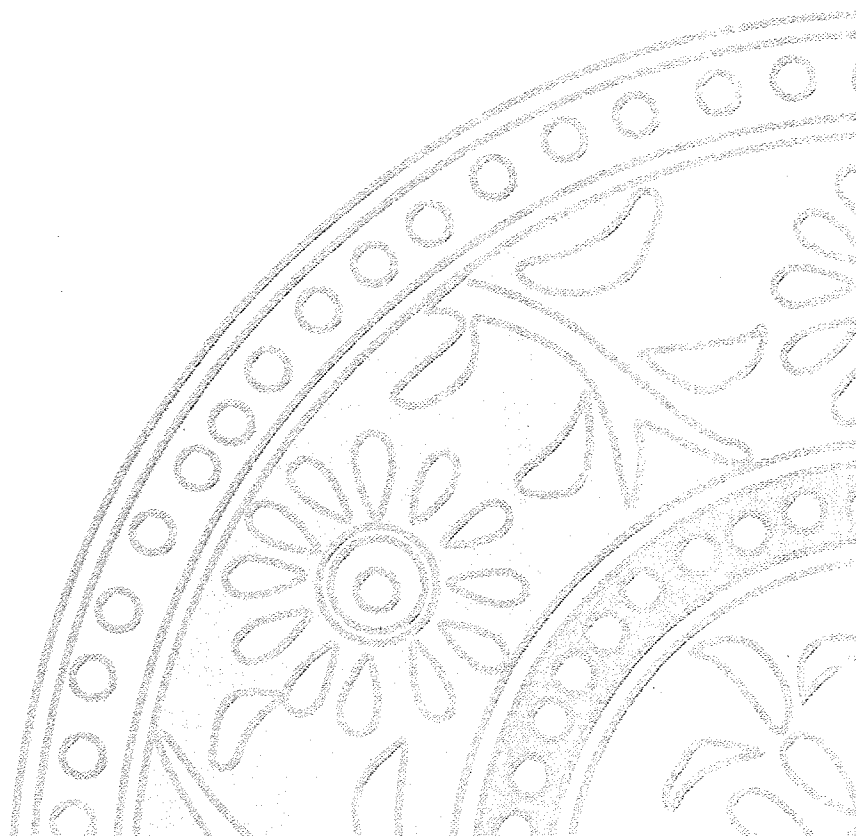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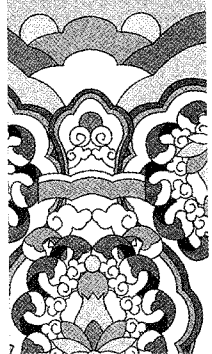
※ 상산노래가락

글늘리첫소 용가신데는 수이로다 수이라
김쑤건만 만경장파가 수이로다
나무라 영건지취을 김피물나

국마는 국기년마는 제마당에 존니로다
시절은 시절이오나 녀쑤안장군님
시절료나 승신니 오동입한니 갈길 몰라

나라로 알영을 하오

국가원당이 태령요나 국가도 태평요나





성안성내가 만만세
우리도 금주님 모시고 동낙태평

어이하여 못 오시나
무삼(슨)연고로 못 오시나
산이 넓퍼(높아) 못 오시나
물이 깊쑤와(깊소와) 못 오시나
춘추가 만사택하니 산무리겨워

장군별상 오시는 길에
비수창금으로 다릴 놀까
비수와 창금인데 나양성내로 서겨시나
줄 아래 덩기덩소리에 논니라고

장군별상 잡으신 잔에
황세주로 받드시나
황세주는 천일준대 백일주로 받드시여
일광에 시읍는 잔에 스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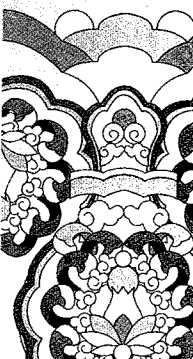
정성덕을 입소와지요
부모자손이 황국덕이요
황국어덕요나 정성 데린(드린) 데
덕이라고 마누라가 지은 상덕을 다 입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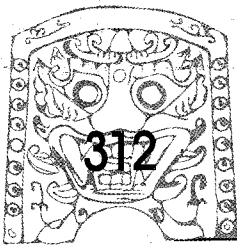
재수사망 섬겨를 주소
아무 가중에 재수라고 재수와 소망이나
정성 데린(드린) 데 재수라고 사도에
허여진 출냥 열쓴을몬 듯

제치소사(젓히소서) 제쳐을주소(젓혀를 주소)
요기사변을 제쳐주소(젓혀주소)
요기와사변인데 관제귀설도 다 저쳐주소(젓혀주소)
마누라 문전 하리도 다 젓칠까(젓힐까)

천만년수 빌너을(빌려) 왔소
부모자손 만년소(수) 만년수에 복을 빌고
천년수에 명을 빌어
삼천년 한 오백히니(년) 자손이 창성

거두(걸우)소사 거서더를(걸워를) 주소
아무 대주 아린간세 아리고도 쓰린간세
사대삭신을 다 거돌까
마누라 아게 약덜을 다 입필까





제4장 민간신앙

※ 불사제석 노래가락마달
그리놉수와 은어귀여 추원니요
춘추야 춘추로다
불사제석님 춘추로다
설명주 가사위떠나 돌는가

불사제석님 오시는 길에
은하수로 다릴 놀까
은하순 스기주린데
안개순풍으로 서겨시나
제석님 내로신 자취 인간이 몰라

불사제석님 자부(잡으)신 잔에
후추차로만 받으시나
후추차는 대추찬데
기피차로만 받으시네
일광에 씨읍는 잔에 스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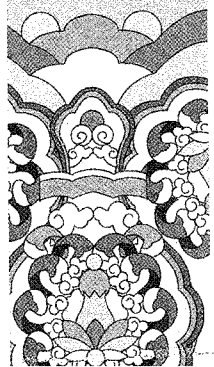
천만년수 빌너올왔소
부모자손에 만년수에 복을 빌고
천년수에 명을 빌어
삼천년 한오백한니 자손이 창성

※ 성주 노래가락
태산이 놉수건만(높으건만) 하늘 아래 무(되)이로다
무이라(물이라) 김수건만(깊으건만) 만경창파가 수이로다
성주님 영검수이을 깊이 몰라

성주왕신 오시는 길에
구름으로 다릴 놀까
구름은 다린데 어느 사이로 내료시나
성주님 내리신 후 소원성취

성주왕신 자부신 잔에 황세주로 받으시네
황세준 천일준데(천일주인데) 백일주로 받으시네
일광에 씨읍는 잔에 스스라고

※ 불사노래가락마달
그리놉수와 은어귀로 추원이요
춘추야 춘추로다 불사제석님 춘추로다
설명주 가사위 떠나돌는가 불사제석





※ 진지노기 부정거리

1. 진지노기 초부정거리마달

영정으로 부정이요
 날이도 부정이요 들이도 부정이요
 아리고 쓰린 부정 숨지고 낫진 부정
 피 흘려 가든(던) 부정
 어버(업어)내고 모셔내던 열씨왕에 사제부정
 흰나비도 부정이요 백나비도 부정이며
 은하수곡성부정 사람 죽어 두엄부정
 눈으로 보든(던) 부정 귀로 들던 부정
 해 묵은 부정 달 묵은 부정
 물 근너(건너) 오든(던) 부정 들 근너(건너) 오든(던) 부정
 동네부정 산 너머 오든(던) 부정
 모도(두) 다 진시리 물리쳐 주소사

2. 시위드러소사 호구거리마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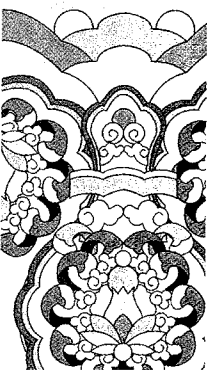
아리고 쓰린 호구 숨지여 가든(던) 호구
 열씨왕에 사제호구 열네 애기 당자호구
 두데린님 스자호구 왕십리 애기씨호구
 여러호구씨 애기가 망제님 극낙세계로 가시게
 촌도(천도)하여 주옵소사

3. 시위드러소사 햇쌍년마달

무슨 년 무슨 달 무슨 일에
 이 정성은 다름 아니오라
 아무 망제님 지노기 새남 받으시어
 왕생극락 승아재천 구원촌도(천도) 받으시어
 가시는 나리로슨니다
 지반(집안) 혼술 상인상주 여러복이니
 삼연곡계나게 하여 주옵소사

4. 시위드러소사 조상말명마달

아리고 쓰린 말명 숨지고 낫진 말명
 열씨왕에 사제말명 선대 후대 조상말명
 동생다러 양위말명 하늘아래 아버지실영
 어머니말명 앵모말명 스모말명





제4장 민간신앙

원만코한 마녀가든말명

삼대는 공신이요 오대봉신인데

오륙춘에 가든말명 칠팔춘 구십춘에 가든 말명

겹사돈 훗사돈까지 모도(두) 오시라고 청자하니

여러 조상님이 신망제 거느리시고

썩은 손목 마주 잡고 행길마루 꽃밭되어

눈진산에 꽃 본 듯이 설상(산)에 매화 본 듯이

거니 써거니

안지(앉으)신 데 잣지옴고 스(서)신 데 그늘 읊새(없이)

한 잔 술에 허망하시고 사망제 극낙세계로 보내주시고

천금같은 시라자손 준주같은 손주를 도와 주옵소사

5. 시위드러소사 대감마달

사위로 삼당대감 국내로 제당대감

이고랑산 도당대감 압(앞)문전에 세준대감 뒤문전에 하주대감

식신대감 보물대감 업대감 복대감 터쫓대감 어비양대감

여러 대감님 소위에서

대감님 위춘하는 정성이 아니오라

신망제 지노기하시여

극낙세계 연아대 가시라는 정성이오니

정성 드린 뒤 예 재수 열어 주시옵소사

6. 시위드러소사 성주구능마달

와가성주 대가성주 업성주 복성주

성주님 소위에서 장내를 길게 보시여

하곡마저 하오실제 만만이 위춘하것사오니

그리 아시길 바라나니다

7. 시위드러서사 창부씨광대씨마달

앗싼광대 밧싼챙게 수무씨하고 너털광대

아이하고 자넨광대 설명도라 대신창부

산진홍수 수진홍액 다젓쳐 주옵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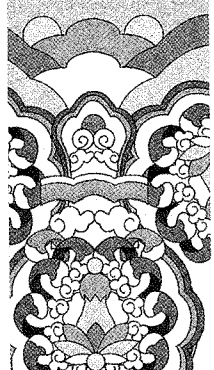
8. 시위드러소사 글입(걸립)마달

아린 글입 쓰린 글입 숨지여 낫진 글입

피 흘려 가든 글립 열씨왕에 사제글립

신에 글입 구리 글립

다 도와 주옵소사





9. 시위드러소사 서낭거리마달

아리고 쓰린 서낭 낫진 서낭
열씨왕에 사제서낭 어울여울 땔목서낭
따라 오든(던) 서낭 물어 오든(던) 서낭
뒤로 뒤전에 다 젓혀 주옵소사

10. 시위드러소사 영산마달

아리고 쓰린 영산 숨져서 가든(던) 영산
피 흘려 가든(던) 영산 열씨왕에 사제영산
산에 영산 부리영산 객사영산 집주영산
못영산 떼영산이 많이 먹고 침책 읊새(없이)
재수 열어 주옵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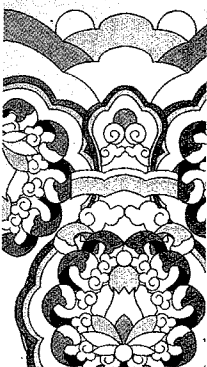
11. 시위드러소사 상문마달

월법상문 일법상문 주작상문 백호상문
눈으로 보든(던) 상문 귀로 듣던 상문
날상가에 가든 상문 은하수국성상문
선세 명 때상문 아흔아홉 못상문이
물한박 채단 밧(받)고
산 좋고 물 좋은 고시로(곳으로) 외주월광 소멸하소서
부정은 물리쳐 주시고 영저은 허물을 마소사

영정가망노려나요 부정가망노려나오
아린 부정 쓰린 부정 맑은 부정 노려나오
흐린 부정 노려나요 전우부정은 물리쳐 주소사
사위에섯천명월리 나비 본 듯

※ 사제가망청배마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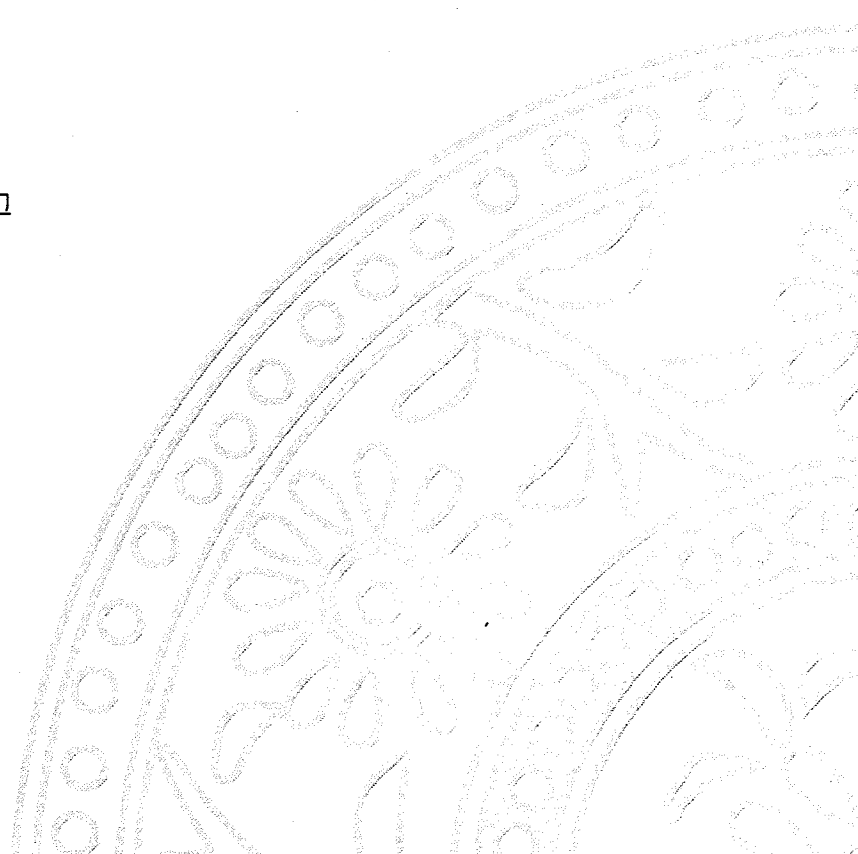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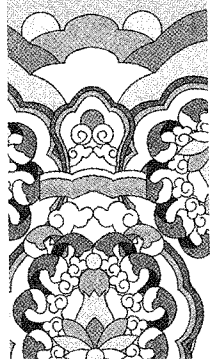
아리고 쓰린 가망 숨지여 낫진 가망
열씨왕에 사제가망 시왕은 중디가망
결명도라 대신가망 아린동디 쓰린중디
숨지여 낫진중디 열씨왕에 사제중디
아리고 쓰린 말명 숨지여 가든 말명
피 흘려 가든 말명 엮어 내고 모셔 내어
열씨왕에 사제 말명 일곱 사제
갈망하고 삼사제 헛참하고
아무 망제 극낙세계 연아대로 가신은 나리로슨니다
아삼성 아린삼성 스린삼성 숨지여 가든 삼성





제4장 민간신앙

피 흘려 가든 삼성 업어 내고 모셔 내고
 열씨왕에 사제삼성 십대왕이 분부하되
 아무 동네 아무 망제 빨리 가서 자버(잡아) 오라 명령하시니
 염라대왕이 알아듣고 여러 사제 부르신다
 천하루(로) 천직사제 지하루(로) 지국사제
 우두나천좌도사제 좌도나천우두사제
 최판관에 나연사제 옥도리로 강념사제
 요(용)왕사제 일직사제 월직사제 거리로 노중사제
 여러 사제 불러놓고
 아무 동네 아무 망제 급히 가서 잡어 오라
 염라대왕이 분부하니 삼사제가 니다편니
 쇠파랭이 숙여 쓰고 오라사실 줄너(둘러) 차고
 육모방벙 들너미고(둘러메고) 정승문을 썩 나서며
 활동같이 고분(굽은) 길로 편산같이 달려갈 제
 낮이 되면 산을 타고 밤이 되면 들을 타고
 아무 망제 문전 와서 삼문간을 들어스(서)니
 수문장이 말리시니 수문장을 밀치시고
 안마당에 들어스(서)니
 오방신장이 말리니 오방신장 밀치시고
 마루대청 올라스(서)니
 성주님이 말리시니 성주님을 밀치시고
 닫은 방문 박차 열고 아무 망제 들어보소
 시가 늦고 때가 늦어 어서 바빠 가자하니
 저 망제가 하는 말이
 사제님아 사제님 내 말점(좁) 들어보서
 못 다 먹고 못 다 쓰고 모은 재산 손(선)심공덕 하고 가세
 애걸복걸 하느라니 저 사제가 들을 소나
 사제가 하는 말이 시가 늦고 때가 늦는다하며
 오라사실 꼬내드러(꺼내 들어) 아무망제 목에 걸어
 한 번 자버낙귀치니(잡아 낚귀 채다) 혼비백산 나 죽건내
 두 번 자버낙귀치니 흐린 정신 간 곳 읍내(없네)
 서번 자버낙귀치니 아주 가고 영결간내
 마루대청 끌러나와 성주님께 인사하고
 안마당에 내려서서 구사당에 허배하고 신사당에 하직하고
 대문 밖을 썩 나스(서)니 곡성소리 진동하다
 저승길이 멀다드니(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일직사자는 앞을 끌고 월직사자는 뒤를 밀어
 풍우같이 몰아갈 제
 가지산 갈지 고개 불지산 불지고개
 아미랑산 염불고개 부모자손 이별고개
 동기간에 하직고개 영처고개 영결고개





고개고개 넘고 넘어
순식간에 저승문을 탁쳐왔네
저승문을 썩 들어서서 안마당에 끌려 놓고
죄인 잡아 대령했소 하고 큰 소리로 외쳐노니
염라대왕이 바라보고 아무 망제 들어보소
이승에 나갔다가 무슨 공하였는나
저 망제가 하는 말이 공덕적덕 바니 읍새(없어)
츠(치)분대로 하옵소사
염라대왕 하는 말이 그러나 하옵시고
저 죄인 갓다가 가두어라
내일 아침 편명시에 다시 조사 하리로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광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염내대왕
제오전에 변성대왕 제육전에 오관대왕
제칠전에 평등대왕 제말편에 태산대왕
제구전에 칠윤대왕 제십전에 도시대왕

※ 시왕가망 노래가락

철니소학오 시왕가망이 산에 올라
그염은 단신인데 구비설쌍에 돌아드니
설쌍에 매화본 꽃이 나비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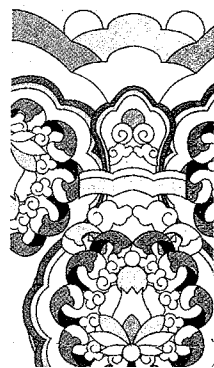
시왕가망 오신 길에 가야코로 다리`놀까
가야코 열 두 줄인데 어느 줄로만서겨
줄 아래 덩기덩 소리여 논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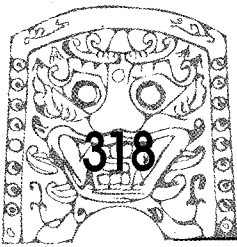
시왕가망 잡으신 잔에 잔마닥 이슬 매저
이 잔은 저 잔인데 지성이라고 쌍비오리
일광에 씨읍는 잔에 스스라고

왕말리 왕떡이오나 징말미 징떡요나
마누라 왕에 왕떡을 다 임필까

새나고 새나소사 아무 망제가 새나요
극낙을 바라다 보며 세왕세계로 새나요
승수경 폭파경하니 다사날까

맺었던 마음 펼치소사 감쌌던 마음 허랑하소서
맺어도 기우신 마음 백만사로만 풀고 노실까





제4장 민간신앙

진적드리고 나서 도도리장구
국거리장구 별상장구 뛰는 장구

※ 상산노래가락

그느리젓소 용가신데는 수이로다
수이라 김수건만 만경창파가 수이로다
마누라 영검자취를 기피 몰라

국마는 구기연만 제마당에 존니로다
시절은 시절이오나 넉수안장군님 시절이오나
승신니 오동입한나 갈길 몰라

나라로 알영을 하고 국가원당이 태평요나
국가도 태평요나 성안성내도 만만세
우리도 금주님 모시고 독낙태평

어이하여 못 오시나 무삼(무슨) 연고로 못 오시나
산 너퍼(높아) 못 오시나 물이 깊수와 못 오시나
춘추가 만사택하니 산무리겨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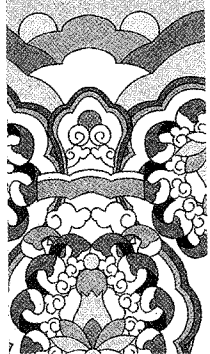
장군별상 오시는 길에 비수창금으로 다리를 놀까
비수창금인데 나양성내로 서고시나
줄 아래 덩기덩소리 논니라고

장군별상 잡으신 잔에 황새주로 받으시나
황새주는 천일준데 백일주로 받으시네
일광에 씨읍는 잔에 스스라고

인에하위 허손니다
부모자손에 인에 하위 넘조차하련가
정성드린데 하위라고 마누라 인에 하위를 하위려가

재수사망 섬겨를 주소
아무 가중에 재수라고 재수와 소망인데
정성드린데 재수라고
사도에 허여진재수 열손을 본 듯

제치소사(젓히소사) 제쳐를(젓혀를) 주소
아무 가중에 요기사변 요기와 사변인데
관제귀설도 다 젓힐까
마누라 문전하리도 다 젓힐까





천만년수 빌러를 왔소
 부모자손에 만년수 만년수에 복을 빌고
 천년수에 명을 빌어
 삼천년 한오백한니 자손이 창성

병구세 노래가락

거두소사 거뒤를 주소
 아무 대주에 아린간세 아리고도 쓰린간세
 사대법문을 다 거둘까
 마누라 약에 약덕을 다 입퍼줄까

※ 사제노래가락마달

철니소하오
 시왕가망 산에 올라 그 엮은 단신인데
 구비성쌍에 돌아드니
 설쌍에 매화본 꽃이 나비본 듯

새나고 내나새나소사 아무 망제가 새나요
 극낙을 바라다보며 새왕세계로 새나요
 승수경 복파경한니 다사날까

서낭당 백국새야 너는 왜 이리 우진느냐
 속비인 고양나무 헛잎 나라고 우진느냐
 헛잎은 우거지고 새로 속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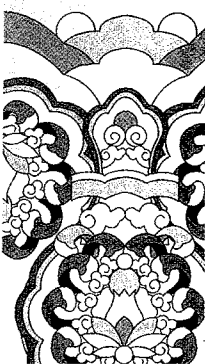
서낭당 승수를 비저 월종마누라 뭇대를 모아
 임진강 대동수에 여울동시리 때워코
 공들고 신든 망제가 선가읍씨

새나고 새나소사 아무 망제가 새나요
 극낙을 바라다보며 새왕세계로 새나요
 승수경 보파경한니 다사날까

※ 낚놀 때 노래가락 마달

낚이 낚이로다 노왕산에 세만니요
 낚을낚 낚반에 얹고 중수읍는 낚이로다
 세상에 못 나온 망제가 놀고 갈까

새나고 새나소사 아무 망제가 새나요
 극낙을 바라다 보며 서왕세계로 새나요



승수경 보파경하니 다 새날까

중국신

땡호왕신이 걸린 사람이 있다. 조상 몇 대 할머니가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 굿 할 때도 땡호왕
어찌구 저찌구 하는데 하나도 알아 들을 수가 없다. 금촌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몰라.
굿할 때 보면 꼭 호빵 사놓고 한다. 45세쯤 되었는데 굿 할 때도 춤을 추지 않는다.(허)

5) 무복과 무구

(1) 무 구

원래 만신은 신병을 앓는 과정에서 죽은 무당이 파묻어 놓은 무구를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만신들
중에 그러한 경험을 한 예는 없는 것 같다. 대신 할머니 올 때 방울 부채는 받는다. 무구를 신어머니에게 물려 받기도 하
고 부족한 것은 종로에서 사오기도 한다. 무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신장칼은 별상칼이라고도 하는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보다 작은 크기이다. 굿을 할 때 액을 벗겨 주거나 칼을 던져 점
을 볼 때 사용한다. 작두를 탈 때 입에 물고 작두를 타기도 한다. 삼지창은 돼지머리나 우족을 쫓아 사슬을 세울 때 사용
한다. 월두창검은 굿거리에서 한 번 들고 할 뿐이며 사슬을 세울 때 사용한다.

오색기는 특별한 신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를 뽑은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운을 알아 볼 수 있다. 빨간색은 제일 좋은 것으
로 이것을 뽑으면 운이 좋다. 흰색은 불사할머니로 두 번째로 좋은 것이다. 빨간색과 흰색은 천신으로 둘 다 좋다. 파란색
은 대감 즉, 재물운이 있다. 연두색은 귀신 덩어리 잡신이라 안 좋다. 아픈 사람이나 삼재 낀 사람은 열 번 뽑으면 열 번
다 연두색이 나온다. 노란색은 조상님이 발동했다는 것으로 굿을 해야 한다.

(2) 무 복

무복은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

(3) 점 상(占床)

원형의 작은 상으로 엽전과 쌀을 이용하여 점을 치기 때문
에 상 위에는 엽전과 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방울과 부채
사주를 볼 수 있는 만세력과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다.



점 상 (점에 필요한 도구인 방울·부채 등과 복채)

(4) 악 기

만신의 굿에서 악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사는 3명이 참여하는데 피리, 저, 깡깡이라고 불리는 해금이며 만신
은 장고, 제금, 징을 친다. 악사만을 잼이라고 하며 만신들이 장고, 제금, 징을 치지만 잼이라고 하지 않는다. 큰굿이라고
하여 잼이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항상 3잼이가 들어간다. 도당제를 지낼 때는 북이 들어간다. 아무리 큰굿이라도 3
잼이가 들어간다.

만신들은 신팔과 신아들을 중심으로 한패를 구성한다. 큰굿은 무당 5명이나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무당은 장
고 치고, 징 치고, 제금 치고, 악사가 3명 한 사람은 굿을 하고 이렇게 4명이고 여유로 한 명을 더 데리고 온다. 어른은 준
비만 해주고 굿은 하지 않으며 뭇은 더 가져간다. 잼이는 피리, 대금(저라고 부른다), 깡끼(해금)를 맡으며 장고는 잼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큰굿이라고 3잼이가 들어간다.

지금 서울굿은 징을 안 치는데 예전에는 징을 꼭 쳤었다. 왜정 말년에 쇠붙이를 거둬가면서 징을 치는 습관이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5.16이후 아주 사라지게 되었는데 굿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고 징은 소리



가 크게 나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려는 이유도 있었다. 만신의 징은 켤켤 소리가 나 마루를 넘지 않는다. 양철 소리가 난다. 곳에 사용하는 악기는 타악기로 귀신을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쫓기도 한다. 귀신이나 사람은 모두 풍악소리를 좋아한다. 지나가다 풍악소리를 듣고 놀다 가려고 왔다 하는 냇두리가 있다. 집에서 장고를 함부로 안 쳤는데 장고를 치면 귀신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쇠소리에는 귀신이 자지러진다. 가죽소리에는 귀를 먹고 입에서 나오는 진언에는 주리가 틀린다. 그래서 악기를 친다. 장님이 경을 읽을 때 귀신은 북소리는 귀를 먹고, 열십자로 왼새끼를 꼬아 놓고 그 위에 양푼을 올려놓고 새끼를 되게 짜서 그것으로 치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자지러진다. 경을 읽으면 주리가 틀려 아무리 억센 귀신이라도 잡혀 들어오게 된다. 신장대는 말을 못하지만 천리를 본다. 앉아서 3천리 서서 9만리를 본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한다. 장님은 말을 하지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해서 귀신을 잡는다. 귀신을 잡을 때는 장님과 신장이 얼려야 잡는다. 봉사의 입을 빌고 신장의 눈을 빌어 귀신을 잡아들이는 것이다.

북은 하늘이고 쇠는 땅이다. 북은 남자이고 쇠는 여자이다. 북은 남자인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여자는 반드시 뜨고 남자는 없어서 뜬다. 북을 치면 진군을 하고 쟁(쟁)을 치면 거둬들이는 것이다. 징을 치면 엄마 앞으로 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악사에게 일인당 15만원 정도 주었다. 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눠주고 적으면 적게 나눠준다. 지금은 악사에게 하루에 5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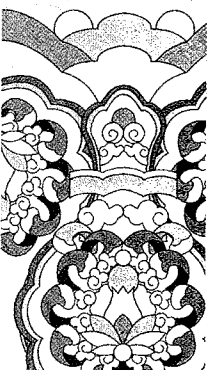
고양시 무속의 역사는 바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무속은 가장 즐거운 놀이였으며 또한 자신들을 의탁하고 기댈 수 있는 큰 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각종 공연과 영상물들이 놀이로서의 무속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병의 90%를 무속에 의지하던 시대는 현대 의학에 의해 대체되었다. 고양시 무속의 두 줄기였던 놀이로서의 기능과 치병기능은 이제는 그 자리를 거의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등장한 원인은 일제에 의한 탄압과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의 무속탄압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병굿이나 진오기는 종종 거행되고 있다. 병굿의 경우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경우이며 진오기의 경우에는 자리견이의 형태로 많이 거행된다. 두 곳은 주로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현대인들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을 무속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가 신도시화 되면서 무속에는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의 단골 중심의 판은 해체되었으며 이제는 만신이 얼마나 영험한가가 만신을 찾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단골과 만신의 지속적인 관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단골 관계보다는 만신의 능력이 손님들을 찾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신도시와 함께 사라지는 곳으로는 도당굿이 있다. 신도시 개발로 전통마을은 해체되고 더 이상 마을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도당굿은 지낼 수 없게 되었다. 풍동에서 거행된 도당굿에서 마을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도당제를 지내는 것이니 도당님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도당님들은 먼 곳으로 가야 할 것이며 도당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굿이 모두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에는 최근 새로 만들어진 두 개의 굿이 있다. 하나는 최영장 군제이고 다른 하나는 행주산성제이다. 모두 장군을 위한 추모굿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굿은 시에서 일정정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되고 있다. 아직은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풍수와 점복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준석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고양시의 풍수와 점복에 대한 현지조사는 덕양구 6개 마을, 일산구 6개 마을로 총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 분포는 고양시의 두 개 구인 덕양구와 일산구에 각각 6개 마을로 균등하게 하였다. 현지조사 대상마을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새원마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용북원마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조관동마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옛 덕이2리)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군자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은곡마을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마장마을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고양시 장례 봉분 작업(2002. 2. 10)



현지조사방법은 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문헌과 왕릉에 나타난 고양의 풍수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문헌¹⁾을 참고하여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축동비보(築洞裨補)에 관한 내용과 마을풍수 및 풍수설화에 관한 내용은 기존 문헌²⁾을 참고하여 현지 조사지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현지 조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점복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일산2동을 조사지로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민속지적 현재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2002년 1월 현 시점을 중심으로 잡았다. 문헌에 의한 자료는 조선시대까지 소급되고, 현지조사 자료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길게는 고려말엽에서 조선 초기와 짧게는 1950년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풍수설화에 있어서 무학대사와 같은 등장인물로 인해 설화의 시대적 배경이 고려말엽 내지는 조선초기까지 소급되고, 점복자의 생애사와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의 나이가 50대였기 때문에 1950년대까지 소급된다.

2. 풍수(風水)

1) 문헌과 왕릉을 통해 본 고양 풍수론

『택리지(擇里志)』(이중환)가 조선시대 지리서 가운데 한반도의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가장 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지리서로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중환이 쓰는 풍수용어나 이론은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사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천의 특성을 가장 체계있게 기술한 풍수이론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³⁾ 여하간 풍수서가 됐건 지리서가 됐건 간에 우리나라 전국의 풍수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한 『택리지』에는 고양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택리지』의 팔도총론 중에서 경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양주(楊州)·포천(抱川)·가평(加平)·영평(永平)은 동교(東郊)이고 고양(高陽)·적성(積城)·파주(坡州)·교하(交河)는 서교(西郊)인데, 두 쪽 교외가 모두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살만한 곳이 적다. 사대부 집이 가난해지고 권세를 잃게 되더라도, 삼남으로 내려간 자는 그 집안을 그대로 보전하게 된다. 그러나 교외로 나간 자는 가난하고 쇠잔해져서, 한두 세대를 내려오면 신분까지 낮아지게 되어 품관(品官)이나 평민이 되는 자가 많다.⁴⁾

위의 『택리지』 글 내용으로 보서는 저자인 이중환은 고양시(당시 高陽郡)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 아닌 살 만한 곳이 못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택리지』에 나타난 고양시에 대한 풍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양택풍수(陽宅風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택풍수(陰宅風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에도 길지(吉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택풍수라고 하면 바로 묘지(墓地)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왕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음택풍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정치권의 획득을 위한 음모인 인위적 인간의지가 부여되어 원래의 자리에서 묘를 이장하는 등의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조선 600년의 국가적 음택풍수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27대 왕을 비롯해서 왕비와 계비를 모두 고스란히 모시고 있는 왕릉은 총 38개로 파악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에 9개가 자리잡고 있고, 경기도에 27개가 자리잡고 있으며, 강원도 1개와 충청도가 1개씩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 중에서도 고양시는 구리시와 함께 8개(약 21%)로 가장 많은 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서오릉(西五陵)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의 다섯 개의 왕릉에는 창릉(昌陵: 8대 예종, 안순왕후, 계비), 경릉(敬陵: 추존된 덕종과 소혜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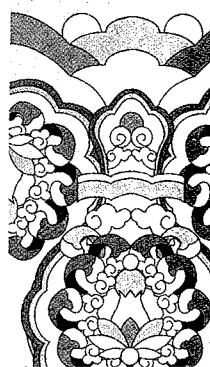
1) 이중환 지음·허경진 옮김, 『택리지(擇里志)』, 한양출판, 1996;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2000;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2)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II 신양편), 1999.

3) 최영준, 『풍수와 택리지』, 『한국사 시민강좌』 제14집, 일조각, 1995.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楊州·抱川·加平 爲東郊, 高陽·積城·坡州·交河 爲西郊, 二郊, 俱土薄民貧, 少可居處, 士大夫家貧失勢, 下三南者, 能保有家世, 出郊者, 寒儉凋殘, 一二傳之後, 多夷爲品官·平民矣'. 여기에서 '郊'는 조선시대 서울에서 100리 이내를 일컫는 것이고, 한편 도성 밖 사방 10리는 한성부 관할에 두었었다. (이중환 지음·허경진 옮김, 『택리지』, 한양출판, 1996, 163·341쪽 재인용)





명릉(明陵 : 19대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계비2), 익릉(翼陵 : 19대 숙종의 인경왕후), 홍릉(弘陵 : 21대 영조의 정성왕후)이 자리잡고 있고, 서삼릉(西三陵)에는 희릉(禧陵 : 11대 중종의 장경왕후, 계비), 효릉(孝陵 : 12대 인종, 인성왕후), 예릉(睿陵 : 25대 철종, 철인왕후)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왕릉의 지역적인 분포수와 그 비율을 간단하게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왕릉의 지역적 분포 일람표〉⁵⁾

지역구분	서울시					경기도								강원	충남	합계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성북구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미금시	여주시	파주시	화성군	영월군	예산군	
개수	3	1	2	1	2	8 (21%)	8	1	3	1	2	2	2	1	1	38
비율	약 23.7%					약 71%								약2.6%	약2.6%	약100%

이러한 지역적 분포는 조선의 국도(國都)가 서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 근교,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데 전국적인 음택풍수의 지역적 비율과 상호 비교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왕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음택풍수지(陰宅風水地)로서 수치상 어느 정도 좋은 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에는 『한국의 자생풍수』⁶⁾에 기술된 고양시의 음택풍수 중에서 풍수적 길지(吉地), 즉 명당(明堂)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는데 명칭과 간단한 설명만을 덧붙이고자 한다.

-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562번지. 이곳은 풀이 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념물 제23호(1975. 9. 5. 지정)로 지정되어 있음.
- 순창원(順昌園)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명릉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서 명종의 장남 순회세자(順懷世子)와 그의 비 공회빈(共懷嬪) 윤씨(尹氏)의 능.
- 고릉(高陵)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동 건달산(見達山 또는 峴達山, 120m)에 있는 고려 제34대 공양왕과 순비 노씨(順妃 盧氏)의 능. 사적 제191호(1970. 2.28. 지정)로 지정되어 있음.
- 월산대군묘(月山大君墓)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능골에 위치하는 월산대군 이 정(李婷)의 묘. 향토유적 제1호(1986. 6.16. 지정)로 지정되어 있음.
- 소경원(昭慶園)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신원동 진터말 동남쪽에 있는 소헌세자의 묘.
- 태실(胎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에 자리잡고 있는데, 여러 곳에 있던 임금 17위와 그 밖의 대군, 세자, 공주의 태를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이 곳에 모아 두었음.
- 효창원(孝昌園)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경내에 있는 문효세자의 무덤.

한편, 최창조는 고양시 일산지역에 대한 풍수답사를 하고 난 뒤에 일산지역의 입지조건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믿음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표는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장영훈, 대원미디어, 2000)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표 〈왕릉 풍수 현장답사에 나오는 조선왕릉 등 일람표〉를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

6) 최창조(『한국의 자생풍수』2, 민음사, 1997, 48~52쪽)가 정리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필자가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장영훈, 대원미디어, 2000)와 중복되는 왕릉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것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은 원문에 기재된 것이 아닌 현재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꾸어 적는다.



고양시를 비롯해서 서울 인근지역, 즉 수도권의 위성도시의 형성 및 개발은 그 면적을 비롯해서 자연환경과의 관계, 교통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교통을 살펴보자. 풍수에서 도로는 인체의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그 혈맥은 심각한 고혈압에 동맥경화 상태이며 게다가 자동차의 증가는 치유할 수 없는 혈액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의 상승은 위험수준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이 땅이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거나 아니면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수도권 위성도시 중의 하나인 고양시 일산구, 그 곳에서 바로 위 북쪽으로는 파주시 교하면이 자리잡고 있다. 그 곳은 그가 통일한국의 수도로 주장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자유로가 개통된 상태이고, 그 일대는 저평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해서 그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건너편 북쪽에는 황해도 개풍군의 산아가 그 일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 황해도에서 튀어나온 관산반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격해질 수 있는 물길의 성품을 부드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國都)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조건의 땅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지역은 신도시로서 절묘한 입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⁷⁾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의 개념들이 이용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일산지역은 앞으로 21세기 통일된 한국에서 거듭나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2) 고양의 축동(築洞) 비보(裨補)

풍수론 중에서도 비보설(裨補說)은 자연과의 상생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기 위한 사상 및 논리로서 취락을 풍수적인 규준에 맞게 조성하는 공간원리가 되었다. 이 비보는 자연적 성국(成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매워줌으로써 인위적으로 길국(吉局)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 조화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통지리사상이다. 비보는 대상지별로 산천(國域)비보·왕도(國都)비보·고을비보·마을비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형태별로는 사탐비보·숲비보·조산비보·장승비보·못비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는 수구막이·보허·화재방어·수해방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⁸⁾

형태상 분류되는 축동은 ‘(동)독을 쌓음. 혹은 쌓은 동독(큰 독)’이라는 뜻이다. 축동비보는 독을 쌓아 자연지세를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경기북부지역의 마을 정관에서 보이는 축동비보의 일반적 형태는 독 위에 나무를 줄지어 심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축동비보는 위치상 마을 어귀의 수구 부위에 있다는 점에서 풍수적인 기능상 ‘수구비보’나 ‘수구막이’와 비슷하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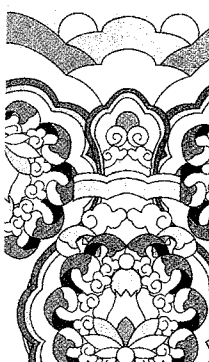
그래서 최근의 고양시와 관련된 풍수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에서, 『경기민속지』 Ⅱ 신양편(경기도박물관, 1999)에 소개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거기에 제시된 고양시의 7개 마을에 대한 축동비보에 현지 답사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⁰⁾ 그 내용은 축동(築洞) 비보(裨補)에 관한 것으로서 조사 보고된 것처럼 실물이 존재하거나 소멸되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비보물(裨補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7) 최창조, 앞의 책, 49~52쪽.

8) 경기도 박물관, 앞의 책, 422~425쪽.

9) 경기도 박물관, 앞의 책, 426~427쪽.

10) '제4장 1절 경기북부의 풍수 신앙' (최원석, 429쪽)에는 축동 비보신앙에 대한 조사지역 중에 고양시의 7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 경기도 고양시의 축동 현황〉

마을 이름	위치·지점	기능	비고
고양시 송포면 덕이2리 (현재:일산구 덕이동-현지답사)	마을 앞뜰		위치확인 가능
고양시 원당읍 신원2리 조관동 (현재:덕양구 신원동-현지답사)	마을 앞		소멸 /위치확인 가능
고양시 원당읍 성사6리 (현재:덕양구 성사동-현지답사)		보허 및 방풍	소멸 /위치확인 불가능
고양시 일산읍 주엽1·3·4·6리 (현재:일산구 주엽동)		보허 및 방풍	소멸
고양시 일산읍 마두1리 (현재:일산구 마두동)			신도시개발
고양시 지도읍 화정1리 (현재:덕양구 화정동-현지답사)		보허 및 방풍	위치확인 불가능
고양시 지도읍 대장리 (현재:덕양구 대장동- 현지답사)			흔적 남아있음 /위치확인 가능

현지 답사한 5개 마을 중에서 축동의 물질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대장동이었다. 대장동에서는 흙으로 독을 쌓았던 흔적과 그 위에 심었던 나무들을 아직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신원동(조관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가 수로로 바뀌어 있었다. 5개의 답사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축동에 대해서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보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그 축동이 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덕이동에 위치한 축동은 현재 마을 앞쪽 사거리 근처의 다리가 축동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형태는 축대를 쌓아올린 모양으로서 흙으로 쌓아올린 독 위에는 대부분 몇 백년의 수령을 지닌 아릅드리 참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아카시아나무들도 있었는데 그 길이가 100m 이상 펼쳐져 있었다고 전한다.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던 축동은 故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에 지원금을 받아 돌로 된 축대를 만들면서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축동은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반에 없어지기 시작했고, 신도시로 변화된 지금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축동 위에 있었던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고사(枯死)되어 없어졌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축동이 축조(築造)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고 그것이 비보물(裨補物)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이 축동이 마을의 수해방지를 위한 것, 곧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좌천(加佐川)의 범람을 막기 위한 독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축동이 풍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풍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좀 특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잡고 있던 자연물’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축동에 대한 기억이 확실한 것은 그 근처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위치의 특성상 마을에서는 그 집을 ‘축동밖’ 또는 ‘축동밖집’이라고 불렀었다.



축동의 흔적과 그 독 위에 심었던 나무 (덕양구 대장동)



대장동에서는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아직도 축동의 물질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흙으로 쌓았던 축동의 모습뿐 만이 아니라 그 위에 심어져 있었던 느티나무·아카시아나무들도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그 길이가 150m에 폭이 5~6m 그리고 높이가 평균 1.5m 정도였다고 한다. 이 축동은 기능상 대장동과 화정동 사이에 자리잡은 대장천(大莊川)이 홍수때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풍수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명칭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축동이 아닌 ‘축둥’ 또는 ‘축둥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원동 내의 조관동(조관마을)에서는 흙으로 쌓았고 그 위에 소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축동에 대한 기억은 확실히 남아 있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으나 없어졌다. 축동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마을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명칭에 있어서는 축동이 아닌 ‘축둥’으로 말하고 있다.

3) 고양시민의 현대적 의미의 명당에 대한 관념

현대적 의미의 풍수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상의 묘지가 명당인가 아닌가를 보는 음택풍수와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집의 방위나 구조 등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보는 양택풍수가 그것이다.¹¹⁾ 여기에서는 고양시민이 생각하는 양택풍수의 명당¹²⁾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일산구에 거주하는 세 가구를 상대로 3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고양시가 고향으로서 현재까지 죽 살아오다가 1990년 초·중반에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시골의 단독주택생활에서 아파트생활로 변환한 60대 부부가족, 두 번째는 타지역에서 살다가 고양시의 도시개발을 즈음해서 1990년대 초반에 이주하여 아파트와 빌라라고 말하는 다가구주택에서 10여년을 생활해온 40대 직계가족, 세 번째는 타지역에서 살다가 가장 최근 2001년도에 고양시로 이주하여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30대 부부가족으로 나누어서 몇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세 부류의 제보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생활의 사례조사차원에서 어느 정도 경향을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 일산구의 명당은 어디인가 - 제보자들은 명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음택풍수인 뒷자리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고, 양택풍수에서는 좋은 집 또는 좋은 곳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때로는 부자동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땅 또는 집이 갖는 경제적 내지는 금전적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산구에서 가장 명당, 즉 괜찮은 땅·좋은 곳·좋은 집으로 인정하는 곳은 정발산(鼎鉢山)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장항동(章項洞)과 마두동(馬頭洞) 일대의 일명 일산의 비버리힐스(Beverly Hills)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고양의 여러 곳이 아파트로 재개발될 때에도 택지로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주택단지로 남아 있었고, 그 곳의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주변의 아파트와는 구별되는 고가의 개인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주택을 보는 것처럼 집에는 담이 없고 잔디가 깔려 있으며 화려한 실내외장식과 독특한 외부구조 등을 갖추고 있어서 보통 10억을 호가(呼價)하는 집들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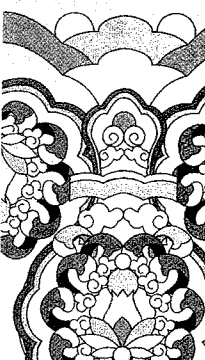
아파트로 개발된 곳에서 좋은 곳이라면, 주업역에 위치한 강선마을의 아파트 중에서 7단지를 뽑고 있다. 우선 역세권(驛勢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 그리고 한강이 흘러가는 동남쪽에 널 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수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32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가격이 3~4천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위의 장항동과 마두동 일대도 동일하다.

•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 토박이들은 소유했던 토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 입주권에 당첨되기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가족수에 따른 아파트 규모에 대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매매가격의 상승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¹³⁾

11) 황종찬, 『현대주택풍수』, 종은글, 1998, 7쪽

12) 풍수에서 명당 길지라고 하는 곳은 산수방호한 조화와 균형의 땅에 사람의 마음을 지각상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유정한 곳, 그러나 속된 기가 흐르지 않는 성소로서 온화 유순하고 부드러운 결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주위환경, 각이 지지 않는 방위와 유장한 산의 흐름, 찌르듯 달려들지 않는 물길, 그러나 변화무쌍하여 결코 단조롭지 않은 산수의 배열, 이러한 조화를 이룬 자연에 적덕(積德)한 사람들의 영원한 거소(居所)를 말한다.(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425~426쪽 재인용) 9) 경기도 박물관, 앞의 책, 426~427쪽.

13) 양택풍수에서나 과학적으로나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아파트 평수는 1인당 5~6평이 가장 적절한 쾌적환경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25~30평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식구수에 비해 너무 넓은 집은 결코 이롭지 않고, 식구수에 비해 큰 집을 가리켜서 옛말에 ‘빈 방에 귀신이 있다’ 또는 ‘홍가’로 꺼려했던 것도 그것을 표현하는 적당한 말이다.(황종찬, 앞의 책, 220~221쪽.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378~3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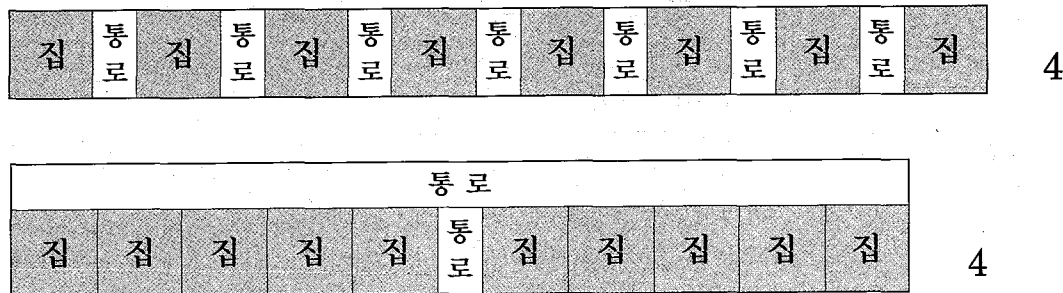




입주할 아파트의 층수도 집값으로 인해서 로얄층을 선호한다. 로얄층이란 앞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해 낮에 햇빛이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층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중간과 중간 위쪽에 위치한 층이다. 제보자 중에서 60대 부부는 현재 5층에 살고있는데, 처음에는 땅과 바로 접해있던 구산동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높은 층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의 적응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5층으로 입주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었다.¹⁴⁾ 그런데 살다보니까 낮 동안 일조량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고 고층이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층을 선호하게 되었다. 반면, 아래층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하수도물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1층은 습기가 많이 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1층, 꼭대기층, 양끝 쪽에 붙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한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남향으로 지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는 직선형이 되고, 한 세대의 평면형태는 정사각형으로 좌우대칭이 거의 1:1이다. 보통 한 동의 좌우로 10세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총 비율이 1:10의 직사각형이 된다. 그리고 복도식과 층계식으로 나뉜다. 대개의 사람들이 전용면적을 좀더 차지할 수 있는 층계식을 선호한다.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의 평면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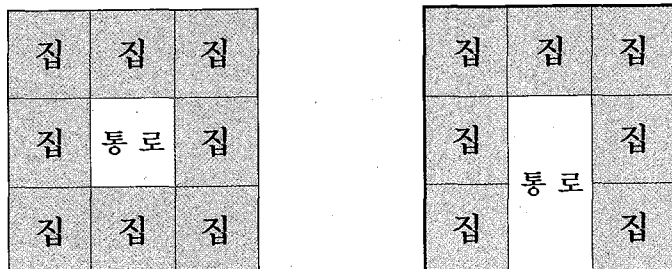
〈그림 1: 계단식과 복도식 아파트의 평면도〉



그런데 아래와 같은 형태의 아파트는 한 동의 크기가 웬만한 산과 맞먹기 때문에 풍수지리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흉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심에 기운이 모이는 공간이 없고 좌우로 분산되기 때문에 약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이러한 기운이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중심으로 집결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개인주의와 배타적 성격이 많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⁵⁾

- 14) 인간은 지기(地氣)를 받고 살아가야 좋다고 한다. 지기(地氣) 또는 지자기(地磁氣)는 과학적으로도 지상에서 15m 이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땅에서는 평균적으로 0.57가우스(gauss) 정도의 자기를 발생한다고 하고 15m 이상에서는 0.25가우스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것을 아파트에 적용하면 3~5층 정도까지가 0.57가우스의 적당한 지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식물에게도 적용되는데 열대원시림을 제외하고 보통의 나무가 15m 이상의 높이로 잘 자라지 않는 것도 지기와와의 관계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황중찬, 앞의 책, 215~217쪽. 박시익, 앞의 책, 385쪽)
- 15) 풍수지리적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명당이기 위해서는 직선형의 아파트에서 중심형 아파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심형 아파트란 형태면에서 평면에 중심 공간이 있고, 지붕에 정점을 하나 갖고 있으며, 원형이나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는 것이다.(박시익, 앞의 책, 380~386쪽) 요즘은 서울 강남에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고가(高價)여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게 한다. 그 형태를 간단하게 도면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이상적인 아파트 형태의 평면도〉



• 집안에서 좌향(坐向)을 인식하는가 - 60대 부부가족의 경우에 남편은 의식적으로 남쪽이나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부인은 그러한 관념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한다. 지금은 각방을 쓰고 있어서 그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이전에 각방을 쓰지 않고 합방을 했을 때에는 남향이나 동향으로 함께 머리를 두고 잠을 잤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안방은 남향으로서 창문이 남향·방문은 북향이고, 건넌방은 북향으로서 창문은 북향·방문은 남향이다. 보통 머리를 방문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창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할머니가 좌향을 신경쓰지 않는다기 보다는 방문이 아닌 창문 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려는 의식이 보다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0대와 30대 가족들도 좌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남향이나 동향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는 잠자리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 두 가족들은 초등학교때부터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들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한 가정교육으로 현재까지도 잠자리 좌향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다.

그런데, 조사대상 세 가족의 공통점은 집안의 실내공간에서 좌향에 관계없이 잠자리공간을 방문에서 먼 쪽으로 잡으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해야 하는 방문 쪽에 가깝게 잠자리나 머리 방향을 두는 것은 산만해져서 좋지 않기 때문에 방문에서 제일 먼 안쪽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 토박이들의 아파트 입주에 대한 관념 - 나이가 든 노인들은 개발되지 않은 고향의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아파트로의 입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인들이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신개발된 아파트와 주변 환경에 비해서 고향은 워낙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처럼 고향에 대한 선호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고향과 현거주지와 집값 차이, 교통의 차이, 주변환경의 차이 등의 생활상의 차이는 현거주지인 아파트로의 입주를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 도시생활의 뽁뽁함 등은 고향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⁶⁾

4) 고향에 전승되는 풍수설화

(1) 고향의 마을풍수 실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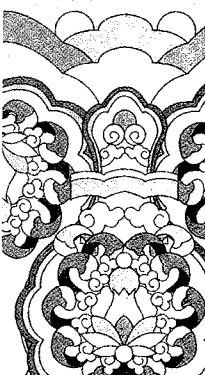
마을풍수의 실예로 정한 마을은 일산구 지영동 마장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마을 주변의 풍수에 관계된 전설이 거의 완벽하고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다.

마장마을은 마을 바로 뒤편에 위치한 산(峰虎山, 125m) 형국이 말의 안장(鞍裝)을 닮았다고 해서 말 ‘馬’자에 안장의 ‘裝’자를 따서 마장(馬裝)으로 불렸던 것이다. 그래서 ‘마쟁이’ 또는 ‘마쟁이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지도상에 봉호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마을 뒷산에서 과거 조선시대에 봉화터로 사용했던 봉화터성벽 유적이 남아 있어 ‘봉화독’ 내지는 ‘봉화뚝’이라고 불리우는 ‘독산봉수(禿山烽燧, 133m)’까지 직선거리로 2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두 곳을 이어주는 능선이 실제로 말안장처럼 약간 움푹 들어가 있다. 반면, 마을 뒷산이 말안장형국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와 같은 금기사항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고 형국에 대한 전설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마장마을의 뒷산은 일제강점기 말까지도 벌진 민둥산에 가까웠는데, 비로 인한 홍수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주관으로 사방공사(砂防工事)의 일환으로 소나무·아카시아나무·물감나무 등을 심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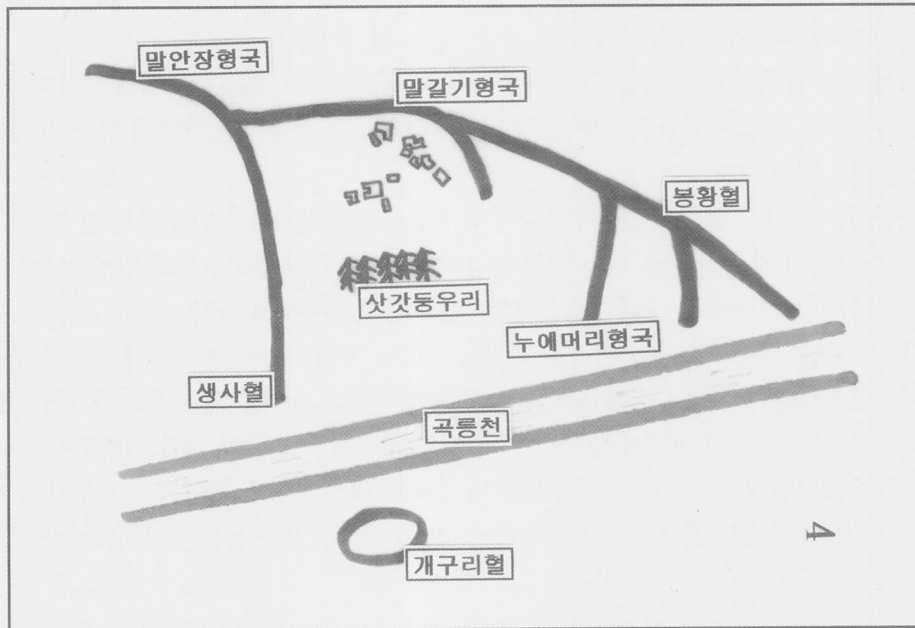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을 바라보았을 때 말안장 형국의 능선을 따라 왼쪽으로 마을 입구까지 뻗은 능선은 ‘말갈기’를 닮은 형국이고, 결국에는 그 끝이 말머리 쪽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머리 형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말머리쯤에 해당하는 곳에는 10개에 가까운 산소가 자리잡고 있다. 말갈기 형국에 해당하는 곳은 말이 잘먹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갈기를 굵어 정리해주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땀감으로

16) 최창조(『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1990, 431쪽)가 전주시의 5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생 후반부에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은 질문에 ‘고향’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한 고향이 각자 태어나고 자란 실재하는 그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편안하고 포근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징적이고 이상적인 고향이었다는 것이다. 60대 토박이 제보자(황장환씨)가 말한 고향도 그런 이상적인 고향을 언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쓸 잔가지나 낙엽을 갈퀴로 긁어 모아 주어야 마을이 좋아질 것인데, 이제는 난방시설 및 재료가 예전과는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이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지도 1: 고봉동 마장마을 풍수관련 지도〉



마을 입구 앞쪽이면서 말머리 쪽의 앞부분 약 50m 정도에 샷갓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샷갓동우리'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 샷갓동우리를 지관들은 '말죽통(말 여물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말 여물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샷갓동우리'에는 현재 두 개의 산소가 자리잡고 있고 그 앞에는 현재 밤나무를 비롯해서 20여 그루의 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다. 그 전에는 그 주변이 모두 소나무·벚나무 등이 가득했었다고 한다. 샷갓동우리 근처는 과거에 마을에 거주했었던 故 이○정씨(생존했으면 85세, 한의사) 소유였었는데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진 상태이다. 제보자가 기억하기를 故 이○정씨의 말에 의하면 '샷갓동우리가 있는 곳은 두꺼비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말갈기에 해당하는 능선을 옆으로 이어 돌아 곡릉천 앞의 논까지 뻗은 산줄기가 있다. 이 산줄기 능선의 끝이 뭉툭하면서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마을에서는 '누에머리형국' 또는 '누에머리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누에머리끝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밭이어야 하고 이 밭에 산소를 쓰면 자손들이 잘되는데, 마을의 누에머리끝 부분에는 밭이 아니라 개울(曲陵川)이 있어서 '누에머리형국'이 명당자리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그 곳에 밭자리를 썼던 마을 사람이 있었는데 밭자리로 인해 좋게 되었다고 전해진 바가 없고 결국에는 이장(移葬)을 했다고 한다.

한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았을 때 말안장 형국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능선은 구불구불해서 뱀의 모양을 닮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끝이 뱀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생사혈(生四穴)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즐비하고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마을 앞쪽 멀리에 펼쳐져 있는 논 중앙부에 오리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작은 둔치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문봉동 마을 앞쪽의 샷갓동우리와 누에머리끝

이것이 '개구리혈'의 형국이어서 생사혈의 끝자락인 뱀머리가 개구리먹이를 먹기 위해 개구리혈자리를 향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한다. 이 개구리혈로 인식되는 둔치는 '개구리 산'이라고도 불렀는데, 제보자(이우상씨, 71세)가 어렸을 때에도 보았던 기억이 없고 다만 마을 어른들이 '개구리산이 없어져서 신씨네는 끝났다.'고 말하곤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마을에 신씨(본관: 平山)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곳에 조상들의 묘를 썼었다. 생사혈에 조상의 뿔 자리를 썼던 신씨 집안에는 보건사회부 차관까지 역임한 사람이 나옴으로써 좋은 뿔자리로서의 소문은 자자하다. 그러나 현재는 그 땅을 팔아 묘는 이장(移葬)한 상태이고, 그 곳에는 새로 땅을 매입한 소유자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1999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생사혈 끝자리가 잘려나간 상태이다. 지금도 이 생사혈과 무학대사 그리고 마을에 살았었다는 신씨 집안과 관련된 전설이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뒤의 '여러 가지 풍수 이야기' 편에 신도록 하겠다.

누에머리형국이 있는 능선을 살펴 보면 약간 솟은 등성이에 잎이 떨어진 나무들이 있는데 그곳이 '봉의 혈' 또는 '봉황혈(鳳凰穴)'이라고 한다. 이 곳 꼭대기에 방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묘를 썼는데 어느 날 지관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꼭대기에 쓰면 안되고 약간 위치를 내려서 써야 한다고 해서 그 후손들은 그 아래에 뿔자리를 마련했고 현재 4~5개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 곳에는 '봉황바위'라고 불렀던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돌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절벽밑'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사람들이 공사현장에 돌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그 곳에 다이내마이트를 이용해서 돌을 조각내기도 했었다고 한다. 이 바위가 '바위타령'에 등장하는 그 바위라고 한다.

생사혈자리가 있는 근처에 논들을 지나 평평한 곳을 '막무덤' 또는 '막무덤계'라고 불렀는데, 이 곳은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비롯해서 말 등을 막 파묻었다고 해서 이름이 전해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쯤 전에 이 '막무덤'가에 명당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곳에 죽은 어린 아이를 묻어 장사지낸 박(朴)씨 성을 가진 마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명당자리에는 조상의 묘를 쓰면 좋으나 어린 아이를 묻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전하는데, 그 집이 결국은 망해서 이 마을을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곳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고 묘를 파서 화장해버렸다고 한다.

(2) 여러 가지 풍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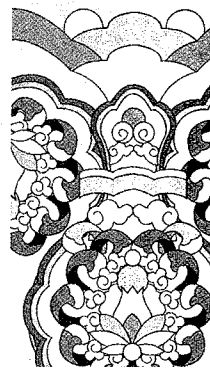
① 용의 배[腹]를 닮았다는 용복원마을의 유래

전송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대지동 용복원마을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지동 용복원마을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정도 전에 한씨(淸州 韓氏)가 마을에 입향해서 개촌(開村)한 것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용복원마을의 이름이 용복원(龍腹院)인 것은 마을을 비롯해서 주변지역의 형국(形局)이 용의 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때로는 용이 엎드려 있다고 해서 '龍伏院'이라는 한자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마을은 독립적인 마을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형국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용두리(龍頭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용미리(龍尾里-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와의 관계 속에서 용의 혈자리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 세 마을은 지도상에도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용두리 - 용복원마을 - 용미리'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이 마을들은 서로간에 직선거리로 8.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산세(山勢)가 직접 쪽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두리에는 남쪽에 망월산(望月山-179m)이 자리잡고 있고, 용미리에는 남쪽과 북쪽에 우암산(牛岩山) 비호봉(飛虎峯-328m)과 박달산(朴達山-369m)이 자리잡고 있으며, 용복원마을에는 지도상에는 산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경은사라는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야산을 마을 사람들은 범바위산(140m)이라고 부른다. 이런 위치에서 중간 부분의 용복원마을은 용두리와 용미리가 주변의 산세와 함께 솟아있는 듯한 모양인데 반해 폭 꺼져있는 듯한 모습으로 용의 배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용복원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이 '용두리 - 용복원 - 용미리'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마을 앞을 곡릉천(曲陵川, 마을에서는 정철의 호를 따서 송강내(松江川)라고도 함)이 가로 질러 흐르고 있어서 혈맥이 끊겼다고 말한다.

한편, 용두동에는 서오릉(西五陵)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왕릉인 창릉(昌陵: 8대 예종과 안순왕후·계비), 경릉(敬陵: 추존된 덕종과 소혜왕후), 명릉(明陵: 19대 숙종과 인현왕후·인원왕후·계비2), 익릉(翼陵: 19대 숙종의 인정왕후), 홍릉(弘陵: 21대 영조의 정성왕후)이 자리잡고 있다.



용복원마을 사람들은 풍수적 형세가 마을에 끼친 영향이 좋은 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용두리·용복원마을 모두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주변에 용복원마을 인근에는 장묘사업소·납골당이 자리잡고 있어서 지역 정서상 거부감이 많다고 한다. 또한 마을 이름과 관련된 풍수적 관념과 결부시키지는 않지만 용복원마을이 용두리와 용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도 마을에서는 큰 인물이 난 적이 없고 다만 정씨(본관 : 하동) 성을 가진 집에서 면장을 2명 배출한 것이 전부라고 전한다.

② 정감록에도 나와있다는 은곡(隱谷)마을

전승지역은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의 군자동과 은곡(隱谷)마을이다. 은곡마을은 과거 설문2리를 일컫는데, 원래는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너 가구가 거주했던 곳만을 은곡으로 불렀으나 후에 설문2리 전체를 은곡으로 부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곡(隱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정감록(鄭鑑錄)에 은굴(隱窟)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으로서 난리에 피난하는 가장 적절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한국전쟁때에 은곡마을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마을경관도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마을까지 들어가야 마을이 보이고 저 멀리 입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길을 빙 돌아 들어가서 야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아담스레 자리잡고 있는 모양이 '삼태기'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설문동 내의 군자동(君子洞, 군자마을)도 군자들이 살았다는 동네라고 해서 붙여져서 그런지 한국전쟁때 폭격을 맞은 일 없이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군자마을은 마을 주변이 군사보호시설로 만들어지거나 공장시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또한 은곡마을쪽에는 그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했던 납골당((주)○○청아공원)까지 만들어져서 마을 경관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납골당에 대한 혐오적 생각은 비일상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을 대표하는 장의차(葬儀車)가 자주 왕래를 하게 되고, 조상을 산소라는 올바른 형태로써 모셔야 되는데 납골당은 망자를 올바른 형태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③ 효자와 새원마을 유래

전승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새원마을이다.

조선시대 중종때 어떤 효자(全義 李氏라고 전해짐)가 자신의 아버지 산소를 잘 모시고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생원(生員 : 兵使職○兵馬節度使○) 벼슬을 내려주어 생원마을이라고 불리다가 후에 변하여 '새원마을'로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마을에 원님(守令)이 나서 생원마을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뒷자리를 잡을 때 중국에서부터 산소자리를 쫓 흠어오다가 결국에는 현재의 위치에 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뒷자리가 좋아서 그 자손 중에서 가장 최후에 벼슬을 한 사람이 영월군수를 역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마을에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이 보살뵈던 아버지의 산소가 남아있다. 묘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귀는 다음과 같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로 전하는 이의 비석에는 '贈議政府左贊成李公諱楡蕃之墓'라고 새겨져 있고, 그 아버지 것이라고 전하는 이의 비석에는 '贈戶曹參判李公天樞墓'라고 새겨져 있다.



전설상의 효성 지극한 아들과 그 아버지의 묘(덕양구 대자동)



④ 생사혈과 뗏자리를 잘못 파낸 신씨 집안

전승지역은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마장마을이다.

신씨의 후손들이 돌아가신 조상님을 생사혈쪽에 묻어드리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어느 정도를 파내려가니까 지관(地官)이 그만 파라고 하더라. 그런데 자식들이 그 깊이가 너무 얇기 때문에 더 파야 된다고 하면서 더 파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잉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만 눈을 한쪽 다쳤다고 한다. 그 이후로 신씨의 장손들은 눈 한쪽이 멀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도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덕양구 사리현동에 거주하고 있고,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는지 생존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장손이 한쪽 눈이 실명되었었다.

⑤ 생사혈과 무학이너머 그리고 무학대사

이야기의 전승지역은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마장마을이다.

무학대사가 고려말 조선초기에 조선의 도움으로 정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장마을에 도착하여 생사혈 자리를 보고 자신이 '여기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동네에 와서 죽게 된다고 ...' 고 하면서 마을로 들어서지 않고 도로 왔던 곳을 넘어갔다고 전한다. 그리고 도로 넘어가면서 그 곳을 가리켜 마장리의 꼬트머리에 네 개의 명당이 있다는 뜻으로 '마장리(馬裝里) 하(下)에 사명당(四明堂)' 이라고 말하고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생사혈쪽에 무학대사가 마을쪽으로 넘어려고 했던 고개를 '무학이너머'라고 부르다가 후에 그 말이 줄어 '매기너머' 또는 '맥이너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점 복(占卜)

1) 고양의 점복자(占卜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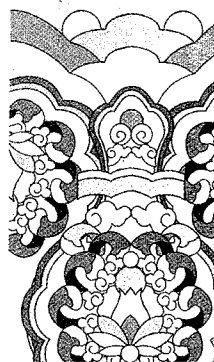
우리 민간의 세시풍속을 살펴 보면 점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음력 정월에 수수깡에 콩을 12알 박아넣고 우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불은 콩을 보고 1년 열두달의 각 달의 길흉을 점치거나, 2월 초순에 하늘의 좀생이별을 바라보고 한해의 농사점을 치기도 하고, 아무 때나 놀이 삼아 아카시아나무 잎을 하나씩 떼어 내며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지 이루어지지 않을 지를 점치기도 했었다. 이렇듯 점을 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정보의 시대인 21세기 지금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점보기가 유행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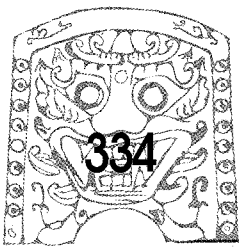
중국의 사전 『사해(辭海)』에는 '점(占)은 길하고 흉한 것을 보는 것인데, 그 조짐을 보는 것은 거북점(龜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고, 복(卜)은 거북 껍질을 불에 구워 종형으로 갈라진 형상을 보고 조짐을 아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민간에서는 '점복'¹⁷⁾이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고 '점친다', '점본다', '점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17) 일제강점기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저술한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의 占卜と豫言)』을 살펴보면, 1930년대까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점복의 종류와 내용을 알 수 있다.(김태곤 외 공저, 『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25쪽 재인용)

〈 표 3 : 점복의 종류와 내용 〉

유 형	내 용 및 방 법
자연관상법	일월복(日月卜), 성복(星卜), 홍복(虹卜), 운복(雲卜), 풍·설·상·로·뇌복(風·雲·霜·露·雷卜), 수·빙복(水·氷卜), 천기복(天氣卜), 지·산·석복(土地·山·石卜) : 자연의 징후를 보아 점친다.
상복(相卜)	동물점·식물점·기물(器物)·의식주에 의한 점, 인사(人事) 및 인상에 의한 점 : 종류, 식물현상, 사람왕래, 신체 등에 의해 점친다.
몽 점	몽점, 몸찰, 몸조 : 꿈 속에 일어난 일을 현실에 적용
신비점	신탁점(신빙점·신성점·신사점), 신시점(척미점·전점·신장점·영점·초혼점·신의점·신침점)
인위점	승부점, 오락점, 풍흉점, 신수점, 범인점, 점지(占地), 복거(卜居)
작괘점	육호점, 산통점, 송엽점, 사주점, 단시점(斷時占), 오행점, 사점(柶占), 조점(鳥占), 성명 판단
관상점	인체 모양, 동작 등으로 점친다
상지점	풍수사상에 의거 양택·음택의 거지(居地)로 점(묘지, 주거지) 친다
도참·예언	도참·요참 : 미래의 길흉을 조짐을 보아 점친 책으로 정감록, 비결 따위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점복이라는 말은 나중에 점과 복이 합성되어 주로 학계에서 쓰이는 말이 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고, 점복은 인간의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미리 알아내어 인간의 생활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점복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점장이라 표현하는데, 때로는 역술인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그런 변별된 명칭을 통합하여 점복자(占卜者)라 명명한다. 점복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신을 받아 점을 치는 신점복자(神占卜者)와 주역 또는 역학을 공부하여 점을 치는 역리점복자(易理占卜者)이다. 전자는 보통 점장이·무당 등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자는 역술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보통이다.¹⁹⁾

여기서는 신점복자 중에서 유명하다고 소개된 사람과 점복자의 길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역리점복자를 면접조사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유명한 신점복자로는 『한국의 명무』에 소개된 사람 중에 고양시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책에 기재된 생애사(生涯史)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면접조사를 통한 점복자는 두 사람으로서 한 명은 역술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점복자로서 그들의 현재까지의 생애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사례 1 : 정발산 도당굿의 전수자 정정자²⁰⁾

·가정환경 - 정정자(여, 51세)는 1952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에서 출생하였다. 정정자의 어머니는 타계한 첫 남편 선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고 그 후 정씨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는데, 그중 막내가 정정자이다.

·성장과정 - 정정자는 9살인 초등학교 2학년때 놀을 뛰다가 잘못 떨어져 죽었었는데, 긴 수염을 한 도시할아버지가 “아직 올 때가 안됐는데 왜 왔느냐? 너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였고, 죽은 지 사흘만에 깨어났던 적이 있다고 한다. 10살 때 집이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강매리(선씨 집성촌이라고 전함)로 이사하여 행주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16살 때쯤에 친정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산골무당(박금선)네로 어머니를 따라 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려고 방문을 열자마자 그 무당이 “넌 여기 뭐하러 왔나? 그 집으로 가봐야 산 너머 또 산이고 물 건너가면 또 물”이라고 말하면서 무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가 나 욕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한다. 후에 그 산골무당은 정정자 시어머니의 첫 신딸이 되었다.

정정자는 21세 때인 1972년에 김씨와 결혼했다. 시어머니 김봉순은 1910년 수원 태생으로 17세 때 화전리로 시집와 37세에 신내림을 받고 50년 가까이를 신을 모시면서 ‘소마니 할머니’로 이름을 높였다. 정정자의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시이모님)도 신을 모셨다.

18) 김태곤 외 공저, 앞의 책, 7~8쪽 재인용.

19) 점복자에 따른 점치는 방법 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태곤 외 공저, 앞의 책, 29쪽)

〈 표 4 : 점복자에 따른 점 종류와 내용 〉

내용분류	신 점 장 이		역 리 점 장 이	기 타
방 법	신탁점 (인체강령점)	신빙점, 신청점, 신평점	사주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점, 맹인역리(盲人易理)로 보는 점, 풍수지리로 보는 점, 관상·수상으로 보는 점, 성명으로 보는 점	몽점, 새점, 컴퓨터점, 윷점, 화투·카드점, 운세점, 토정비결, 남녀궁합, 예조, 금기
	신시점 (기물강령점)	엽전·방위·엽주·지남철·쌀·노래·옥수·춧불·오방신장기·담배·별로 보는 점		
강신체험	유		유·무	무
선단	무		무	무
점사 후 조치	굿, 치성, 고상, 기도, 부적		기도, 부적	무

20) 양대석이 저술한 『한국의 명무』(문덕사, 1997)에는 고양시를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명무이며 점복자로는 정발산 도당굿의 전수자로 소개된 정정자(鄭貞子, 여, 51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8-9 태화빌라 나동 101동 ‘소마니 정해사’)가 있다.

결혼을 하고 시집에 들어갔더니 박금선(산골무당)씨가 시어머니의 신딸로 들어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내림굿을 해준 신딸은 아니고 박금선씨가 그 당시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신어머니 삼아 오게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큰딸'이라고 부르는 박금선씨는 한동안 함께 지내다가 나갔으며, 근래에는 정정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내림굿을 해준 신딸로는 김보살(또는 혜진이엄마)이라고 부르는 만신이 한 명 있을 뿐이다. 혜진이엄마가 내림굿을 받을 때 정정자가 치성을 바치는데, "너는 해 봐야 무당이다. 3년 안에 무당된다. 안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했었다.

• 무업(巫業)의 시작 - 직접적인 무업은 아니더라도 정정자는 결혼 후 7~8년 정도 그냥 무업을 하는 시어머니를 시봉(侍奉)했던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3남 1녀 중 막내인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화투노름을 하고 바람을 파우면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때부터 돈에 쪼들리게 되었다. 더군다나 1990년대 중반에 돌아가신 둘째 시아주버니가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먹고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무업으로 모아놓은 재산을 많이 탕진하게 된다.

정정자의 동서지간 중에서도 형님(둘째 시아주버니의 부인)에게로 신이 내려 1990년대 초반에 내림굿을 했었다. 형님은 법당까지 모셨으나 몸으로는 신이 오는데 역시 말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모셔 놓고만 있을 뿐이지 무업(巫業)을 하지는 못했다. 이 법당은 정정자가 모시고 무업을 시작할 무렵 없애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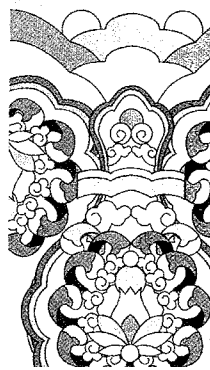
• 신병체험과정 -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살 때, 꿈에 마루 밑이 시멘트이고 그 밑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그 속에는 금빛 잉어 2마리와 은빛 잉어 1마리가 놀고 있었고 그것을 치마에 받아왔던 기억이 있다. 그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부산으로 이사하기 전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부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무병을 앓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병명은 신경성위염이었다. 이 병은 10년 뒤에 신을 받아 들여 무업을 시작할 때까지 전혀 호전됨이 없이 지속되어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정자에게 많은 고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한편, 부산 중동에 살 때도 이태원에서 꾸었던 꿈과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다. 부엌에 시뻘건 흙탕물로 가득 차고 송사리 새끼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물을 다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으니까 금빛 잉어 2마리와 은빛 잉어 1마리가 나왔다. 정정자는 이것에 대해 무당이 되면 아마 세 식구가 될 것이라는 현몽(現夢)으로 해석했다. 실제로도 20대 중반의 아들 위에 아들 두 명이 더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기 때 죽고 큰아들은 19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큰아들이 죽을 무렵 정정자는 신을 받을지 말지 무척 망설였던 때였다고 한다. 큰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정정자는 '할아버지' (몸주신으로 빙의한 외할아버지 이씨)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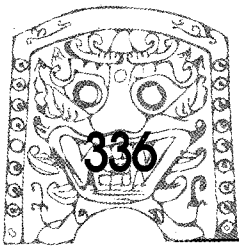
부산에서 살다가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빗을 졌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통에 1985년 12월에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2리(현재 덕양구 행신동)의 소마니 마을 본가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짐을 가져오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기 전 시어머니의 법당에 절을 하는데 양손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시어머니가 그 이유를 알아차리고 "이제 뭘지 다 알았으니까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더니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신을 받지 않기 위해 대구 팔공산에 기도를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구의동에 있는 불이정사에 계신 스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때로는 집에 있기 싫어 친구들과 술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정정자의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 잡아 흔들면서 "이년 어딜 가?"라고 하며 마구 양뺨을 때렸다고 한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뺨을 때린 것이었고, 밤 10시쯤 반코트 차림에 높은 구두를 벗어든 채 눈뜬인인 양산 꼭대기 석불님께 올라가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혼자 앉아 기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 이후에 매일 밤 이유없이 손뼉을 치며 법당을 뛰었다.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하얀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들고 담뱃대를 문 할아버지가 "애야 가자"라고 하며 법당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양뺨을 들게 하고 '가라메'란 도당으로 데리고 가 우물에 삼배(三拜)를 시켰다. "애, 물이 말랐으니 그냥 가자."라고 하며 지푸라기를 입에 물려 다시 사방 삼배씩을 시키고는 "네 벌은 이제 다 풀렸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마른 우물은 정정자의 시어머니가 첫 옥수를 뺏던 우물이었다. 부엌에 들어가 찬물을 끼얹고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상태에서 마구 뛰며 '내가 누구다, 누가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 때가 정월 액막이 직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애, 물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 물을 갖고 어떻게 정한수 뜨고 치성을 해 주느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옆에 다른 우물을 파서 치성을 드렸다.

• 입무과정(入巫過程)과 무(巫) 계통 -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1987년 3월 16일 병곳을 겸한 허주굿을 통해 대물림을 받고, 1989년 7월에는 어느 박수에게서 '가리굿'을 받았다. 가리굿을 한 후에 병이 나았고 그 때부터 가정이 점차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정정자는 시어머니의 신당을 이어받아 정식으로 신딸이 되었고 '소마니 무당'이라는 별명을 이어 받았다. 시어머니는





내림굿을 하여 신내림을 받기는 하였지만 점상(占床)만 받아놓았을 뿐 말문이 터지지 않아 점을 보지는 못했다. 소마니마율이 일산 신도시 개발로 없어지면서 시어머니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장손과 생활하고 정정자는 소마니 집터를 달래는 터누름굿을 하고 나서 지금의 주소로 이사하였다. 신당은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던 그대로 모시고 있으며 탕화(幀畵)로 모시던 약사도사 할아버지만 몸체로 모시게 되었을 뿐이다.

1990년 이후부터 정발산 도당굿을 함께 하는 무녀 중에서 양동순(여, 1923년생)씨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있는데, 이 분은 옛날에 시어머니와 함께 무업을 하였다. 그리고 정정자는 신아들을 한 명 두고 있다.

• 몸주신령 - 몸주신으로는 약사도사(天神)와 궁대신(宮大神)이 있다. 약사도사는 정정자의 외할아버지(이씨) 신을 맞이하여 무당이 된 것이다. 그는 이북이 고향으로서 덕물산으로 자주 기도를 다니셨고, 한국전쟁때 남하해서는 인왕산 석불님께 빌려 다녔으며, 가족들이 아플 때 그 곳에서 빌고 오면 병이 곧잘 나았다고 한다. 궁대신은 친정고모(정씨)가 빙의된 것이다. 고모는 옛날부터 '궁곳'(나라곳)을 많이 했었는데, 침을 잘못 맞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 손님 - 단골은 약 200~300명이 있다.

• 활동 -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 이무기제를 주제로 한 경기도 고양시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발산(鼎鉢山) 말머리 도당굿에 1990년 이후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정정자는 이 도당굿의 전수자로 지정받았다. 또 고양시의 지역문화예술제인 행주문화제 전야제에서 행주대첩승전굿을 주관하고 있다.

(2) 사례 2 : 1년 전 신의 부름을 받은 새내기 김익순²¹⁾

• 가정환경 - 현재 경찰공무원을 했던 남편이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외아들은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남편과 아들이 제보자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남편과는 종종 의견대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종교는 본인을 비롯해서 친정이 불교이다. 신내림을 받은 이후에 가족과는 별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친정 어머니는 2001년 가을인 10월에 돌아가셨다.

• 신병체험과정 - 2001년 봄에 친정인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에서 불안간 슬픈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마구 몰아쳐 왔다. 그랬다가 그런 기분상태가 순간 사라지곤 하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런 자신의 몸과 감정의 급작스런 변화에 대해서 놀라기만 했다.

무업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촌을게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사촌을게를 따라 사촌을게가 잘 아는 서울 우이동에 있는 무당(장군보살: 제보자의 신어머니) 집을 찾아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 곳에서의 말이 "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神)을 받아야지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로 신(神)이 내렸음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런 일은 안 한다. 이것이 모두 미신이지..., 나는 싫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런 사실에 대해 거부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면 사업쪽으로 신을 받아라. 대감님(제보자의 할아버지가 신으로 들어옴)을 업으로 모셔놓고 장사를 하면 잘 된다."라고 하더라.

이 때를 즈음해서 제보자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의 극심한 감퇴로 눈 수술을 받는 등 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던 때였는데, 그 무당이 이런 상황을 맞추어 설명하면서 신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제보자는 자신에게 신이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겁을 먹으면서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 무당이 "장조카도 눈을 다치게 된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제보자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잠재워지고 집안이 평안해지겠나?"라고 무당에게 반문하면서 그런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제보자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모두 거부감을 보였다. 그래서 제보자는 무당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집안일과 "집도 새로 지어서 터도 눌러야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해서 무당의 말대로 500만원을 들여 2001년 5월에 재수굿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 굿을 하는 도중에 무당의 말에 의해서 제보자는 신장대를 잡았는데, 그때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와 돌아가신 제보자 오빠의 혼령이 제보자에게 빙의(憑依)해서 집안 내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족들에

21) 김익순(여, 50세,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655-11호)씨는 2001년에 신내림을 받고 현재 거주주소에서 巫業에 종사하고 있다.

게 공수하기 시작한다. 이때 제보자에게 들어왔던 오빠의 혼령이 쉽게 빠져 나가지 않아서 곳에 참여했던 만신들이 고생을 했다고 한다.

5월에 곳을 끝내고 무당이 3일 뒤에 인사를 오라고 해서 쌀을 들고 우이동에 있는 만신집에 인사차 방문을 했었다. 그리고 친정이 있는 청주로 내려갔었다. 이때부터 감정의 기복이 더욱 심해지면서 본격적인 신병체험(神病體驗)을 하게 된다. 특히, 먹는 것이 부실해지면서 몸이 아위어져 갔었다. 그래서 우이동에 있는 장군보살에게 전화를 해서 몸 상태를 얘기하며 하소연을 하니 그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사람이 살고 봐야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신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천만원을 들여 내림곳을 받게 되었다.

• 입무과정(入巫過程) - 내림곳은 2001년 7월에 국민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천신당(天神堂) ‘성환이 누나네’라는 곳에 가서 이틀동안 하게 되었다. 기력이 없던 제보자는 내림곳을 받게 되면서 몸에 신이 빙의(憑依)되었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걱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작두까지 올라타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난히 신내림을 끝냈다. 사회적인 연령과는 관계없이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보자라는 뜻으로 ‘애동’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 몸주신령과 무계통(巫系統) - 제보자는 강신무(降神巫)이다. 그녀에게 좌정한 몸주신은 네 분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은 장군신(돌아가신 오빠)이고, 나머지는 용궁대신(아버지) · 대감신(할아버지) · 대신할머니(외할머니)로서 모두 조상신(祖上神)이 빙의된 상태이다. 신어머니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장군보살(여, 54살)이다.

• 무업의 장소를 고양시로 정한 이유 - 내림곳을 받은 이후에 몸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神) 중에서 장군님이 ‘고양시 이 곳에 허름한 집으로 정하라.’고 암시를 내려 주셨고, 장군님께 “그러면 어디로 앉으실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일산’이라고 낙점 해주게 되면서 2001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 손님과 점을 치는 방법 - 간판을 내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아름 알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숫적으로 평균 내기에는 기간이 짧지만 보통 하루에 많을 때에는 5~6명 정도이다. 점을 보아준 것에 대한 댓가인 복채는 2~3만원 정도이고,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다.

• 점을 치는 방법은 아직 초심자라 여러 가지가 모두 능숙하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어느 때에는 방울부채가 들고 싶을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글자로 써서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쌀이나 엽전으로 점을 치고 싶어질 때가 있어서 그때 그때 느낌으로 점을 쳐 준다. 때로는 도구의 사용 없이 말, 즉 공수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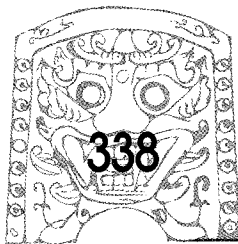
• 무속인들과의 관계 - 제보자가 신내림을 받으면서 접하게 된 무속인은 신어머니와 내림곳을 하면서 만난 ‘성환이 누나’ 그리고 법사를 합쳐 네 명이 전부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현재 신어머니를 통해서 내림곳을 받았지만 신어머니를 비롯해서 자신에게 내림곳을 해주는데 참여했던 무당들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이다.

신어머니는 무복(巫服)을 만들어 주는 것을 비롯해서 3~4년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금전적인 요구와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정적으로 현재 자리잡고 있는 일산구 집의 내부에 신당을 차리는 것을 비롯해서 무업(巫業)을 하겠다는 의례로 점화식(點火式)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몇 천만원의 비용이 쓰이면서 신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신어머니를 사기죄로 법원에 고소한 상태이고 그 신어머니는 종적을 감춘 상태이다.

한편, 제보자의 친정 어머니가 2001년 10월에 돌아가셨을 때 제보자도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염습(殮襲)에 참여했었는데, 신언니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죽은 이의 시신을 보게 되면 신이 뜨기 때문에 시신을 보는 것이 아닌데...’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지노귀곳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뜨는 신을 가라앉혀야 하기 때



김익순씨가 모시고 있는 신단 (일산구 일산동)



문에 누진곳을 해야 한다고 해서 350만원을 더 들여 누진곳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보자에게 내린 몸주신이 암시하는 데로 신어머니에게 ‘달이나 지나거든 하지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따졌더니 서로가 눈치를 보며 쉬쉬하는 모습에서 올바른 곳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서 서로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 이후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몸주신에 의지하여 독단적으로 무업(巫業)에 종사하고자 마음먹었다.

• 신관념(神觀念)과 무업(巫業)에 대한 태도 - 신내림을 받은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신의 운명을 받아들여 자신의 숙명이려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자리잡혔다. 제보자는 자신에게 빙의한 네 신이 모두 신당에 좌정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었는데, 선배들의 조언으로 들어보니 그렇지 않고 매일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해 보면 어떤 신이 주종(主從)이 되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점을 봐 주면 그들이 “신을 받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맞네요!”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제보자 자신은 몸주신들의 영험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또한 월세와 생활비 등을 합쳐 한 달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신령님의 능력인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초심자들에게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선배(신어머니, 신언니, 이모 등)들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신어머니에게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서 억울함과 울분에 차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신령님께 기도를 할수록 ‘처음에는 가진 것 다 떨어먹고 하는 것이야.’라는 암시를 받고 이제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보자가 신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무속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독단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할아버지가 일도 주셔요.”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을 찾아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신령님께서 ‘앞으로 2~3년 고생을 해라.’라고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보자는 신령님께 ‘내가 이 길이 가야할 길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다만, 가정 편안하고 몸 건강하고 환란이 없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빌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무당들처럼 ‘○○보살집’이나 ‘○○사’와 같은 간판을 내걸어 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반면, 꿈속에서는 신령님이 깃발을 꽂고 일을 하라고 자주 보여주기는 하지만 건물주와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제보자 자신이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감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이라 악기연주를 위한 연습을 비롯해서 신령님의 깃발을 달아놓는 것을 다른 입주자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내일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손님이 오면 받고 일이 있으면 하고...”라는 제보자의 표현처럼 앞으로 이삼년 동안은 고생을 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무업이긴 하지만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신탁(神託)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이고, 큰곳에 참석해서도 반주를 하기 위한 악기를 다루는 것이라던가 굿거리 하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올바른 선생(신어머니 등)을 만나서 무당으로서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자신이 직접 무당이나 역술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의뢰하여 배우고 무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의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 탈상을 하기 전까지는 근신하면서 생활을 할 것이고 탈상을 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 이후에는 파주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땅에 무업을 계속할 법당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도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지만 신령님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생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감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가는 몸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 신병을 앓아 몸이 쇠약해졌을 때보다는 내림곳을 받은 이후에 ‘신밥’을 먹은 이후에는 몸도 건강해지고 살이 찌서 몸이 둔한 느낌에 불편하다고 한다.

• 활동 - 지금 곳을 담당하는 다른 선배들이 의뢰를 해 오면 참석해서 징·제금 정도를 쳐서 반주해주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 신내림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열댓 번 정도 곳에 참석했었는데, 참석했던 장소는 감악산 대응암·선왕당·구당·북한산 천신당 등이다.



(3) 사례 3 : 30년 세월의 역술인 고명산²¹⁾

• 가정환경 및 입문계기 - 현재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 상태이지만, 고양시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제보자는 역리학에 대한 남다른 개인적 관심으로 인해 고등학교 때부터 노자·도덕경·음양오행설 등과 관련된 책을 탐독하다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 수학과정 및 계통 - 현재까지 30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고등학교때부터 15년 정도는 일반적인 또는 기존의 역학관련 공부를 했었고, 한편으로는 불가(자인사: 산정호수에 위치하고 있음)에 입문해서 승려가 되어 역학을 공부하기도 했었다. 그 이후부터 10년이 넘게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故 박재산(생존했으면 68세) 선생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고 그가 풀이했던 수많은 역학풀이를 그의 직접적인 제자 2~3명과 함께 복습·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역리학을 공부했다.

제보자는 故 박재산 선생의 역학논리가 '역학계(易學系)에 한 획을 그었다.'고 표현한다. 故 박재산 선생은 자신의 역학논리에 대한 저술을 하거나 공적인 강연회를 했던 적이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분으로서 자신의 몇몇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역학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진위를 가린다고 할 때 기존의 역리학은 체(體), 즉 사주(四柱)를 위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5~10% 정도만을 맞힐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주학(四柱學)과 명리학(命理學)만이 우주의 본체를 본 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주가 물(水)과 육지(陸)가 7:3의 비율로 되어있는데, 우주의 축소판이 인간이고 인간의 본질을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주(四柱)인 것으로서 사주를 대입해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사주학이라고 한다.

• 전문 역술인으로서의 시작 - 30대 초반에 절에서 나와 속세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했다. 고양시로 옮긴 것은 1년 정도 되었다. 그 전에는 서울·포천 등지에서 활동했었다.

• 손님 및 점치는 방법 - 요즘은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은 하루에 2~3명 정도이다. 왜냐하면 역리원을 자주 옮기다보니 손님들이 많이 끊겼다. 포천에 있을 경우에는 많을 때 하루에 60여명의 점을 봐준 적도 있다. 복채는 보통 3만원을 받고 있다. 겨우 겨우 먹고 살만하게 벌이가 되는 형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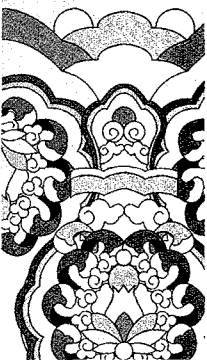
제보자의 점치는 방법은 사주를 통해 보는 것이다. 이때 먹과 붓을 이용해 한지에다가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사주와 성명을 기입하고 그것에 따른 점괘를 적으면서 설명해준다. 제보자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체(體)와 정신(精神)을 모두 고려한 점을 치기 때문에 기존의 역리점장 이외는 다르다고 한다. 이런 방법은 故 박재산 선생의 가르침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역리점장이 1%도 안될 것이라고 한다. 故 박재산 선생의 직접적인 제자 2~3명과 또 그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 그리고 제보자와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이 전부라고 한다. 양택풍수나 음택풍수를 봐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고 있지 않다.

• 역학에 대한 관념 및 태도 - 제보자는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역학이라는 학문이 활발하게 발전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전에는 역학이라는 것은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표현을 들어 너무 가지각색이었다고 생각한다.

역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보자는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야 할 종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반대로 불교는 사상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역학이 나쁘거나 헛된 것은 아닌데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역학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을 짓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 예로, 예전에는 기존의 일반론에 입각한 역리학으로 사람들에게 풀이를 해주었는데, 새롭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과거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보이지 않게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21) 고명산(남, 50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55번지 55호)씨는 현재 '高明山 易理院' 또는 '고명산 철학원'을 운영하는 역술인이다.





• 활동 및 계획 - 요즘 평소에는 자신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은 자신의 역리원에서는 10명 내외의 인원이 1주일에 한 번 시간을 맞춰 가르치고 있다. 한편, 한 달에 한 번 음양오행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4~50명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대개 기존의 역학을 충분히 배웠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과거 역학협회 학술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故 박재산 선생에 의한 제보자의 역학논리는 기존의 역학논리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계를 비롯해서 일반인이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제는 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용한 사찰에 들어가서 머리를 식히면서 공부를 좀 더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잘 벌리지 않아서 언제 사찰에 들어가 정신수양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지 생각한 바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제보자는 역학으로 봤을 때 고양시는 무한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서울 근교이고 역학적으로 강남[火]의 시대가 끝나고 강북[水]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로는 발전할 것이다. 11세기에서 20세기까지가 오행의 하나인 남쪽 '火'의 세계였는데, 앞으로의 21세기는 '火'의 세계인 강남의 시대는 끝났고 '水'의 세계인 강북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서울 근교 강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水'의 세계는 '道'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단학(丹學)이나 노장사상(老莊思想)과 같은 것이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현대인에 있어서 점복의 의미와 기능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토정비결로 대표되는 점을 무당·역술인 등을 찾아가 쳐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생 또는 그 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이나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 원인과 처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이사·취업·입학 등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의 잘되고 못됨 또는 이로움과 해로움 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혼인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의 선택·택일 등을 잘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름·상호 등을 새로 짓거나 그것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터나 묘지를 새로 정하거나 그것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기 위해서와 같은 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²³⁾

그 속에는 이런 이유로 점을 쳐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나쁜 운명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행복을 얻으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출생·건강·부귀·자녀·배우자·원만한 인간관계 등 삶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거나, 우주 운행의 이치에 따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다는 생각, 둘째, 영력(靈力)을 가진 신권자(神權者)나 역리(易理)·상리(相理)·지리(地理)·성명학(姓名學) 등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과 점복자들은 점을 쳐서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질병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는 굿·독경·액막이·살풀이·부적·개명·이사·이장 등을 통해 이를 예방하거나 물리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²⁴⁾

지금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유한존재인 사람은 어떤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로 점복에 의지하곤 한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점을 쳐 그 결과에 의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것을 없애거나 예방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복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 해결, 정서불안 해소, 흥미 삼아 심심풀이로 즐기는 놀이, 때로는 그런 점복에 대한 의지가 잘못임을 알게 하는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⁵⁾ 특히, 절박한 현실로 인한 구제를 위해 점복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새로운 유행으로 점복은 놀이적 기능을 아날로그 방식의 점집에서 그리고 디지털 방식의 사이버 공간에서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다.

23) 김태곤 외 공저, 앞의 책, 104~105쪽.

24) 김태곤 외 공저, 앞의 책, 107쪽.

25) 김태곤 외 공저, 앞의 책, 95~102쪽.



[제보자]

- 고명산(남, 50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55번지 55호, '高明山 易理院' 또는 '고명산철학원' 운영하는 역술인)
- 고순길(남, 70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 김익순(여, 50세,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655-11호)
- 이수영(남, 85세,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419-2번지)
- 아우상(남, 71세,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8번지 마장마을)
- 이정란(여, 36세,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뉴삼익Apt 1606동 1004호)
- 이정희(여, 42세,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62-1 3층)
- 이천리(남, 71세,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361번지)
- 이태룡(남, 67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용복원마을)
- 정순문(남, 68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용복원마을 111번지)
- 정순옥(남, 70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용복원마을)
- 한용우(남, 69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용복원마을 407번지, 2002년 1월 현재 노인회장)
- 황장환(남, 60세, 고양시 일산구 주엽1동 강선마을 유원삼환APT 712동 502호,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방앗간을 운영)
- ○○○(여, 58세, 황장환씨 부인)

< 참고문헌 >

-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Ⅱ 신양편), 1999.
- 고양문화원, 『고양시 향토의 얼과 역사』, 1999.
-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김태곤 외 공저, 『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 양대석, 『한국의 명무』, 문덕사, 1997.
- 이중환 지음·허경진 옮김, 『택리지(擇里志)』, 한양출판, 1996.
-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2000.
- 최영준, 「풍수와 『택리지』」, 『한국사 시민강좌』제14집, 일조각, 1995.
-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2, 민음사, 1997.
- 황종찬, 『현대주택풍수』, 좋은글, 1998.

